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日韓關係

— 7~9세기 —

사카우에 야스토시(坂上康俊)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제1장)

<p>제1장 7세기의 일한관계</p> <p>제1절 隋·唐의 성립과 동아시아 제국의 동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倭國의 對隋外交와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 2. 《隋書》의 ‘大國’ 評言에 대하여 3. 唐의 興起와 국제균형시기 <p>제2절 白村江戰과 동아시아 지역의 재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제 왕자 豊璋의 來倭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642년 2. 白村江戰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3. 白村江戰과 당·신라·백제·고구려·왜 4. 신라의 對唐전쟁 수행과 왜와 신라의 관계 <p>제2장 일본 율령국가의 성립</p> <p>제1절 일본 율령제의 성립과정에 신라가 미친 영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라의 ‘율령제’와 일본의 율령법전 2. 일본 율령국가 성립 과정에 신라가 미친 영향 <p>제2절 일본 율령국가의 국제질서 구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隣國’ ‘蕃國’論 2. 唐에서 본 세계질서 <p>제3절 외교기구와 迎接儀禮</p> <p>제4절 신라·발해 간의 외교문서</p>	<p>제3장 일본과 신라의 관계 추이</p> <p>제1절 8세기 일본과 신라의 관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라와 倭(일본)의 蜜月期 2. 일본·신라 관계의 알력 3. 藤原仲麻呂의 신라 정벌 계획 4. 일본과 신라의 외교 관계 단절 <p>제2절 奈良時代의 불교와 신라</p> <p>제3절 正倉院 보물 속의 신라 문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 2. 문서 <p>제4절 平安時代 일본과 신라의 관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라 상인의 내항 2. 장보고와 入唐僧 3. 貞觀 연간의 신라 해적선의 습격과 王土王臣思想 4. 고려 건국·신라 멸망과 일본 <p>제4장 일본과 발해의 관계 추이</p> <p>제1절 奈良時代의 일본과 발해의 관계 - 양국의 地位에 대한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p> <p>제2절 平安時代의 일본과 발해의 관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年期制의 성립과 그 운용 2. 渤海使 迎接儀禮와 문인 관료 3. 일본과 발해의 교역 4. 渤海使·遣渤海使의 항로와 교통로
--	--

【國文抄錄】

7세기의 동아시아는 隋·唐의 성립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 격동의 시대를 맞이한다. 642년을 기점으로 한반도 삼국의 대립은 최종 단계에 돌입하고 倭國도 등거리 외교에서 어쩔 수 없이 백제 지지로 전환하게 되어, 660년 백제 멸망 후 663년의 백제부흥운동을 지원하여 唐·신라와 白村江戰에서 전투를 하고 대패를 당한다. 이로 인해 倭國이 유사 이래 쌓아온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는 한동안 두절된다. 그러나 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여 唐과 전쟁을 시작한 신라는 倭國에 매년 遣使하여 ‘조공’ 자세로 관계 유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라가 唐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대등한 예로 대하는(尙禮)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고, 8세기에는 상이한 對外觀 때문에 日羅關係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 시기 7세기 말엽에 성립된 발해가 唐·신라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존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본에 使者를 파견하고 그 이후 약 200년간에 걸쳐 일본과 발해의 외교 관계가 성립되게 된다. 초기에는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이 관계는 唐에 安史의 亂이 일어나게 되어,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쳐서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관계로 이행해 간다.

8세기 말에는 일본과 신라와의 사이에 외교 관계가 두절되게 되지만, 그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본에는 신라에서 다양한 문물이 들어왔다. 9세기에 들어서면 신라 국내의 상황이 악화된 것도 있어서 일본에 신라인이 오게 되고 그 중에는 동지나해를 무대로 日·唐·신라 삼국 간의 교역에 종사하는 海商이라고 불려야 할 존재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장보고는 8세기 중엽에 반란을 일으켜 멸망하게 되지만, 그가 유지하고 있던 해상 네트워크는 일본에서는 오로지 ‘唐商’이라고 알려진 존재가 이어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인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행착오가 이루어졌다. 한편 발해와의 사이에서는 9세기에는 年期制가 채택되게 되고, 발해가 일본에 조공을 하는 형태로 유지되면서 상당히 빈번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에서 唐이 멸망하고 五代之 시대를 맞이하는 때와 시기를 같이하여, 신라말기의 반란 속에서 고려가 건국되어 신라가 멸망하고, 또 조금 뒤에 발해도 거란에 항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7세기 후반에 성립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붕괴되었다.

주제어 : 隋·唐과 동아시아 諸國, ‘大國’, 白村江戰, 율령체제, ‘調’, 조공, 蕃國, 賓禮, 영접, 正倉院, 화엄종, 安置供給, 新羅海商, 年期制, 장보고, 해적, 唐商

제1장 7세기의 일한관계

제1절 隋·唐의 성립과 동아시아 제국의 동향

중국에서는 4세기 초반 이후 장기간에 걸쳐 南北朝시대의 분열이 계속되었지만, 589년에 北朝의 隋가 南朝의 陳을 멸망시키고 약 300년 만에 중국 통일을 실현했다. 隋는 3번에 걸친 고구려 정벌 등으로 인해 사실상 2대 煬帝 때에 괴멸해 버리지만 隋(581~618년), 그리고 다음의 唐(618~907년)은 전근대 동아시아에 있어서 보편적인 國制의 모델이 된 律令法을 완성시킨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였다. 그러한 隋·唐의 등장으로 인해 그 사이 독자적으로 국가 형성을 진행시켜 온 倭國, 한반도 제국은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응해 가야만 했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여기에 隋·唐의 개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여 그때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분쟁이 전개되게 된다.

1. 倭國의 對隋外交와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

隋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 한반도 제국에서는 백제가 589년, 고구려가 591년, 신라는 594년에 隋에 사신을 보낸다. 隋에 대한 한반도 제국의 대응은, 隋와 대립하여 정벌을 받아 이를 격퇴한 고구려, 隋의 고구려 정벌에 의존하면서도 이에 편승하여 신라를 공격하고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 확보를 도모한 백제, 그리고 隋에 臣從함으로써 고구려·백제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신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러한 삼국의 대응은 다음에 이어지는 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倭國이 제1회 遣隋使를 파견한 것은 600년의 일이고 동아시아 제국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사자파견이었다. 600년의 遣隋使는 자국의 정치 양식 등을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隋의 초대 황제 文帝에게 ‘此太無義理’라고 일축당하고 중국식으로 바꾸도록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隋書》倭國傳). 倭國은 603년 冠位十二階 제정, 604년 憲法十七條 작성, 小墾田宮의 禮式改訂 등 國制 개혁을 추진하고, 607년 제2회 遣隋使인 小野妹子를 파견하기에 이른다.

冠位十二階는 倭國 최초의 冠位制度로 한반도 삼국, 특히 백제의 제도를 따랐다【**黨弘道 1959, 1979**】. 그 후에 隋·唐과 通交를 거듭했지만 隋·唐制를 전면적으로 채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倭國은 우선 사회의 발전 단계가 서로 비슷한 한반도 제국의 제도를 참조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森公章 2008a**】.

607년의 倭國의 國書 ‘日出處天子, 致書日沒處天子, 無恙云云’(《**隋書**》 倭國傳)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日出處’와 ‘日沒處’에 격차를 찾아내어 倭國은 대등 외교를 주장했다고 하는 의견이 우세했었다【**森克己 1962**】. 그러나 현재는 이 어구는 불전인 《**大智度論**》이 그 典據이고, ‘東’·‘西’의 방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며 오히려 ‘菩薩天子’라고 칭해졌던 隋 황제에게 배려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설이 유력하다【**東野治之 1992, 河上麻由子 2008**】. ‘致書’와 ‘天子’의 어구도 반드시 대등관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이해【**森公章 1988**】. 그리고 설령 대등 관계 구축을 의도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중국 왕조와의 군신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중국 왕조에 필적하는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 등이 필요한데, 당시 왜국은 분명히 이 부분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隋와의 군신 관계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廣瀨憲雄 2008**】.

이와 관련하여 倭國을 ‘日出處’라고 하는 발상은 倭國 조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國書 起草와 對隋 외교의 방침결정에 대해서는 595년에 일본에 와서 당시 倭國의 유력 왕족이었던 鹿戶王(聖德太子)의 불교 스승이 되었던 고구려僧 慧慈의 영향이 컸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日出處’·‘日沒處’는 고구려의 입장에서 본 倭國과 唐을 가리킨다고 설명함)【**李成市 1990**】. 慧慈는 隋의 고구려 정벌이 고비를 넘긴 615년에 귀국하고 있고 아마도 倭國이 전면적으로 중국 편이 되는 것을 막는 ‘使命’을 다한 것이 된다. 이 시기 고구려는 승려 파견이나 불교·문화면에서의 공헌을 보여서 倭國의 希求에 응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제3장의 <표 4>를 참조), 다음의 唐代에도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고구려, 또 백제와 신라의 국제 활동이 倭國의 대중국 외교에 미친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1 《**日本書紀**》 推古 16年(608) 6月 丙辰條

客等泊于難波津. 是日, 以飭船卅艘迎客等于江口, 安置新館. 於是, 以中臣宮地連摩呂·大河內直糠手船史王平爲掌客. 爰妹子臣奏之曰, 臣參還之時, 唐帝以書授臣. 然經過百濟國之日, 百濟人探以掠取. 是以不得上. 於是, 羣臣議之曰, 夫使人雖死之不失旨. 是使矣, 何怠之失大國之書哉. 則坐流刑. 時天皇勅之曰, 妹子雖有失書之罪, 輒不可罪. 其大國客等聞之亦不良. 乃赦之不坐也.

그리고 隋使 裴世清은 백제를 경유하여 倭國에 도착했지만(《隋書》倭國傳), 이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귀국한 小野妹子의 말에 따르면 귀국하는 과정에서 백제에서 백제인에게 隋 황제가 보낸 문서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이다. 이 ‘唐帝以書授臣’이라는 문서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서로 보는 견해가 유력했지만, 국서는 裴世清이 지참하고 있고 《日本書紀》推古 16년(608) 8월 壬子條에 捧呈되었다는 내용이 있다(황제가 신하에게 하사하는 慰勞制書의 형식으로 倭國의 遣使를 ‘조공’이라고 하는 어구도 있다). 백제는 隋가 倭國에 무엇을 고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국서 강탈은 당연히 큰 국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백제인이 탈취했는가에 대한 사실 여부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書’는 倭國의 ‘無禮’를 教諭한 문서를 이르는 것이고, 小野妹子는 이것이 倭國 조정에 공개되면 자신의 사명 달성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강탈을 구실로 보고한 것이 아닐까? 또 조정도 그것을 옳다고 인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川本芳昭 2004】. 이 견에 대해서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2. 《隋書》의 ‘大國’ 評言에 대하여

《隋書》倭國傳에는 “新羅·百濟, 皆以倭爲大國, 多珍物, 竝敬仰之, 恒通使往來”라는 기술이 남아 있다. 당시 일한관계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倭國과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崇峻朝부터 推古朝에 걸쳐 倭國은 ①591~595년과 ②602~603년의 2번에 걸쳐 筑紫에 군대를 주둔시켜서(駐兵) ‘任那 부흥’의 자세를 보여준다【森公章 2002a】. ①은 594년 신라가 入隋한 이후의 동정을 지켜본 결과 철수, ②는 백제·고구려의 신라 침공(<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제3장의 <표 3>을 참조)에 응답한 것이었지만, 600년에 보낸 遣隋使의 결과가 좋지 않아 국정 개혁과 동아시아 외교 재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요인이 되어 중지되게 된 것 같아서, 倭國의 행동이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02 《日本書紀》推古 18年(610) 7月條

新羅使人沙喙部奈末竹世士, 與任那使人碓部大舍首智買, 到于筑紫.

1-03 《日本書紀》推古 19年(611) 8月條

新羅遣沙喙部奈末叱智, 任那遣習部大舍親智周智, 共朝貢.

1-04 《日本書紀》推古29年(621) 是歲條

新羅遣奈末伊彌買朝貢. 仍以表書奏使旨. 凡新羅上表, 蓋始起于此時歟.

倭國이 위에 서술한 隋와의 通交를 거친 610, 611년에는 倭國에 新羅使와 ‘任那’使가 오게 된다. 敏達朝 이래의 ‘任那 부흥’ 노력, 2번에 걸친 興兵으로도 실현할 수 없었던 ‘任那’使가 일본에 온 것과 ‘任那調’ 送付가 달성된 것이다. 그 이유로는 倭國의 遣隋使 파견, 隋와의 通交라고 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상징할 수 있다. 신라는 608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북부 국경 지대에서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피해를 입고 隋에 고구려 정벌을 발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三國史記》 <新羅本紀> 眞平王30年條). 이런 정세 속에서 신라는 倭國에게도 구원을 요청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任那調’ 送付를 통한 관계의 회복·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일 것이다. 그러한 신라와 대항하기 위해 백제가 일본에 오고 문물을 공여하고 나아가 隋와 대립하고 있던 고구려와 접촉할 수 있었던 점도 중요하다(<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제3장의 <표 4>를 참조).

《隋書》의 ‘大國’ 용례에 따르면 ‘大國’이란 내적으로 예절을 갖추어 유지하고 이와 함께 禮的 질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라고 정의되는 것 같은데 【黑田裕一 1998】, 倭國이 한반도 삼국의 균형 위에서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大國’ 評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한다. 단, 이번의 ‘任那調’ 획득은 倭國의 주체적인 ‘任那復興’책 발동으로 인해 달성된 것이 아니었다. ‘大國’ 평가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倭國의 국력 확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큰 것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唐의 興起와 국제균형시기

618년 고구려 정벌 실패 등으로 인해 隋가 멸망하고 唐이 성립된다. 고구려는 619년 백제와 신라는 621년에 唐과 通交하게 되지만, 각국의 通交자세는 기본적으로는 隋代와 마찬가지로였다.

1-05 《舊唐書》 倭國傳(貞觀5年=631)

貞觀五年, 遣使獻方物, 太宗, 矜其道遠, 勅所司, 無令歲貢. 又遣新州刺史高表仁, 持節往撫之. 表仁無綏遠之才, 與王子爭禮, 不宣朝命而還.

倭國이 제1회 遣唐使를 파견한 것은 630년이고, 《舊唐書》 倭國傳(사료 05)에 따르자

면 631년에 倭國이 入貢했을 때, 唐·太宗은 歲貢면제를 지시했다고 하며 이것은 唐이 倭國을 책봉하고 倭國이 매년 조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西嶋定生 1962·1981, 金鉉球 1983】. 그러나 倭國에 파견된 唐使 高表仁이 ‘與王爭禮’라고 하듯이(《舊唐書》에는 ‘왕자’라고 되어 있지만, 《新唐書》 日本傳, 《善隣國寶記》 舒明3年條 所引 ‘唐錄’ 등에 따라 개정했다【池田溫 1971】) 倭國은 책봉을 거부한 듯하다. 倭國은 隋의 책봉도 받지 않은 것 같고, 대등 외교 운운하는 것과는 별개로, 倭國이 중국의 책봉을 받지 않는 것은 隋代부터의 일관된 방침이었던 것 같다. 이 시기 唐은 북방·서방에 문제를 안고 있어서 630년 突厥의 頡利可汗을 격파, 635년 吐谷渾 도벌, 640년 高昌國 평정, 641년 吐蕃에 공주를 降嫁시키는 등 641년까지는 동방정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唐이 고구려에 陳大德을 파견하여 동태를 살피게 한 것은 641년 8월이고, 이때쯤부터 동방에 두루 신경을 쓰기 시작함). 따라서 倭國과 高表仁의 마찰도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무사하게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倭國이 제1회 遣唐使를 파견하기 직전인 630년 3월에 高句麗·百濟使가 같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전해진다(<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제3장의 <표 4>를 참조). 이 사절은 倭國의 對唐외교에 어떠한 형태의 견제를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구려와 백제가 倭國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 엿보인다. 白村江戰에 이르게 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節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倭國이 결국은 백제·고구려 측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때쯤부터 이루어진 工作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을 것이다.

제2절 白村江戰과 동아시아 지역의 재편

660년 唐·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663년 白村江戰에서 백제의 유민과 倭國이 대패하여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고, 668년 고구려 멸망으로 전개된 이후, 한반도 전체의 領有를 꾀하는 唐과 신라 간에 전쟁이 시작되고, 676년 신라에 의한 반도 통일(통일신라의 성립)로 귀착되게 되는 동아시아 대변동의 과정 속에서 642년은 하나의 획을 긋는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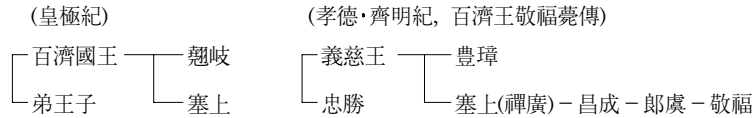
1. 백제 왕자 豐璋의 來倭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642년

642년 전년에 즉위한 백제의 義慈王(재위 641~660년)은 스스로 병사를 이끌고 신라를 침공하여 40여 城을 함락시키고 숙원이었던 옛 가야 지역 탈환을 달성했다. 나아가 백제는 고구려와 和親하고, 643년 11월에는 党項城(京畿道 華城郡 西新面 尙安里)을 취하고, 舊都 漢城의 故地 주변을 탈환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라의 善德女王(재위 632~647년)이 唐에 구원을 청하여 공격은 중지되었지만, 백제는 東部·北部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 신라에 대한 침공을 격화시킨다(《三國史記》 <新羅本紀>·<百濟本紀>).

義慈王은 또 642·3년경에 왕자 豐璋을 倭國에 ‘인질(質)’로 파견하고 있다. 이 백제의 왕자 豐璋의 도래 시기에 대해서는 631년 설도 있지만(《日本書紀》 舒明3年(631) 3月 庚申朔條), 631년은 義慈王 이전인 武王(재위 600~641년)의 시대여서 의문이 남는다. 義慈王 즉위 후인 642년 내지는 643년에¹⁾ 일본에 온 백제 왕자 중에 翹岐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日本書紀》 皇極 元年 2月 戊子條, 同 2年 4月 庚子條), 이 翹岐가 豐璋과 동일인물이며 豐璋 = 翹岐가 일본에 온 것도 642·3년경이라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고 여겨진다【西本昌弘 1985】. 지금 翹岐와 豐璋의 관계 계도를 작성해 보면 양자를 둘러싼 인물들은 매우 유사하며, 豐璋의 別名이 糺解이라는 점(《日本書紀》 齊明 7년(661) 4月 條, 天智2年(663) 5月 癸丑朔條)에 주목해 보면, 糺解(기우케)와 翹岐(게우키)의 음(《釋日本紀》 卷19·20의 秘訓에 의함)이 유사하여, 豐璋 = 糺解 = 翹岐라고 해석할 수 있다²⁾.

1) 皇極紀 기사에 年次的 혼란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鈴木靖民 1970, 西本昌弘 1985】등을 참조.

2) 643년의 기사에서는 豐璋(余豐)이 ‘百濟太子’라고 나와 있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4年(644)條에 의하면, 이 해에 扶余隆을 태자로 세웠다고 하고 있어서, 倭國에 파견된 太子 豐璋 대신에 扶余隆을 태자로 세운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豐璋은 644년보다는 조금 전에 일본에 왔다고 추정됨. 그리고【宋浣範 2005】은 豐璋과 翹岐는 다른 인물이라 하여, 豐璋은 武王의 아들로서 631년에 일본에 온 인물(倭國의 제1회 遣唐使 파견으로 인해 唐·신라와 倭國의 연합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처한 것으로 봄)이고, 翹岐는 義慈王 즉위로 인한 백제 대란의 영향으로 643년에 일본에 온 인물로 보고 있지만,【西本昌弘 1985】의 논거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로서의 결론이 아니며, 《舊唐書》 百濟傳,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20年(660)條의 ‘故(古)王子’를 ‘故(古)王의 子’라고 읽고, 당 시대에서는 王子라고 부르는데 어울리지 않는 王子의 뜻으로 한다는 점, 해당 시기의 倭國의 외교정책이 친신라에서 반신라, 그리고 친백제로 전환된다고 보는 점 등 몇 가지 논점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역시【西本昌弘 1985】를 지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인질’로 체류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倭國 조정과 교류하는 이른바 고급 외교관으로서 倭國을 親百濟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羅幸柱 1996】, 이러한 ‘인질’을 둘러싼 사정에도 유의해야만 한다.

동아시아 제국의 642년의 상황에 대해 다시 보자면, 고구려에서의 642년 10월에 국왕이 시해되고 泉蓋蘇文(淵蓋蘇文)³⁾에 의한 專制政治가 확립된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고구려가 국가체제의 강화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鬼頭清明1981】. 唐의 고구려 정벌은 蓋蘇文 생존 시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의 사후 아들들의 형제 간 분쟁이라는 하는 내부 분열을 맞게 되어 668년에 점차 고구려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사반세기에 이르는 唐과의 전쟁이 가능했던 것은 蓋蘇文의 수완에 의한 것이 컸다. 백제·고구려에서 專制權力의 확립·전쟁수행이 가능한 국가체제가 정비되는 가운데 6세기대에 대 발전을 이룩한 신라만은 이 시기 정세기에 빠져있었다. 642년 당시의 신라왕은 善德女王이었고 다음으로 眞德女王(재위647~654년)의 치세가 이어진다. 여왕이기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남자 왕을 세우지 못했던 배경에는 왕권의 약화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라는 643년 9월, 唐에 사신을 보내어 백제·고구려의 영토 침범을 호소하고 구원을 요청한다. 北方·西方의 안정을 이룩한 唐에는 동방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唐이 반도 정세에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도

3) 泉蓋蘇文은 중국의 史書와 《三國史記》(卷49傳에 ‘姓泉氏’)에 ‘泉蓋蘇文’이라고 나오지만, 蓋蘇文의 弟 淨土를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6年 12月條 등에서는 淵淨土라고 하고 있다. 《舊唐書》 高句麗傳에 ‘蘇文姓錢氏’라고 나오는 것은 泉과 錢의 音通이다. 《東史綱目》 附錄 卷上에 따르면 泉은 원래 淵이라고 칭했던 것이지만, 唐·高祖의 諱를 피하여 淵을 泉이라고 고친 것이라고 추측한다. 일본 측의 사료를 보면 《日本書紀》 皇極 元年 2月 丁未條에 ‘伊梨柯須弥’라고 나오고, 伊梨는 이 淵의 자음에 가깝고 柯須弥는 蓋蘇文의 音譯이라고 생각되어 原音은 Ir-kasum였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淵蓋蘇文이 原音表記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되며 한국의 학계와 독서계에서는 이 표기가 일반적이다. 《日本書紀》 天智3年 10月條에는 蓋蘇文을 蓋金, 同 6年 10月條에 蓋蘇文의 子를 太兄男生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일본 측 사료에는 ‘泉蓋蘇文’이라고 하는 표기는 없어서, 이 일족의 姓이 泉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서는 ‘蓋蘇文’이라고 하는 이름만 표기하고 있고, 寶藏王 26年 9月條에서는 그의 아들을 泉男建·泉男生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후자인 泉姓의 기사는 《新唐書》를 문헌상의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 사정도 있는 것 같다.

642년은 하나의 획을 긋는 해이기도 하다.

倭國에서는 642년에 舒明天皇의 皇后 寶皇女가 皇極天皇으로 즉위하여 신라와 마찬가지로 여왕의 통치가 출현하게 된다. 이 皇極朝에서는 蘇我蝦夷·入鹿 부자, 蘇我本宗家を 주축으로 권력 집중을 피하여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전제정치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심해져, 倭國에서는 645년 6월에 皇極天皇의 아들 中大兄皇子(天智天皇)와 中臣鎌足들이 실동 부대로 蘇我本宗家を 토벌하고 敏達系 왕족인 孝德天皇(皇極의 형제)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乙巳의 變이 일어난다. 645년은 唐·太宗의 고구려 정벌이 시작된 해이며, 乙巳의 變은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면서도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국가체제 구축의 방향까지 그 논점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 孝德朝의 개혁(‘大化改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 단계에서 倭國은 아직 완전하게는 중앙집권적 국가 건설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森公章 2002b, 2005b】.

2. 白村江戰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乙巳의 變과 외교 방식과의 관계와 白村江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A)親百濟派였던 蘇我本宗家에 대하여 中大兄皇子일파는 親新羅·唐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그 후에 親百濟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山尾幸久 1967, 金鉉球 1985, 八木充 1986】, (B)642년에 백제가 옛 가야지역을 탈환하면서 ‘任那調’ 확보를 추구하는 蘇我本宗家와 ‘任那調’를 포기해서라도 백제·신라 양국과의 관계 유지를 도모하는 中大兄皇子 일파와의 대립이 있었고, 中大兄皇子 일파는 한반도 제국의 항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백제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白村江戰으로의 길을 가게 된다 【鬼頭清明 1970】, (C) 倭는 642년 이래 일관되게 親百濟策이었고 이 방침에 반하는 행위(내용불명)를 취한 蘇我本宗家을 토벌했다 【西本昌弘 1987】는 등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1-06 《日本書紀》 大化 元年(645) 7月 丙子條

高麗·百濟·新羅, 並遣使進調. 百濟調使兼領調任那使, 進任那調. 唯百濟大使佐平緣福遇病, 留津館而不入於京. 巨勢德大臣, 詔於高麗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天皇所遣之使, 與高麗神子奉遣之使, 既往短而將來長. 是故可以溫和之心相繼往來而已. 又詔於百濟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始我遠皇祖之世, 以百濟國爲內官家, 譬如三絞之綱. 中間以任那國屬賜百濟, 後遣三輪栗隈君東人觀察任那國堺. 是故百濟王隨勅悉示其堺, 而調有關, 由是却還其調. 任那所出

物者, 天皇之所明覽, 夫自今以後, 可具題國與所出調. 汝佐平等, 不易面來, 早須明報. 今重遣三輪君東入・馬飼造<闕名>. 又可送遣鬼部達率意斯妻子等.

1-07 《日本書紀》 大化 2年(646) 9月條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而使貢質, 遂罷任那之調<黑麻呂更名玄理>.

1-08 《日本書紀》 大化 3年(647) 是歲條

新羅遣上臣大阿飡金春秋等, 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顏善談笑.

1-09 《日本書紀》 大化 5年(649) 是歲條

新羅王遣沙喙部沙飡金多遂爲質. 從者卅七人<僧一人, 侍郎二人, 丞一人, 達官郎一人, 中客五人, 才伎十人, 譯語一人, 雜僱人十六人, 并卅七人也>.

1-10 《日本書紀》 白雉 2年(651) 是歲條

新羅貢調使知万沙飡等, 著唐國服泊于筑紫. 朝廷惡恣移俗, 訶嘖追還. 于時巨勢大臣奏請之曰, 方今不伐新羅, 於後必當有悔. 其伐之狀不須舉力, 自難波津至于筑紫海裏, 相接浮盈艦舳, 召新羅問其罪者, 可易得焉.

1-11 《日本書紀》 齊明 元年(655) 是歲條

高麗・百濟・新羅, 並遣使進調<百濟大使西部達率余宜受・副使東部恩率調信仁, 凡一百餘人>. 蝦夷・隼人率衆內屬, 詣闕朝獻. 新羅別以及飡彌武爲質, 以十二人爲才伎者. 彌武遇疾而死.

乙巳의 變 직후인 645년 7월에 일본에 온 고구려와 백제의 使者에 대하여 倭國은 고구려와는 앞으로의 通交를 기대한다는 말을 나누고, 이와 함께 백제에 대하여는 ‘인질’로 보이는 鬼部達率意斯의 처자들을 되돌려 보내고 옛 가야지역 탈환에 따른 ‘任那調’ 송부를 요구하면서 送付 시의 세칙을 제시하고 있다(사료 06). 그리고 倭國은 다음 해인 646년 9월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任那調’ 송부 정지와 ‘인질’ 파견을 지시했다(사료 07). 따라서 옛 가야지역을 영유하고 있는 나라로부터는 ‘任那調’ 송부,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는 ‘인질’ 파견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동아시아 등거리외교가 견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제는 자신의 힘을 믿고 倭國에 별로 사신을 보내지 않고 신라 쪽이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했고 후에 太宗 武烈王으로 즉위하는 金春秋도 647년에는 일시적으로 ‘인질’로 일본에 오게 되는(사료 08) 등 倭國과의 관계 유지를 추구하는 구조가 되었다⁴⁾.

4) 金春秋가 일본에 온 내용은 《三國史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단, 【石井正敏 2007】는 延喜 22년(922)에 후백제의 왕 甄萱이 파견한 使者를 추방할 때의 《本朝文粹》 卷12 <大宰答新羅牒>에 인용된 甄萱의 牒狀 중에 “而自質子逃遁, 隣言矯誣, 一千年之盟約斯渝, 三百歲之生疎到此”라는 어구가 있고 ‘一千年’은 기원전 18년의 백제 건국, ‘三百歲’는 660년 또는 663년의 백제 멸망에서 부더의 어림수, ‘質子’는 金春秋를 가리키며 金春秋가 倭國과의 제후를 단념하고 入唐하여, 唐과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백제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측의 사료에도 金春秋가 ‘質子’로 일본에 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는 이

金春秋는 648년에는 唐에 갔고, 《舊唐書》 倭國傳에는 제1회 遣唐使를 둘러싼 분란에 이어, “又附新羅奉表, 以通起居” 라고 나와 있다. 신라는 이 해에 3번 遣唐使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三國史記》 <新羅本紀> 眞德王 2年條), 정확하게는 어떤 使者에 위임했었는지 불분명하지만, A설의 입장에서는 金春秋에게 위임하여 신라를 지지하는 방침을 알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전달 내용은 분명하지 않고 또 倭國의 제2회 遣唐使 파견은 653년이 되기 때문에, 등거리 외교 유지설이라는 입장에서는 倭國과 唐과의 通交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651년에는 일본에 온 新羅使의 唐國服用用問題가 일어난다(사료 10). 강경 의견도 나왔었지만, 역시 倭國의 구체적인 대응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등거리외교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반응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해석된다.

642년 이후부터 660년에 唐·신라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기까지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기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森公章 1992·1998】.

- I. [642~647년 : 唐의 三國和親 說諭와 한반도 제국의 對應] 고구려는 唐을 적대하고 백제는 표면상으로는 사죄를 하지만 계속 신라를 침공한다. 신라에서는 唐의 군사원조의 조건=唐의 皇子를 국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둘러싸고 親唐依存派와 親唐自立派의 대립이 물밑에서 진행된다.
- II. [648~654년 : 신라의 唐風化정책과 唐에 대한 접근] 신라는 647년 毗曇의 亂을 겪고 【武田幸男 1985】 친당자립파를 중심으로 왕권 강화에 나서지만, 唐의 고구려 정벌 실패, 647년에 백제의 침공을 받아 위기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金春秋를 唐으로 보내어 唐과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일련의 唐風化 정책을 취하면서 唐과 같은 국가조직 구축, 동질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唐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고 또 신라의 왕권 강화, 강력한 군국체제 구축에 힘썼다. 백제는 651년에 唐에 사신을 보내지만 653년 8월에 倭國과 친교를 맺은 이후 遣唐使를 파견하지 않게 되고 唐과 대립하는 길을 선택한다.
- III. [655~660년 : 唐의 고구려 정벌 재개와 백제 멸망까지의 과정] 655년 2월 唐의 고구려정벌이 재개되고 이후 668년 고구려 멸망까지 전투가 이어진다. 신라는 고

야기가 되고, 그것은 《舊三國史》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단, 【渡邊誠 2009】는 ‘一千年’은 긴 시간을 막연히 가리키는 ‘千年에 달하는 永遠’이란 뜻이고(‘三百歲’도 마찬가지), 日本으로부터의 ‘인질’이 도망쳤다는 것은 《日本書紀》 神功 5年 3月條의 微叱已知波珍干岐(未斯欣)의 이야기를 가리킨 것이라며, 石井씨의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구려·백제의 침공에 대하여 唐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唐은 고구려에 가담하고 있는 백제를 처단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656년 이후에는 新羅使를 倭國에 보내지 않게 된다. 이 점에서도 신라의 외교 방침의 추이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倭國과 고구려의 通交, 특히 전술한 655년 이후의 제Ⅲ기의 양상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고자 한다. 前節에서도 언급했었던 645년에 일본에 왔다는 기사 이후 《日本書紀》 孝德紀에는 매년 한반도 삼국에서 使者가 왔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 기사들은 다소 유형적 기술이며 또 孝德紀에는 윤색도 존재하기 때문에 倭國과 고구려와의 通交의 실태는 불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부분은 656년의 高句麗使가 일본에 오고 이에 응하여 倭國에서도 遣高句麗使 膳臣葉積·坂合部連磐鍬 등을 파견했다고 알려져 있다(《日本書紀》 齊明 2年 8月 庚子條·是歲條, 9月條). 이와 동시에 遣百濟使도 파견하고 (齊明 2年 是歲條)있기 때문에, 여기서 倭國이 고구려·백제의 정세 파악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고구려는 660년에도 倭國에 사신을 보내고 있고, 정확히 백제가 멸망하는 7월에 귀국한다(齊明 6年 正月 壬辰朔條·5月 戊寅條·7月 乙卯條). 高句麗使는 어쩌면 이런 변고를 예고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가령 倭國이 고구려와 제휴를 피하려고 해도 이미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백제를 토벌한 唐·신라 연합군은 고구려정벌에 전력을 쏟을 수 있게 되어 고구려에게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倭國으로 사신을 보내는 것도 곤란해지게 된다.

3. 白村江戰과 당·신라·백제·고구려·왜

660년 7월, 唐·신라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한다. 그 후 唐은 약간의 주류군을 남기고 옛 백제 영토를 통치하게 한다. 唐·신라군의 주력 부대는 고구려 전선으로 향한다. 이런 가운데 이미 8월에는 백제 유민이 봉기하여 백제부흥운동이 전개되게 된다. 백제 유민들은 9월에 倭國에 使者를 파견하여 원조를 요청했고 倭國은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백제의 멸망과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백제 유민의 요망은 倭國의 원군 파견과 이와 함께 ‘인질’로 倭國에 체재하고 있던 왕자 豐璋을 백제왕으로 맞아 백제 부흥을 완수하는 것이었다(<표 1>-A·B).

倭國은 곧바로 백제부흥운동 지원을 결정한 것 같다(<표 1>-B).그 이유로는 4세기

후반 이래의 백제와의 관계, 백제 멸망으로 인해 문물 수입 루트가 단절된 것과 한반도 제국에 대한 등거리외교가 끝나게 되는 것 등, 倭國에게 유리한 국제 정세가 격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그리고 ‘인질’인 왕자 豊璋의 존재 등이 상정된다. 豊璋을 백제왕으로 귀환시킬 때 倭國은 그에게 織冠(大化5년 당시 冠位制 중 최상위)을 수여하고, 多臣 蔣敷의 여동생과 혼인시키고 있어서(<표 1>-C), 倭國은 백제왕을 신하로 만들어 백제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구축하려고 했을 지도 모른다【**筧敏生 1989**】. 그런 계획과 함께 倭國의 전략 구상에서 신라와 싸우고자 하는 의식이 강했고 唐과 싸운다는 현실인식이 희박했던 점에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표1과 관계 사료 검토의 성과를 바탕으로【**池内宏 1961, 坂本太郎 1955, 八木充 1970, 鬼頭清明 1981 등 참조**】, 倭國의 파병과 백제부흥운동의 戰況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森公章 1998b**】.

- ① [661년 9월 : 백제 왕자 豊璋의 귀국과 衛送軍 5000명(제1차 파견군) 파견]
 筑紫大宰帥阿倍比羅夫를 중심으로, 筑紫의 豪族을 중심으로 하는 병력이 바다를 건넜다(<표 1>-D·E·K).이 파견군은 백제인과 함께 싸워, 661~2년 백제가 우세했던 상황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662년 12월 백제 유민이 산이 험해서 방어에 유리한 周留城(州柔, 疏留城이라고도 한다. 錦江 하구 부근설, 扶余邑보다 江景邑 쪽으로의 錦江 강변설, 忠淸南道 舒川郡 韓山面의 乾芝山城說 등 錦江 연안으로 보는 설과 全羅北道 扶安郡의 禹金岩山城說이 있다. 전자에서 白村江은 錦江, 후자에서는 東津江 혹은 万項江이 된다.)에서 豊穰한 토지가 있는 僻城(全羅北道 金堤)로 옮길 것을 제안했고, 이에 倭國 장병은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동한 결과, 唐·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663년 2월에는 다시 周留城으로 돌아가게 된다.
- ② [663년 3월 : 27000명의 제2차 파견군이 바다를 건넌]
 신라 방면을 공격하는 군대로 신라 본국을 위협함으로써 662년 말 이후로 백제에게 불리했던 전황을 전환하고자 하는 방책이었던 것 같다(<표 1>-Q·S). 그러나 백제에서는 豊璋과 鬼室福信의 대립이 일어나고, 663년 6월 豊璋이 福信을 살해하여 부흥운동의 실질적인 중심인물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편 唐·신라는 5월경부터 병력을 증강시켜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인 周留城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三國史記》 <百濟本紀> 龍朔 2年條, 《舊唐書》 劉仁軌傳).

③ [663년 8월 : 약 만 명의 제3차 파견군의 출병]

周留城을 압박해 오는 唐·신라군과의 결전을 위해 白村江으로 향한 군대(<표 1>-T). ②의 일부가 우회했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별도의 부대라고 생각한다.

1-12 《日本書紀》 天智 2年 8月 甲午·戊戌·己酉·癸卯條(T·U·V·W)

甲午, 新羅以百濟王斬己良將, 謀直入國先取州柔. 於是, 百濟知賊所計, 謂諸將曰, 今聞, 大日本國之救將廬原君臣率健兒萬餘, 正當越海而至. 願諸將軍等應預圖之. 我欲自往待饗白村. 戊戌, 賊將至於州柔繞其王城. 大唐軍將率戰船一百七十艘, 陣烈於白村江. 戊申, 日本船師初至者, 與大唐船師合戰. 日本不利而退, 大唐堅陣而守. 己酉, 日本諸將與百濟王不觀氣象, 而相謂之曰, 我等爭先彼應自退. 更率日本亂伍中軍之卒進打大唐堅陣之軍, 大唐便自左右夾船繞戰. 須臾之際, 官軍敗績, 赴水溺死者衆. 艦舳不得廻旋. 朴市田來津仰天而誓, 切齒而噴殺數十人, 於焉戰死. 是時百濟王豐璋與數人乘船逃去高麗.

1-13 《舊唐書》 劉仁軌傳

(상략)仁軌遇倭兵於白江之口, 四戰捷, 焚其舟四百艘. 煙焰漲天, 海水皆赤. 賊衆大潰, 餘豐脫身而走, 獲其寶劍. 偽王子扶餘忠勝·忠志等率士女及倭衆并耽羅國使, 一時竝降. 百濟諸城皆復歸順. (하략)

1-14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1年(671)7月 26日條(大王報書)

(상략)至龍朔三年(663)忽管孫仁師領兵來救府城, 新羅兵馬亦發, 同征行至周留城下. 此時倭國船兵來助百濟, 倭船千艘停在白沙, 百濟精騎岸上守船. 新羅驍騎爲漢前鋒, 先破岸陣, 周留失膽遂卽下. (하략)

白村江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당해 시기의 고구려의 동향, 倭國·백제와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표 1>-G·J·R·W). 《日本書紀》 齊明 7년(661) 是歲條(<표 1>-G)에는 ‘日本救高麗軍將等’이라는 표현이 있고, 倭國과 고구려가 동맹 관계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⁵⁾, 직접적으로 연락을 나누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백제부흥운동의 원군으로 파견된 倭國의 軍將이 고구려와 연락을 취하기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표 1>-R), 이것은 倭本國의 지시였다고 보기는 오히려 백제부흥운동을 주도하는 백제왕 豐璋과 鬼室福信의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표 1>-G·J는 고려 沙門道顯이 <日本世記>에 의거하여 쓴 기사로 고구려

5) 【鄭孝雲 1990】은 655년에 백제·고구려가 신라의 30여 성을 탈취했고 이로 인해 倭國은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내어 (《日本書紀》 齊明 2年(656)9月條)고구려와 동맹을 맺었다고 본다. 또 660년 11월·661년 5월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三國史記》 <新羅本紀> 太宗武烈王 7年 11月條, 8年 5月條)하는데 이는 동맹국이었던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보복행위였다고 한다. 그 외 【鈴木英夫 1980, 韓昇 2005】도 齊明 2年條에 대하여 같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白村江戰에서 倭國과 고구려가 전략 면에서 제휴하고 있었다는 확증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 道顯의 기대가 담긴 표현이었다고 간주된다. 백제부흥운동이 융성해져 唐·신라군이 백제 방면으로 분산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구려 전선이 허술해져서 고구려에게 있어서 는 ‘救援’이 된다고 하는 의미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倭國과 고구려가 긴밀한 연락을 나누는 결과로서의 작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森公章 2005a】.

4. 신라의 對唐전쟁 수행과 왜와 신라의 관계

663년 8월의 白村江戰 이후 唐과 신라는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唐에게 적대하던 나라 중에 남은 것은 倭國뿐이었다. 倭國에게는 唐·신라군 침공의 위협이 있었고 방어체제 정비가 급선무였다. 664년 5월에 옛 백제 영토에 주류하던 唐의 鎮將劉仁願이 사자를 파견하여 倭國의 정세를 관찰시켰는데 倭國의 경계가 강화되고 山城 축조를 중심으로 對馬에서 大宰府·瀬戶内海를 거쳐 畿内에 이르는 一大 防衛網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성과건설을 담당하는 것은 모두 망명한 백제인들이었으며 그들은 군사 기술 전문가였다. 방위계획 뿐만 아니라 망명 백제인 혹은 고구려 멸망 후의 망명 고구려인들이 倭國에 미친 영향은 다방면에 이르고 있다.

668년 9월 唐과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같은 9월에 白村江戰 후 처음으로 新羅使가 온다(<표 2>). 倭國은 정중히 응접하고 귀국하는 新羅使를 배웅하는 遣新羅使를 파견했다. 670년 倭國은 고구려평정을 경하하는 遣唐使를 파견하고 있어서(《唐會要》 권99 倭國條, 《新唐書》 日本傳), 신라에게서 국제정세를 전달받고 동아시아에서 唐에게 적대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였던 倭國은 신중하게 외교 활동을 전개시켜 나갔던 것이다. 사실 이 670년경에는 唐의 倭國 정벌 풍문이 있었던 것 같다(《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1年(671) 7月 26日條 大王報書, 《日本書紀》 持統 4年(690) 10月 乙丑條).

1-15 《日本書紀》 天智 10年(671) 11月 癸卯條

對馬國司遣使於筑紫大宰府言, 月生二日, 沙門道文·筑紫君薩野馬·韓鳴勝娑婆·布師首磐四人從唐來曰, 唐國使人郭務棕等六百人, 送使沙宅孫登等一千四百人, 合二千人, 乘船卅七隻俱泊於比智嶋. 相謂之曰, 今吾輩人船數衆, 忽然到彼恐彼防人驚駭射戰. 乃遣道文等豫稍披陳來朝之意.

그러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크게 변동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한반도 전체의 영유를 둘러싸고 신라가 唐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 唐이 倭國을 침공하는 위험은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신라는 옛 백제 영토와의 국경 확정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大王報書), 669년 말에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신라는 이를 지원한다. 그리고 唐軍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신라에 의한 한반도 통일사업에 나선다. 670년 7월에 옛 백제 영토를 침공하고, 8월에는 괴뢰 정권인 報德國이 건국되자 唐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고, 676년경에는 신라가 반도 전체를 영유하게 된다(통일신라의 성립, <표 3>). 倭國에는 반도에 주류하는 唐軍(사료 15 등)과 신라에 복속할 것을 요구받고 있던 耽羅 등으로부터 사신이 왔었지만【森公章 1998b】, 倭國은 한반도 정세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對唐전쟁을 수행 중이었던 신라는 ‘請政’이라는 형태로 국제 정세와 국왕의 서거 등의 국내 사정을 倭國에 전달하고 매년 사신을 보내어 ‘조공’ 자세를 표하여 倭國이 唐과 손을 잡지 않도록 노력했다. 倭國에는 또 報德國(《日本書紀》에서는 이것도 또 ‘고려’(고구려)라고 표기되어 있다)으로 부터의 사자도 오지만 여기에는 신라인이 ‘送使’로 수행하고 있어서 결코 자유로운 외교적 의도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신라는 자국으로부터의 사자뿐 아니라 報德國使의 送使라고 하는 형태로도 倭國과의 通交 유지를 꾀했던 것이다【田村圓澄 1979】. 倭國은 신라가 우세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체로 신라와 通交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선택했던 것 같고, 이후에는 반도의 일은 신라에게 맡기고 그 신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과 唐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외교과제가 된다. 倭國은 670년에 遣唐使를 보내고, 701년에 그 다음 遣唐使를 임명하는데, 그 사이인 30년간 倭國은 동아시아 정세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율령국가 건설에 매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신라와 一國中心主義의 외교를 맺어서 외교면에서의 분란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唐風化의 본보기이며 동아시아 정세의 전달자로서도 倭國이 신라에 기대하는 바는 커서 이 시기에는 신라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도 중요해진다【關晃 1955, 鈴木靖民 1974, 1982b, 2007】.

1-16 《日本書紀》 持統 3年(689) 5月 甲戌條

命土師宿禰根麻呂, 詔新羅甲使級食金道那等曰, 太政官卿等奉勅奉宣, 二年遣田中朝臣法曆等, 相告大行天皇喪. 時新羅言, 新羅奉勅人者元來用蘇判位, 今將復爾. 由是法麻呂等不得奉宣赴告之詔. 若言前事者, 在昔難波宮治天下天皇崩時, 遣巨勢稻持等告喪之日, 翳食金春秋奉勅. 而言用蘇判奉勅, 卽違前事也. 又於近江宮治天下天皇崩時, 遣一吉食金薩儒等奉弔. 而今以級食奉弔, 亦違前事. 又新羅元來奏云, 我國自日本遠皇祖代並舳不干楫奉仕之國. 而今一艘亦乖故典也. 又奏云, 自日本遠皇祖代, 以清白心仕奉, 而不惟竭忠宣揚本職, 而傷清白詐求幸媚, 是故調賦典別獻並封以還之. 然自我國家遠皇祖代, 廣慈汝等之德不可絕之. 故彌勤彌謹, 戰々兢兢々.

修其職任，奉遵法度者，天朝復益廣慈耳。汝道那等奉斯所勅，奉宣汝王。

다만 신라가 최대의 현안이었던 唐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표 3>), 倭에 대한 외교 자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689년 5월 持統天皇은 일본에 온 新羅使에게 送付物을 돌려주고 신라는 ‘我國自日本遠皇祖代並舳不干楫奉仕之國’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제대로 예를 다하도록 명하고 있다(사료 16). 문제의 발단은 天武天皇 서거를 전하는 遣新羅使를 대하러 나온 신라 측 응접자의 位階가 저하된 데서 시작되었고, 이번 사자도 종래보다 상당히 위계가 낮아진 것이다. 신라는 683년에 報德國을 병합하고, 686·7년에는 高句麗·百濟의 殘民을 誓幢軍團에 편입시켜 통일신라의 통치체제가 완성되고 있다. 그리고 686년에는 唐에 사신을 보내어 ‘吉凶要禮’를 하사받고 있고 이때쯤부터 대당관계 수복도 크게 진전되었다【古畑徹 1983】. 결국 대당관계 수복의 전망이 보이기 시작한 신라는 倭國에 대한 ‘조공’ 자세를 바꾸어 대등한 예로 대하는 尙禮로의 변경을 꾀하면서 이번의 분란이 일어난 것이며, 倭國은 끝까지 ‘조공’ 자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외정책·의식의 차이는 8세기 日羅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어 가는데 그 양상과 이후의 일한관계의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 章 이후의 고찰에 맡기고자 한다.

〈표 1〉 百濟救援 略年表 ※출전은 《日本書紀》

660년	
9월	…백제는 達率·沙彌覺從 등을 파견하여 백제 멸망과 부흥운동이 흥기했음을 알림 〔齊明6年 9月 癸卯條 (A)〕
10월	…佐平 鬼室福信은 佐平 貴智 등을 파견하여 唐의 포로 100여명을 헌상하고 구원군 파병과 왕자 豐璋의 귀환을 청하다 〔齊明6年 10月條 (B)〕 〔이 시기 齊明大王은 백제 구원을 결정하고 筑紫로 옮김〕
661년	
4월	…福信은 왕자 紇解(豐璋)의 귀환을 바라는 上表文을 전달한다 〔齊明7年 4月條 (C)〕 〔7월 齊明大王이 서거〕
8월	…前將軍大華下阿曇比邏夫連·小華下河邊百枝臣，後將軍大華下阿倍引田比邏夫臣·大山上物部連熊·大山上守君大石 등 ‘救於百濟遣，仍送兵杖五穀’하고 별도로 大山下狹井連檳榔·小山下秦造田來津을 보내어 ‘守護百濟’ 〔天智稱制前紀 8月條 (D)〕
9월	…中大兄皇子는 왕자 豐璋에게 織冠를 내리고 多臣蔣敷의 여동생을 처로 맞이하게 하고 大山下狹井連檳榔·小山下秦造田來津에게 5000여 군을 이끌게 하여 ‘衛送於本鄉’ 〔天智稱制前紀 9月條 (E)〕
11월	…《日本世記》에는 福信이 포획한 唐人 續守言이 筑紫에 보내졌다고 함

- 〔齊明7年 11月 戊戌條 (F)〕
- 是歲 …‘日本救高麗軍將等’이 백제의 加巴利濱(皆火 = 全羅北道 扶安)에 머뭇
〔天智稱制前紀齊明7年是歲 (G)〕
- 662년
- 정월 27일 …福信에게 矢·絲·綿·布·韋·稻種을 내리다 〔天智元年 正月 丁巳條 (H)〕
- 3월 4일 …백제왕에게 布를 내리시다 〔天智元年 3月 癸巳條 (I)〕
- 3월 是月 …唐·신라의 정벌을 받은 고구려가 倭國에게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軍將을 疏留城(周留城)에 파견
〔天智元年 3月 是月條 (J)〕
- 5월 …대장군 大錦中阿曇比羅夫連 등은 수군 170척을 이끌고 豐璋을 백제로 보냄
〔天智元年 5月條 (K)〕
- 6월 28일 …백제는 達率萬智 등을 파견하여 獻物(獻物) 〔天智元年 6月 丙戌條 (L)〕
- 12월 1일 …백제왕 豐璋·福信등이 狹井連·朴市田來津에게 州柔(周留城)에서 避城(全羅北道 金堤)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田來津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
〔天智元年 12月 丙戌朔條 (M)〕
- 是歲 …백제구원을 위해 兵甲·선박·군량을 갖추 〔天智元年 是歲條 (N)〕
- 663년
- 2월 2일 …신라, 백제의 南畔4州를 태우고, 安德(德安?) 등의 요지를 함락시킴. 백제는 州柔(周留城)로 돌아감
〔天智2年 2月 丙戌條 (O)〕
- 是月 …福信이 唐人 포로 續守言 등을 보냄 〔天智2年 2月 是月條 (P)〕
- 3월 …前將軍上毛野君稚子·間人連大蓋, 中將軍巨勢神前臣譯語·三輪君根麻呂, 後將軍阿倍引田比羅夫·大宅臣鎌柄에게 27000명을 이끌게 하여 ‘打新羅’
〔天智2年 3月條 (Q)〕
- 5월 1일 …犬上君은 고구려에 兵事를 고하고 돌아가는 도중 糺解과 石城(忠淸南道 扶余)의 동남쪽 石城里에서 만나는데 糺解는 福信의 죄를 호소한다
〔天智2年 5月 癸丑朔 (R)〕
- 6월 …前將軍上毛野君稚子 등은 신라의 ‘沙鼻岐, 奴江’ 2성을 함락시킴. 백제왕 豐璋은 福信을 주살함
〔天智2年 6月條 (S)〕
- 8월 13일 …신라는 州柔(周留城)공격을 계획함. 백제왕 豐璋은 ‘大日本國之救將廬原君臣率健兒萬餘, 正當越海而至’라고 듣고 白村에 待饗하러 나감
〔天智2年 8月 甲午條 (T)〕
- 8월 17일 …신라가 州柔(周留城)을 둘러쌌. 唐軍은 전함 170척을 이끌고 白村江에 진열함
〔天智2年 8月 戊戌條 (U)〕
- 8월 27일 …倭는 唐의 수군과 싸워 고전하고 퇴각함 〔天智2年 8月 戊申條 (V)〕
- 8월 28일 …倭는 白村江에서 唐軍에게 대패함. 豐璋은 고구려로 도주함
〔天智2年 8月 己酉條 (W)〕
- 9월 7일 …州柔(周留城)은 唐에게 항복함. 백제인들은 倭로 망명할 것을 결정
〔天智2年 9月 丁巳條 (X)〕
- 9월 11일 …牟弓(弥弓 = 全羅南道 羅州軍平面)으로 출발
〔天智2年 9月 辛酉條 (Y)〕
- 9월 13일 …弓禮(全羅南道 寶城郡 鳥城面)에 도착함 〔天智2年 9月 癸亥條 (Z1)〕

9월 24일 …倭의 수군과 망명 백제인들은 巨禮城에 도착하여 25일에 출항
 (天智2年 9月 甲戌條 (Z2))

<표 2> 白村江戰 이후의 신라·고구려(報德國)와의 通交 略年表

- 668년(天智7, 文武王8) : 9월 신라의 級滄 金東嚴이 ‘進調’. 11월 신라왕과 金庾信에게 배를 하사하고 왕에게 賜物함, 遣新羅使인 小山下道守臣麻呂·吉士小鮪를 파견
- 669년 : 9월 신라 沙滄 督儒가 ‘進調’.
- 670년 : 9월 阿曇連類垂를 신라에 파견.
- 671년 : 6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進調’. 별도로 물소 한 마리, 꿩 한 마리를 보냄, 8월에 고려 上部大相 可婁가 ‘進調’. 10월 신라 沙滄 金萬物이 ‘進調’. 11월 신라왕에게 賜物함.
- 672년(天武1년, 文武王12년) : 5월 고려 前部 富加拵이 ‘進調’. 11월 新羅客 金押實 등에게 筑紫에서 향연을 열어주고 녹을 하사함. 12월 新羅 客에게 배 한척을 하사함.
- 673년 : 윤6월 신라 ‘賀騰極’使인 韓阿滄 金承元·阿滄 金祗山·大舍 霜雪 등, ‘弔先皇喪’使 (일설에는 ‘調使’)인 一吉滄 金薩儒·韓奈末 金池山 등이 옴. 送使인 貴干寶眞毛는 보내고, 承元·薩儒는 筑紫에 머물면서 筑紫에서 향연과 녹을 하사하고 귀국시킨다. 8월 賀騰極使 등 27인은 상경함. 고려 上部位頭大兄 邯子·前部大兄 碩千이 ‘조공’. 신라는 韓奈末 金利益을 보내 高麗使人을 데리고 筑紫에 도착.
- 675년 : 2월 신라 왕자 忠元과 大監級滄 金比蘇·大監奈末 金天沖·弟監大麻 朴武麻·弟監大舍 金洛水가 ‘進調’. 送使인 奈末 金風那와 奈末 金孝福이 筑紫에 도착. 3월 고려의 大兄 富于와 大兄 多武가 ‘조공’, 신라 級滄 朴勤脩와 大奈末 金美賀가 ‘進調’. 7월 小錦上 大伴連國麻呂를 大使, 小錦下 三宅吉士入石를 副使로 하여 신라에 파견.
- 676년 : 2월 大伴連國麻呂 등이 귀국. 10월 大乙上物部連麻呂를 大使, 大乙中山背直百足を 小使로 하여 신라에 파견. 11월 신라의 沙滄 金清平이 ‘請政’, 汲滄 金好儒·弟監大舍 金欽吉이 ‘進調’. 送使인 奈末 被珍那·副使인 奈末 好福이 筑紫에 도착. 고려가 大使인 後部主博 阿于·副使인 前部大兄 德富를 보내 ‘조공’. 신라의 送高麗使人 大奈末 金楊原이 筑紫에 옴. ‘肅愼’7인이 清平和 함께 옴.
- 677년 : 2월 物部連麻呂 등이 귀국함. 3월 新羅使人 清平 등 13명이 入京. 5월 신라인 阿滄朴刺破 등이 표류하다 血鹿鳴에 도착. 8월 金清平이 귀국. 朴刺破 등이 귀국.
- 678년 : 신라의 送使인 奈末 加良井山·奈末 金紅世가 筑紫에 도착. ‘當年之調’를 送付하는 사신으로 級滄 金消勿과 大奈末 金世 등을 보내지만 도중에 표류하다가 행방불명이 됨.
- 679년 : 정월 신라 送使인 加良井山·金紅世 등이 京으로 향함. 2월 고려의 上部大相 桓欠과 下部大相 師需婁이 ‘조공’. 신라의 送使인 奈末 甘勿那가 筑紫에 옴. 9월 遣新羅使人과 遣高麗使人이 拜朝(※과건기사 불분명). 10월 신라의 阿滄 金項那과 沙滄 薩藥生이 ‘조공’. ‘調物’은 금·은·鐵鼎, 錦·絹·布, 皮, 개·구·노새·낙타였다. 그리고 天皇·皇后·太子에게는 별도의 獻物로 금·은·刀·旗를 보냈다.
- 680년 : 5월 고려 南部大使 卯間과 西部大兄 俊德이 ‘조공’. 신라의 送使인 大奈末 考那이 筑紫에 옴. 11월 신라의 沙滄 金若彌과 大奈末 金原升이 ‘進調’. 習言者 3人也 옴.
- 681년(天武10년, 神文王1년) : 7월 小錦下 采女臣竹羅를 大使로, 當麻公楯를 小使로 하여 신라에, 小錦下 佐伯連廣足を 大使로, 小壘田臣麻呂를 小使로 하여 고려에 파견함. 9월 遣高麗·新羅使人 등이 拜朝. 10월 신라가 沙喙一吉滄 金忠平和 大奈末 金壘世를 보내 ‘貢調’(금·은·동·철, 錦·絹, 鹿皮·細布). 天皇·皇后·太子에게는 별도의 獻物로서 금·은, 錦, 霞幡,

皮를 보냈다. 신라 使者가 국왕의 薨去를 고한다.

682년 : 5월 遣高麗大使인 佐伯連廣足 등이 使旨를 御所에 보고함. 6월 고려왕이 下部助有卦婁毛切·大古昂加를 파견하여 ‘方物’을 貢上함. 신라가 보낸 사신 大那末 金釋起가 筑紫에 옴.

683년 : 11월 신라의 沙滄 金主山과 大那末 金長志가 ‘進調’.

684년 : 4월 小錦下 高向臣麻呂를 大使로, 小山下都努臣牛甘을 小使로 하여 신라에 파견. 5월 三輪引田 君難波麻呂를 大使로, 桑原連人足을 小使로 하여 고려에 파견. 12월 大唐 유학생인 土師宿禰 甥·白猪史寶然, ‘百濟役時沒大唐者’ 猪使連子首·筑紫三宅連得許 등이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 신라의 送使인 大奈末 金儒가 筑紫에 옴.

685년 : 5월 高向朝臣麻呂 등이 귀국. 學問僧인 觀常과 雲觀도 귀국함. 신라왕이 말 2필·개 3마리·앵무 2마리·까지 2마리·각종 보물을 送付. 9월 遣高麗國 使人들이 귀국. 11월 신라 波珍滄 金智祥·大阿滄 金健勳이 ‘請政’하고 ‘進調’.

686년 : 4월에 筑紫가 신라의 ‘進調’를 진상함(細馬1필·노새 1마리·개 2마리, 鏤金器, 금·은, 霞錦·綾羅, 虎豹皮, 藥物 외에 100여 종). 金智祥 등의 별도의 獻物은 금·은, 霞錦·綾羅, 金器, 병풍, 鞍皮, 絹·布, 藥物 등 60여 종을 皇后·皇太子·親王에게도 貢物로 바치고, 5월 金智祥 등은 筑紫에서 귀국.

687년(持統1년, 神文王7년) : 정월에 直廣肆田中朝臣法麻呂·追大貳守君苺田 등을 신라에 파견하고, 天武天皇의 喪을 고한다. 9월 신라의 왕자 金霜林, 級滄 金薩舉, 級滄 金仁述, 大舍蘇 陽信이 ‘奏請國政’하고 ‘調賦’를 진상한다. 學問僧 智隆이 귀국. 筑紫大宰가 천황의 崩御를 霜林 등에게 고한다. 霜林은 發哭함.

688년 : 정월 천황의 崩御를 金霜林 등에게 奉宣. 金霜林 등은 發哭함. 2월 大宰가 신라의 ‘調賦’를 진상함(금·은, 絹·布, 皮, 銅鐵 등 10여 종, 별도의 獻物인 불상, 각종 彩絹, 새, 말 등 10여 종). 霜林이 별도로 바친 獻物은 금·은, 彩色, 각종 진귀한 물건 80여 종이다. 筑紫에서 귀국.

689년 : 정월 遣新羅使人 田中朝臣法麻呂이 귀국함. 4월 신라 級滄 金道那 등이 ‘奉帛’. 學問僧인 明聰·觀智 등을 보냄. 별도로 金銅阿彌陀像·金銅觀世音菩薩像·大勢至菩薩像 각 1구씩, 綵帛·錦綾을 보냄. 5월 新羅使를 문책함. 6월 學問僧인 明聰·觀智 등이 신라 師友에 보내는 縣 각 140 근을 筑紫大宰가 공급함. 7월에 帛使 金道那 등이 筑紫에서 귀국함.

690년 : 9월 大唐 學問僧 智宗·義德·淨願, 軍丁 筑紫國 上陽咩郡大伴部博麻가 신라의 送使인 大奈末 金高訓 등과 함께 筑紫로 귀환함. 12월 送使 金高訓 등 筑紫에서 귀국.

692년(持統6년, 孝昭王1년) : 11월 신라의 級滄 朴憶德·金深薩이 ‘進調’. 朴憶德 등에게 難波館에서 향연을 열어줌. 12월 ‘新羅調’를 伊勢·住吉·紀伊·大倭·菟名足的 5社에 봉납함.

693년 : 2월 신라의 沙滄 金江南·韓奈麻 金陽元이 왕의 喪을 고함.

695년 : 3월 신라 왕자 金良琳, 薩滄 朴強國, 韓奈麻 金周漢·金忠仙이 ‘奏請國政’하고, ‘進調獻物’함. 9월 遣新羅使 直廣肆小野朝臣毛野·務大貳伊吉連博德 등이 출발함.

※출전은 《日本書紀》. 일본의 천황, 신라의 王代는 교체가 있는 해만을 주를 닮.

〈표 3〉 白村江戰 이후의 한반도 정세 略年表

- 665년 8월 …熊津에서 신라·백제의 맹세.
- 668년 9월 …고구려 멸망
 - …신라가 백제를 침공
- 669년 5월 …신라가 唐에 謝罪使를 파견
 - 말 …鉗牟峯이 唐에게 모반함.
- 670년 7월 …신라가 백제를 침공.
 - 8월 …金馬渚에 報德國이 성립됨.
- 671년 7월 …신라가 所夫里州를 설치.
 - …신라가 湯井州를 설치.
 - …신라가 所夫里州 總管을 설치. 백제 유민을 白衿誓幢으로 편성.
- 672년 7월 …신라의 阿淪 大吐가 唐과 내통하여 반란을 꾀하지만 주살됨.
 - 8월 …신라가 西海에 병사를 주둔시킴(鎭守).
- 673년 ○ …신라가 투항해 온 백제인에게 內外官을 하사함.
- 674년정월 …唐이 文武王의 官爵을 삭탈함.
- 675년 2월 …唐은 신라가 사죄함에 따라 官爵을 회복시킴.
 - …신라는 백제의 땅을 취함.
- 676년11월 …신라는 所夫里州 伎征浦에서 唐軍과 싸움.
- 677년 3월 …신라는 所夫里州에서 白鷹를 바침.
- 678년 4월 …신라는 武珍州의 都督을 임명함.
- 683년10월 …報德國 멸망.
- 684년11월 …報德國 유민의 반란을 평정.
- 686년 …신라는 唐에 사신을 보내어 ‘吉凶要禮’를 하사받음.

제2장 일본 율령국가의 성립

제1절 일본 율령제의 성립과정에 신라가 미친 영향

1. 신라의 ‘율령제’와 일본의 율령법전

동아시아 세계에서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에 걸쳐 일본은 唐의 율령 법전을 본떠 자체적인 율령 법전을 편찬하면서 율령을 國制의 기본으로 하는 국가를 만들어 간다. 그러한 국가체제를 일본에서는 율령체제라고 습관처럼 부르고 있고 7세기 말부터 대체로 9세기경까지를, 나아가서는 그 이후 중세국가가 성립되기까지를 율령국가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7세기 후반 이후의 일본고대국가의 國制를 정한 율령 법전은 그 존재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近江令(《藤氏家傳》, 《弘仁格式》 序에 보임. 670년의 庚午年籍은 그 시행을 나타내는가) 이후에, 飛鳥淨御原令을 諸司에 班賜(持統9년, 689년, 다음 해 庚寅年籍의 작성은 이 중에서 戶令에 입각함)하는 것을 거쳐, 大寶 원년(701)에 시행되는 大寶令, 다음해 시행되는 大寶律에서 어느 정도 완성되게 되었고, 그것이 養老 연간(및 그 이후, 養老2年은 718년)에 수정된 것이 天平寶字 원년(757)에 시행되는(養老律令)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편찬된 일본 율령에 신라의 율령 내지는 법제도의 영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 논란은 신라를 포함하는 삼국의 사료에서 보이는 ‘律令’ ‘格’ ‘式’이라고 하는 字句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일찍이 【田鳳德 1971】은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3년(373)의 기사 ‘頒示律令’을 사실로 보고, 晉의 泰始律令(268년)이 그 母法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林紀昭 1968, 武田幸男 1971, 井上秀雄 1971, 1972-71~2, 鈴木靖民 1974-55】 등이 비판을 하고, 武田幸男은 中國風의 법 체계라고는 간주하기 어렵다고 하고, 鈴木靖민도 중국 법으로서의 율령이 아니라 고유법을 정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고구려에서는 그 이후 ‘율령’ 등의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三國史記》(이하, <新羅本紀>) 法興王 7년(520) 正月條에 보이는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朱紫之秩”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武田幸男 1974】가 여기에서 제

정된 율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라의 독자적인 百官의 公服制度이며, ‘율령’도 ‘規定’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意義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이래 일본에서는 이것이 통설로 되어있다. 단, 그 후에 발견된 法興王 11년(524)의 蔚珍鳳坪碑에 ‘奴人法’ ‘杖六十’이라는 표현을 함께 고려하여, 여기서 말하는 ‘율령’을 신라 왕권 법제의 중국적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시각【鈴木靖民 2008b-243】이 제기되고 있어서, 적어도 法興王 7년의 기사는 신라 고유법의 정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李成市 1989-165】는 점점 더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어서 武烈王 元年(654) 5月條의 “命理方府令良首等, 詳酌律令, 修定理方府格六十餘條”에 대해서는【武田幸男 1967】이 여기서 말하는 율령은 年代的으로 볼 때 永徽律令格式(651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는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井上秀雄 1971】은 眞德王 원년(647)의 毗曇의 亂을 계기로 율령제화가 진행되어 同 5년 이후에 율령 관제가 성립되고, 文武王 12년(672)부터 神文王 10년(690)까지 율령적 군제가 성립되었고, 同 5년부터는 지방 행정 조직도 개혁되었다고 신라의 율령체제의 성립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료 그 자체에 관해서【北村秀人 1982a-183~4】은 고려의 御史台格과 같은 禁令集이며 상세하게 검토한 대상은 唐의 永徽律令格式이라는 견해를 표하고 있다. 원래 고려의 御史台格은 御史台的 格이므로 禁令集이라고 하는 요소가 크다고 볼 수도 있어서, 과연 理方府의 格도 禁令集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 北村秀人の 견해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나아가 文武王 21年(681) 7月 1日條의 “律令格式有不便者, 卽改張, 布告遠近, 令知此意. 主者施行”에 대하여【鈴木靖民 1974-14~15】는 이 이전에 신라의 독자적인 율령 격식이 형식상으로는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후술하는 村落文書에서 볼 때 村落構造에는 자연촌락적인 특유의 制가 전개되는 등 신라 율령의 독자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石上英一1979】와 같이 唐의 율령과 왕의 敎令으로 이루어진 격식을 가리킨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北村秀人 1982a-184~5】과 같이 제도와 규칙 일반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용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哀莊王 6년(805) 8월의 ‘公式二十餘條’의 頒示 기사가 신라의 율령제를 보여주는 최후의 기사이다.【武田幸男 1971-68】은 ‘公式’을 公式令이라고 보지만 이에 대해서도【北村秀人 1982a-185】은 고려의 ‘公式’(《高麗史》 卷84 刑法志)을 참조하여 官吏에 관한 각종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사의 흐름을 대강 정리해 보면 초기에는 신라에도 唐·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율령 법전이 편찬되었다고 했었지만, 점차 그 견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北村秀人 1982a-185~6】 이 말하듯이 신라에서는 체계적인 율령 법전이 편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본에서는 유력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鈴木靖民 2008b-245】⁶⁾. 唐의 율령을 참작하면서 시의 적절하게 개별적으로 각 編目이 정리되었다고 하는 이해도 나오고 있다 【濱田耕策 1980-104】.

율령법에는 통치 수단으로서의 보편성이 있고 동아시아의 ‘세계법’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石母田正 1973】, 한편 唐律令에는 帝國法, 즉 天子로서 천하를 통치하는 자만이 편찬하고 시행할 수 있는 條文도 포함되어 있고(연호와 詔·勅, 황제·천자, 外蕃 등의 용어와 그것들이 구성하는 사고체계), 禮制에 있어서의 唐의 규칙 【濱田耕策 1984-66~71】을 참조하면, 신라가 唐과 같은, 적어도 일본 정도로 唐과 닮은 율령 법전을 자체적으로 편찬 시행했을 가능성은 적고 【大町健 1992, 坂上康俊 1997】, 【堀敏一 1994-104~105】와 같이 신라에서는 형식적으로는 唐의 율령을 받들었지만 실제로는 格式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冊封體制論’을 제창한 【西嶋定生 1962-399】는 ‘동아시아세계’의 공통요소로서 처음에는 한자 문화·유교·불교와 함께 율령제를 들었었지만, 【西嶋定生 1981-32】에서는 이 가운데 율령을 빼려고 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법전으로서의 율령을 隋唐과 동시대에 편찬한 것은 주변 제국 중에서는 일본 뿐이라는 견해는 【堀敏一 1993-252】 등 일본의 동양사학계에서는 통설로 되어있다.

2. 일본 율령국가 성립 과정에 신라가 미친 영향

한반도 제국, 특히 신라의 율령에 대한 이러한 평가의 변화, 즉 율령국가군의 하나로써 일본보다 선행하여 율령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견해에서, 법전으로서 체계가 선 율령은 한반도 제국에서는 편찬·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견해로의 변화는 일본 율령 성립과정에서의 신라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과 신라의 제도 중에서 공통된 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신라로부터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⁷⁾.

6) 한국에서는 【梁正錫 1999】과 같이 적극적으로 신라율령의 복원을 시도하는 연구도 보인다. 그리고 <新羅村落文書>와 관련하여 兼若逸之의 일련의 연구는 이것을 균전제 시행을 나타낸 것이라고 규정되었지만, 濱中昇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후술을 참조)

- ① 學令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卷38 職官志上國學條에 보이는 신라의 교과서 과목과 일본의 大寶·養老令11經周易尙書條의 교과서 과목이 唐의 開元七年令(719) 學令復元3條에 비하여 둘 다 《春秋》의 公羊·穀梁 兩傳이 빠진 사실, 또 大寶令에서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文選》이 들어가 있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한다【利光三津夫 1966, 高島正人 1971, 高明士 1977】. 단, 開元七年令·大寶令·養老令에는 규정이 있는데 《三國史記》 職官志에만 《周禮》《儀禮》가 없고 또 《爾雅》는 大寶令에만 보이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착목하여 배경을 밝히려는 연구도 있다【久木幸男 1968, 濱田耕策 1980-104~110】.
- ② 喪葬令에 관해서는 《日本書紀》 持統 5年(691) 10月 8日詔의 규정(“詔曰. 凡先皇陵戶者置五戶以上. 自余王等有功者置三戶. 若陵戶不足, 以百姓充, 免其徭役, 三年一替”. 이는 養老喪葬令1先皇陵條 “凡先皇陵, 置陵戶令守. 非陵戶令守者, 十年一替. 兆域內, 不得葬埋及耕牧樵採”의 式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 武烈王代에 규정을 정비한 《三國史記》 文武王 4年(664) 2月條의 기술(“命有司徒民於諸王陵園各二十戶”)과 비슷한 점 등, 淨御原令制 하의 규정과 신라의 제도가 비슷하다고 한다【林紀昭 1970-124~9】.
- ③ 四等官제도 唐에는 없어서 일본의 四等官制는 신라의 眞德王 5년(651)~神文王 5년(686)의 令·卿·大舍·史制를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井上秀雄 1972-220~221】. 단, 최근의 연구에서는 일본에 四等官制 성립 이전에 三等官制가 존재했었다는 점【東野治之 1971】, 그리고 결재 과정 등에서 唐과 일본의 官司의 내부 구조는 상당히 이질적이었다는 점이 판명되고 있어서【吉川眞司 1988, 佐藤全敏 2007】, 신라의 四等官制의 실정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는 단계이다.
- ④ 大寶 원년의 外位制가, 신라의 재지 수장층인 村主에게 文武王 15년(675)까지 부여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三池賢一 1973】. 그리고 일본의 位階制는 한반도 삼국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순위를 매기는 것이고, 隋唐의 品階와 같은 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숫자 표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隋唐의 散官이 아닌 品階와 비슷하다는 점은 일찍이 밝혀진 바 있다【宮崎市定 1959ab, 井上光貞 1963】.
- ⑤ 天智朝 말년의 內外位階制(‘內小七位’라고 하는 예가 알려져 있음)는 백제의 內官·外官制에 따른 것인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鈴木靖民 1982b-72~77】.

7)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견해에 대해서는【鈴木靖民 1974-17~18】을 참조하고 있음.

- ⑥ 일본 編戶制의 源流가 백제에서 시행된 唐의 熊津都督府의 編戶라고 추정하는 설이 있다【明石一紀 1975b】. 단, 編戶에 대해서는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도래인에 대한 편성 형태가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 견해【岸俊男 1969】가 유력하며, 또 과연 熊津都督府에서 인위적인 編戶가 이루어졌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立花大輔 2009】.
- ⑦ 7세기의 兵政官은 신라의 兵部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8세기의 兵部省은 唐風化한다고 하는 설이 있다【請田正幸 1978】.
- ⑧ 일본戶令의 年令구분은 특히 次丁(老男과 殘疾로 이루어짐)을 설치한 점이 唐과 다르고, 이는 옛 중국의 제도가 한반도를 경유하여 전해진 것이라는 설이 있다【虎尾俊哉 1974a】.
- ⑨ 天武朝 이후의 神祇信仰과 불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은 신라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설이 있다【鈴木靖民 2008a】.
- ⑩ 나아가【李成市 2004】는 신라 골품제(진골=왕족신분, 6~4두품=귀족신분, 1~3두품=평민(서민)신분)의 성립을 神文王代로 고쳐 추정하고, 天武13년(684) 10월에 제정된 八色姓(真人·朝臣·宿祿·忌寸)이 골품제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당시의 신라에서는 條坊制 시행 등의 王京 정비, 九州·五京制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제도와 군사제도의 정비, 五等官制 채용, 祿邑 폐지와 月俸支給 등 官人給與制의 정비, 寺院의 건립과 寺院 관계 官司의 정비, 宗廟와 大中小祀制라는 중국적인 祭祀 정비 등 다방면에서의 집권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율령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유일한 參照系로서의 신라에서 唐율령의 참조 상황을 배웠다는 사실을 중시해야만 한다고 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견해와 대응하여 白村江 이후의 遣新羅使가 신라로부터 율령을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설이 있다【關晃1955】. 또 唐 永徽令을 일본에 가져온 것도 天智 7년(668)에 일본에 온 新羅使로 상정하고(이것이 《藤氏家傳》에 보이는 鎌足の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함), 天武 13년(684)에 白猪骨(寶然)이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한 것을 淨御原令의 편찬에 착수하게 되는 계기로 상정하는 견해도 있다【森公章 2008a】.

그러나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유사성에 비하여, 天聖令【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의 발견으로 인해 唐과 일본 令文이 서로 비슷하다 점이 확인됨에 따라, 적어도 大寶令 이후에 대해서는 신라의 영향을 크게 상정하지

않는 것이 대세일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신라 내지는 한반도 삼국 제도들 간에 보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유사점은 이른바 신라 율령에서 유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구려·백제를 포함하는 한반도 제국과 일본과의 사회·풍습의 어떤 면에서의 공통성에서 유래한 것인지, 또 특히 7세기 전반까지에 대해서는 백제로부터의 문화·제도의 도입에 유래한다고 보는 편이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도 검증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연구 동향에 입각하여 일본의 율령 범전에 대한 신라의 영향이라고 하는 문제에 한하여 말하자면, 일찍이 【野村忠夫 1970-494~495, 鈴木靖民 1974-17~18】이 주장했던 것처럼 淨御原令과 大寶令 사이의 큰 단절을 인정하고, 淨御原令 단계까지는 신라 법제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는 설이, 일본의 太政官 성립 과정에 있어서 신라에서 上大等を 정점에 두고 執事部를 중추로 하여 아래에 府·部·典·署를 두는 방식을 참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鈴木靖民 1994, 2008b】⁸⁾ 과 혹은 7세기까지의 일본의 國制는 중국 南北朝期 國制의 강한 영향 하에 있어서 淨御原令 단계에서의 唐令의 계승은 신라와 마찬가지로 개개의 조문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唐令을 한 조목씩 차례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日本令을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계승은 大寶令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大隅清陽 2008-227~231】 과 같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설의 대부분은 관료제와 관계된 방면의 사료에 의해 구성된 것이어서, 五十戶一里制와 班田收授制 등 인민 지배의 면에서 봤을 때의 大寶令의 淨御原令으로부터의, 더 거슬러 올라가면 孝德朝로부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吉川眞司 2004】와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신라를 포함하는 한반도 삼국의 國制와 율령국가인 일본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출토 문자 자료 비교 연구, 그리고 皇南洞 123유적의 朝堂樣遺構와 일본의 朝堂·官衙의 평면계획과의 유사성(중국의 宮殿·朝堂·官衙의 평면계획과의 이질성)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平川南 1999, 李成市 2005, 2009, 鈴木靖民 2007, 三上喜孝 2006, 2007, 2009】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角材에 논어 텍스트를 書寫, 付札木簡의 하단 양측에 홈을 넣는 등의 형상과, 藏·倉의 의미에서의 ‘椌’, 열쇠의 의미에서의 ‘鑰’, 升의 의미에서의 ‘刀’, 部の 약자인 ‘冫’ 등의 字義·字体에 대해서 한반도 삼국의 자료와 일본의 고대 자료와의 유사성이 지적되어서 유입 시기와 원류에 대한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예·사상 면에서도 신라

8) 그리고 【倉本一宏 1993, 朴昔順 2001-9~11】 도 일본에서 율령제 성립 시에 신라 율령국가에서 배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 공부한 유학승 등에 의해 의학·儒學·陰陽道등이 수용되는 것과 【關晃 1955, 鈴木靖民 2007-60】, 신라를 통한 음양도·유학 텍스트의 유입도 지적되고 있다 【水口幹記 2005】.

일본 율령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內官佐平과 兵官佐平, 또는 法部和 外椋部 등의 22부제를 포함한 백제의 관제가 일본의 天智朝 말년부터 天武朝의 6관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鬼頭清明 1978】을 제외한다면 종래에 등한시되어 왔던 감이 있는 백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⁹⁾. 왜냐하면 백제의 古都扶余의 雙北里유적에서 ‘戊寅年六月中 / 佐官貸食記’라는 제목의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이 【李鎔賢 2008】이 해설하는 대로 5割의 이자를 붙여서 가을에 상환하도록 하는 出擧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 율령국가의 지방 재정을 뒷받침했던 公出擧는 백제에서 선행되어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일본의 公出擧는 백제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단, 문제의 목간은 全文一筆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 과연 5월에 빌려준 것에 대한 상환 상황이 동일한 筆致로 기록되었는가의 여부도 의문이다. 출토지점도 官衙구역이었고 일본의 公出擧와 같이 경작자에게 빌려준 것인가의 여부도 의문이다. 이자를 부과하는 형태의 대여는 月借錢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相田二郎 1923, 鬼頭清明 1968, 中村順昭 1992】, 문제의 목간이 일본의 公出擧에 상당하는 제도가 확실히 백제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의문의 여지없이 입증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검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일본 율령국가의 국제질서 구상

1. ‘隣國’ ‘蕃國’論

大寶令의 시행은 비록 인민지배 상에서는 淨御令制下와의 연속성이 강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續日本紀》의 編者が 大寶 원년(701) 정월의 朝賀를 “文物的 儀가 여기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文物の儀, ここに備われり)”라고 했듯이 국가체제로서 큰 획을 긋는 시기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大寶令에서는 일본과 주변 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하

9) 【鈴木靖民 2008b-248~249】는 推古朝에서 백제 國制를 이어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원류에 대한 연구 중에서 좀 더 이전의 예로는 【井上光眞 1965】가 있다.

고 있었던 것일까? 이 점을 검토하기에 앞서 大寶 원년에 임명되어 실제로는 2년에 바다를 건넜던 大寶 遣唐使의 목적 내지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종래에는 이 遣唐使가 大寶令을 唐朝에 알리고 일본이 주변 제국을 蕃國으로 거느리는 帝國이라는 점을 唐朝에 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설이 유력했었다【石母田正 1963, 鈴木靖民 1974】. 그러나 大寶令을 唐 왕조에게 보여주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율령의 제국법적 성격은 唐朝와의 대등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설이 현재는 유력하지 않나 생각한다【河內春人 1996, 坂上康俊 1997】. 大寶 원년에 30년 만의 遣唐使가 임명되었던(출항은 다음해) 이유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舊 百濟·高句麗領을 둘러싸고 대립관계에 있던 唐과 신라가 드디어 680년대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古畑徹 1983】, 이와 반비례하여 신라가 일본을 경시한 정황이 있어서(후술을 참조), 이러한 정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이 唐과의 직접 교섭을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설이 있다【新藏正道 1995】.

大寶律令에 규정된 국제관계에 대해서 예전에는 天平 10년(738)에 성립된 古記의 설명을 그대로 이해하여, 唐=隣國, 신라=蕃國이라고 보고 일본 율령국가가 제국 구조를 가진다는 설이 유력했지만【石母田正 1963】, 大寶律令의 조문에서 異國은 모두 蕃國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고【平野邦雄 1980】, 그런 의미에서는 唐의 제국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국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賦役令 16外蕃還條의 “其唐國者, 免三年課役”이라고 하는 一節은 大寶令에는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진 결과【森公章 1988a】, 大寶令의 法意에 따르자면 唐도 蕃에 들어가지만, 養老令에서는 蕃이 어도 다른 外蕃과 同列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식되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단, ‘蕃國’에는 ‘이웃나라(ナリノクニ)’라고 하는 訓을 달아 놓은 부분도 있어서, 강력한 상하 관계가 의식되고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成澤光 1975, 朴昔順 2001-7~8, 大津透 2004-31】.

고대 일본의 제국 구조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거론되는 것 중에, 渡來系 氏族에 대해서 백제왕·肖奈王·고려왕 등 ‘王’이라고 하는 가바네(姓, 역주: 고대호족이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세습했던 칭호)【早川庄八 1981, 長瀬一平 1985, 算敏生 1989, 田中史生 1994-40】를 붙인 姓을 하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大刀契’가 있다.

이 중 ‘백제왕’은 백제 義慈王의 아들 余豊璋의 남동생인 善光(禪廣)이 持統朝에 하사 받은 姓이다(《續日本紀》 天平神護 2年(766) 6月 28日條(百濟王敬福薨傳)). 【利光三津

夫 1962】는 ‘백제왕’이라는 姓이 처음으로 보이는 “以百濟王善光王等居于難波”(《日本書紀》天智天皇 3年(664) 3月條)를 難波에 대한 封地賜与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백제의 망명 정권을 성립시켰지만 《日本書紀》持統 7年(693) 正月 15日條에 “以正廣參贈百濟王善光, 并賜賻物”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持統朝에는 百濟王氏에게 官位를 부여하고 망명 정권은 해소되었다고 논했다.

이에 대하여 大刀契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거론한 【大石良材 1971】는 平安時代 이후의 사료에 ‘傳國璽’라고 보이는 ‘大刀契’(《小右記》長和 5年(1016) 丁月 22日條·寬弘 2年(1005) 11月 17日條, 《禁秘抄》卷上大刀契, 《塵袋》8, 그 밖에 【田島公 1988, 川尻秋生 1997】 등 참조)는 백제 국왕의 寶器인 大刀契가 백제 멸망 후에 일본으로 전해져 이것을 수용함으로써 일본 왕권은 백제 왕권을 거두어들여 이를 겸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岡田精司 1983】도 이를 지지하여 倭國 대왕은 백제 국왕을 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¹⁰⁾.

이러한 이른바 同君連合과 같은 견해에 대하여 【長瀬一平 1985】은 적어도 淨御原令의 시행 이후에는 百濟王氏에게 官位를 수여하고 있으므로 백제 왕권은 일본 왕권에 종속된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논하고, 【石上英一 1984, 1987】도 일본 왕권 내에 백제 왕권이 포함되게 되었고 일본의 ‘帝國’ 질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견해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算敏生 1989】이 백제왕 = 內臣, 신라왕 = 外臣 = 諸蕃, 唐 = 不臣인 客 = 隣國이라고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지만, 【田中史生 1994-43~45】이 말하듯이 算의 비판은 성립되지 않고 百濟王氏의 존재 의의는 일본 왕권에 의한 백제 왕권의 수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단, 【田中史生 1994-45~51】은 天智朝에서 天武朝에 걸친 백제로부터의 망명자에 대한 叙位를 근거로 百濟王姓 하사 이전에 백제 왕권은 일본의 내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고, 《日本書紀》天武天皇 3年(674) 正月 10日條에 “百濟王昌成(당시 생존 중이었던 善光의 아들) 薨. 贈此小紫位”라고 나오고 있으므로, 賜姓과 제국구조와는 별도의 차원이었고 이미 天武 3년 단계에서 백제

10) 단, 岡田는 당해 논문을 《古代祭祀の 史的研究》(塙書房, 1992년)에 실으면서, 長瀬·石上の 견해를 받아들여서 百濟王을 겸하는 것이 아니라 天皇이 百濟王을 臣從시키는 상징으로서의 大刀契라고 생각하고 있다(71p). 또 사료에 나오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도 平城朝부터이기 때문에 【笠井純一 1994-77】과 같이 大刀契가 即位儀禮에 받아들여진 것은 桓武朝가 아닐까 하는 의견, 또 【園田香融 1964】와 같이 大刀契는 4~5세기경에 백제가 증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東野治之 1980-339】는 《塵袋》에 기재되어 있는 銘文을 보면 4~5세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봐도 좋다고 한다.

왕이라고 하는 집단적 姓이 성립되어 있었고 일본왕권에 服屬奉仕하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왕’에 대한 것은 《續日本紀》 大寶 3年(703) 4月 4日條의 “從五位下高麗若光賜王姓”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으며, 【田中史生 1994-54~55】은 이와 《日本書紀》 天智天皇 元年(662) 4月條의 “鼠產於馬尾. 釋道顯占曰. 北國之人將附南國. 盖高麗破而屬日本乎”를 대응시켜서 高麗王氏가 등장한 것은 일본 왕권에 의한 고구려 왕권의 수용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肖奈王’은 고구려 五部の 하나인 ‘消奴部’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으며 【佐伯有清 1991】, 이 씨족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續日本紀》 養老 5년(721) 正月 27日條의 “博士正七位上肖奈公行文”이다. 이것이 《續日本紀》 天平 19년(747) 6月 7日條에 “正五位下肖奈福信, 外正七位下肖奈大山, 從八位上肖奈廣山等八人, 賜肖奈王姓”이라고 나와 있듯이 ‘王’ 姓을 하사받아 ‘肖奈王’이 되었다. 이 賜姓의 배경에 대해서 【菅澤庸子 1990】는 고구려의 계승국을 자처하고 있던 발해의 출현 및 그 계승국 인식과 관련된 일본·발해 양쪽의 생각의 차이 【石井正敏 1975b】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발해를 下位에 두고자 하는 일본 측의 의도를 읽으려고 하고 있고, 【田中史生 1994-61】은 이에 더해 대신라관계의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2년 반 후인 天平勝寶 2년(750) 정월에 ‘肖奈王’氏는 ‘高麗朝臣’으로 改姓되어 遣唐使와 遣渤海使에 임용되지만 寶龜 10년 3월에 ‘高倉朝臣’으로 다시 改姓된 이후에는 遣外使節로 등용되는 일은 없다. 그들의 遣外使節 등용에 대해서 【菅澤庸子 1990, 田中史生 1997-62】는 일본이 옛 고려 왕족을 신하로 삼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다.

2. 唐에서 본 세계질서

일본은 신라에 대해서 調를 헌상하는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調란 고대 일본에서는 스키(ツキ)라고 읽고, 貢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속의 증거로서 하위에 있는 자가 상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였다고 한다 【石上英一 1973, 1974】. 新羅使는 구두로 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調’의 어감을 공유하고 있었는지 의문시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고 【大町健 2004, 231~234】, 또 신라가 일본에 지참하고 온 물품과 唐에 지참했던 물품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교역품이 많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해 내려고 하는 견해도 있다【新川登龜 男 1988】. 그러나 신라도 비록 구두라고는 해도 ‘調’가 아닌 ‘土毛’라는 표현으로 진상물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續日本紀》天平 15年 4月 25日條, 同 寶龜 5年 3月 4日條, 후술 참조), ‘調’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과 신라 간에서는 복속·조공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 이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때 때문에, 신라 측의 의도 및 일본 측이 받은 심리적인 영향은 어찌 되었든 간에 國史上에 보이는 대화 등을 통해 판단하는 한은 제일의적으로는 내용이 아니라 호칭이 가장 중요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唐에 대해 일본이 조공국의 입장이었다는 사실은, 원래 唐은 天下觀에 입각하여 대등한 국가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대전제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는 일본 사신이 唐 측으로부터 朝貢使로 간주되고 있고 일본 측도 그렇게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사가 곳곳에 보이고 있고(開成 3年 (838) 9月 20日條·4年 7月 16日條·5年 8月 23日條 등)【森公章 1988】, 또 《性靈集》卷5 ‘爲藤大使與渤海王子書’에 “賀野(遣唐大使 藤原葛野麻呂), 恭就朝貢”이라고 나와 있듯이 스스로도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다【保科富士男 1989】. 大伴古麻呂의 귀국보고에 나오는 唐의 元日朝賀 때 일어난 신라와의 爭長事件(《續日本紀》天平勝寶 6年(754) 正月 30日條)【石井正敏 1981, 1983】과¹¹⁾, 《續日本後紀》承和 6年(839) 9月 17·18日條에 보이는 ‘大唐勅書’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때, 표면적인 방침과는 별도로 唐에 대해 조공국이라는 자각은 널리 일본의 위정자 간에 공유되고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과 신라에 대한 唐 측의 시각을 외교문서의 양식 면에서 말하자면, 隋代에 일본은 ‘致書’ 양식의 문서를 보내어 煬帝의 심한 분노를 샀고 그 이후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善隣國寶記》卷上 鳥羽院元永 元年(1118)條에 따르면, 隋 및 初唐에서 慰勞詔書 양식의 문서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石井正敏 1992-549~60, 金子修一 2001】. 그러나 開元 연간이 되면 일본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라(絶域)라는 시각이 정착되었고【森公章 1988】, 開元 20~24년에 張九齡이 起草한 국서의 양식과 용어 등을 분석해 보면, 唐은 일본보다는 신라를 훨씬 더 중요한 나라로 간주하고 있어

11) 【下鱗錫 1967, 1987】은 이 사건이 중국 사료에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그 史實性을 의심하고 있지만, 【池田溫 1995】는 鑑眞과 동행하여 일본에 온 思託의 저서 《延曆僧錄》에 “元日拜朝賀正, 勅命日本使可於新羅使之上”라고 하여 같은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그 史實性을 인정하고 있다.

서 唐과 신라는 강력한 군신관계로 맺어져 있었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山内晋次 1986-23~31】¹²⁾.

제3절 외교기구와 迎接儀禮

율령국가 일본에서는 외국의 사절을 영접하기위해 唐을 따라 賓禮를 정비했다 【田島公 1985, 1986, 平野邦雄 1993, 森公章 1995, 浜田久美子 2003】. 중앙에서 외교 관계를 관장하는 것은 治部省 관하의 玄蕃寮였지만 신라, 唐과의 외교는 大宰府가 직접적으로, 또 발해와의 외교에 있어서는 越前·加賀·能登의 諸國司 등이 직접적인 창구가 되고 있다 【Batten Bruce 1985】.

영접 의례 정비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시기는 隋使 裴世清을 맞이했을 때라고 생각되지만¹³⁾, 奈良時代에는 筑前國의 博多津에 筑紫館을 【平野邦雄 1990】, 그리고 難波宮에는 難波館을, 또 平城京에도 客館을 설치하고 있었다 【平野卓治 1988ab, 森公章 1995】. 平安천도 후에는 平安京의 客館 【川勝政太郎 1962】과 筑紫館만이 남게 되었고 둘 다 弘仁 연간 이후에는 鴻臚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筑前國의 鴻臚館(大宰府 鴻臚館)은 발굴 조사 결과, 福岡市の 舊平和台球場跡地에 존재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남북에 2동의 담을 두른 掘立柱(역주 : 아무렇게나 땅만 파고 세운 기둥) 건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9세기에는 모두 초석 건물로 바뀌고 있다 【大庭康時·松川博一 2007】. 8세기 전반부터 중반에 걸친 목간이 출토된 화장실 遺構에서는 신라 도기가 출토되고 있다. 筑紫館 = 大宰府 鴻臚館은 초기에는 주로 新羅使와 遣新羅使·遣唐使의 숙박과 영접 장소로 사용되었지만 9세기에는 신라에서 일본으로 사절이 오지 않게 되어, 오직 신라와 唐상인들의 安置장소가 되었고 대체로 10세기 말까지는 폐관된 것으로 보인다. 平安京의 鴻臚館은 도면상으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발굴 성과로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단, 11세기 전반까지는 건물이 있었던 것 같다 【田島公 1995】.

新羅使가 일본에 도착하면 우선 大宰府가 存問하고 安置를 공급한다. 가지고 온 국서에 대해서는 寶龜 2·3년(771·2)의 渤海使가 일본에 온 것을 계기로 도착지인 大宰府 내지는 國司가 문서를 개봉하여 그 사본을 작성하여 太政官에 보내는 것으로 시스템이 개

12) 최근 唐朝의 국서를 집성한 것으로는 【石見清裕 1999】가 있음.

13) 이때에 隋의 賓禮가 도입되었다고 하는 견해에는 【瀧川政次郎 1963, 黒田裕一 1998】이 있음.

정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石井正敏 1970】. 그 경위를 보면 寶龜 4년에 渤海使 烏須弗이 도착했을 때,

遣使宣告渤海使烏須弗曰. 太政官處分. 前使壹万福等所進表詞驕慢. 故告知其狀罷去已畢. 而今能登國司言. 渤海國使烏須弗等所進表函, 違例无禮者. 由是不召朝廷, 返却本鄉. 但表函違例者, 非使等之過也. 涉海遠來, 事須憐矜. 仍賜祿并路糧放還. 又渤海使取此道來朝者, 承前禁斷. 自今以後. 宜依旧例從筑紫道來朝. (《續日本紀》 寶龜 4年 6月 24日條)

라며 能登 國司가 국서 등을 검사하고 그 내용이 무례하다는 판단을 太政官이 추인하여 사절을 되돌려 보내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 寶龜 10년(779)에 新羅使가 大宰府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大宰府가 表를 지참하고 왔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表가 있다면 사본을 太政官에게 진상하도록 명을 받아,

勅大宰府. 新羅使金蘭孫等, 遠涉滄波, 賀正貢調. 其諸蕃入朝. 國有恒例. 雖有通狀. 更宜反復. 府宜承知研問來朝之由, 并責表函. 如有表者, 准渤海蕃例, 寫案進上. 其本者却付使人. 凡所有消息, 驛傳奏上. (《續日本紀》 寶龜 10年 10月 乙巳條)

그 후 재차 太政官이 使者를 파견하여 일본에 온 이유를 묻는(寶龜 10年 11月 己巳條)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도착지에서 외국의 사신이 갖고 온 국서를 개봉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太政官의 판단에 따라 入京을 허가하는 제도에 관해서는 ‘國書開封權’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혹은 그것이 大宰府와 諸國司에게 주어진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¹⁴⁾. 그리고 國史에 신라로부터의 國書奏上의 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渤海國使

14) 【中西正和 1990】는 天平 15년 4월 25일(大宰府 폐지 중)의 檢校新羅客使의 행위(《續日本紀》)로 보아 大宰府의 국서 개봉권은 이미 8세기 전반에는 주어졌었지만, 諸國司에 대해서는 天長 5년 정월 2일(20개, 【石井正敏 2001-40】)에 비로소 주어졌다고 했고, 【酒寄雅志 1988-주15】도 마찬가지로 해석했지만, 【石井正敏 1991】은 이들을 비판하면서 舊稿를 보정하여 大宰府와 諸國司에게는 寶龜 3~4년에 동시에 국서 개봉권이 주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天長 5년까지 조정에서 온 使者를 기다려 결정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平野邦雄 1993】은 《續日本紀》 天平 寶字 8年(764) 7월 19日條에 따르자면, 大宰府는 이 시기에 이미 新羅國 執事牒을 개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寶龜 연간에 새롭게 국서 개봉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판을 가하고, 【石井正敏 1995】이 反批判을 가했지만, 【倉住靖彦 1992, 中野高行 1997】은 平野說에 동의한다고 하고, 또 【中西正和 1997】은 재차 《續日本紀》 天平 15年 3月 6日·4月 25日條에 의거하여 자신의 설을 다시 주장했지만, 【石井正敏 1998a】이 反批判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中西正和 1998, 森公章 1998a, 中西正和 1999, 森田悌 1999】를 이어받아 【石井正敏 1998b】(저서에 수록할 때에 附記가 있음)가 있고, 또 【河內春人 2000】이 있다.

에 의한 國書奏上은 보임. 《續日本紀》 神龜 5年 正月 甲寅條 등) 貢調儀禮의 존재 등을 근거로 신라에 대해서는 唐禮的인 賓禮가 아닌 令制 이전부터의 服屬儀禮의 계보를 있고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浜田久美子 2003-146~7】.

入京한 新羅使는 설날에는 朝賀儀에 참례한 것이 사료에서 보이고(점차로 참례하지 않게 됨. 후술 참조), 또 연회를 베풀어 주고 천황에게서 다음 節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慰勞詔書 양식의 국서를 받아서 귀국했던 것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의 遣新羅使가 신라의 영역 내에서 어떠한 코스를 거쳐 어떻게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사료에는 없기 때문에 《三國史記》에 나오는 개략에 대한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濱田耕策 1990】. 신라에서 일본사절을 전적으로 관리한 것은 신라 왕실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던 官府인 內省에 편입되어 있던 倭典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조공국에 대한 回賜品은 원칙적으로 帝室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신라에서는 일본사절을 조공사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李成市 1982】¹⁵⁾, 三國史記의 表記에는 “耽羅國遣使朝貢”이라고 나와 있듯이 조공이라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견해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濱田耕策 1990-166】.

제4절 신라·발해 간의 외교문서

신라 및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를 양식에 따라 분류해 보면, 啓 내지는 表, 그리고 관청 간의 상호문서인 牒으로 나눌 수 있다【石井正敏 1992】. 啓와 表는 모두 국왕이 천황에게 올리는 下意上達 문서라고 평가할 수 있고, 啓보다는 表 쪽이 더욱 敬意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에는 7세기부터 8세기 극히 초기까지는 《日本書紀》 推古天皇 29年(621, 眞平王 43年) 是歲條에

新羅遣奈末伊彌買朝貢, 仍以表書奏使旨. 凡新羅上表, 蓋始起于此時歟.

라고 나오고, 《續日本紀》 大寶 3年(703) 閏4月朔條에,

15) 단, 【李成市 1998】에서는 이 견해가 삭제되어 있다.

饗新羅客于難波館，詔曰。新羅國使薩滄金福護表云，寡君(孝昭王)不幸，自去秋疾，以今春薨，永辭聖朝(하락).

라고 나와 있듯이 신하가 군주에게 제출하는 문서인 表를 지참하는 것이 통례였던 것 같다¹⁶⁾. 그러나 아마도 신라에서 聖德王 13년(714)에 詳文師가 通文博士로 개정된(《三國史記》 同年 2月條) 것과 같은 시기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唐에 대해서는 제출하고 있던 表를 가지고 오지 않게 되었다【濱田耕策 1979-130~131】(그 배경에 대해서는 후술을 참조). 일본은 여러 번에 걸쳐 表를 지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다【石井正敏 1987】. 그러한 가운데 예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天平勝寶 4년(752) 6월에 일본에 온 金泰廉에 대한,

新羅王子金泰廉等拜朝，并貢調，因奏曰。新羅國王言日本照臨天皇朝庭(중략) 兼令貢種種御調，謹以申聞，詔報曰。(중략) 詔報。泰廉所奏聞之(하락)

라고 하는 기사(《續日本紀》 天平勝寶 4年(752) 6月 14日條) 및 寶龜 11년(780)에 일본에 온 金蘭蓀에 대한 “新羅使獻方物。仍奏曰。新羅國王言。夫新羅者(하락)”(《續日本紀》 同年 正月 5日條)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 2회에 한해서는 ‘奏’라고는 하지만 上表文의 형식이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山田英雄 1974, 奧田尙 1991, 石井正敏 1992】. 그러나 적어도 후자에 대해서는 신라왕의 表를 上奏한 것이 아니라 使旨를 口奏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전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濱田耕策 1979-142~3】.

한편 발해로부터는 神龜 4년(727)의 제1회 遣日使 이래, 발해 국왕이 啓를 보내는 일이 많았다【山田英雄 1974】. 단, 제2회 渤海使가 가져온 국서에 ‘臣名’이 적혀있지 않았던 것을 일본 측에서는 문제 삼았고, 제3회 국서에서도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았던 사실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續日本紀》 天平勝寶 5年 6月 8日條)【石井正敏 1975b, 1992-554】. 그리고 天平寶字 2년(758)부터 寶龜 10년(779)까지의 국서에는 表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安史의 亂이라고 생각하는 설이 있다【浜田久美子 2005】. 단, 吉備眞備의 致仕 문서를 ‘啓’라고도 ‘表’라고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續日本紀》 寶龜 元年 10月 8日條), 【奧田尙 1991】는 발해 국왕의 啓도 어떤

16) 【栗原朋信 1967, 濱田耕策 1979. 石井正敏 1992-547~9】은 일본과 신라 간에는 문서 외교가 정착되지 않았고, 大宝 이후 일본은 문서를 사용했지만 신라는 일본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表’라고 간주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石井正敏 1992-554】는 啓에 ‘臣名’이 있으면 ‘表’라고 간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 이 이후에는 문서의 ‘違例’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는데 발해가 啓를 狀이라고 고쳤기 때문에 그 違例를 책망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만(《日本後紀》 弘仁 2年 10月 2日條·弘仁 6年(816) 正月 22日條),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서술하겠다.

그리고 신라와 발해의 관청에서 온 문서가 일본의 太政官 앞으로 송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新羅國執事省牒(《續日本紀》 天平寶字 8年(764) 7月 19日條, 《續日本後紀》 承和 3年(836) 12月 3日條, 《日本三代實錄》 仁和 元年(885) 6月 25日條)과 渤海國 中台省牒(《續日本紀》 天平寶字 3年 10月 18日條, 《類聚國史》 天長 5年 2月 26日條, 《類聚三代格》 天長 5年 正月 2日 官符, 《續日本後紀》 承和 9年 3月 6日條)가 이에 포함된다 【中村裕一 1979, 酒寄雅志 1985ab, 田島公 1991】. 이러한 문서가 첨부되게 된 계기로는 실무적인 문서를 통해 서로의 전달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中村裕一 1979-446, 石井正敏 1992-557~9】.

한편 일본에서는 ‘天皇敬問某國王’으로 시작되는 唐의 慰勞詔書(制書)를 본뜬 국서를 상대 국왕에 대해 발급했다 【中野高行 1984, 田島公 1985, 金子修一 2003】. 《延喜式》 內記에는 서두를 ‘天皇敬問’(大蕃國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天皇問’(小蕃國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 두 종류가 게재되어 있지만, 國史에서 보이는 실례(단, 본문만)에서는 모두 ‘天皇敬問’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파견되어 온 使者에 대해서는 이러한 국서를 手交하고 이와 함께 使者에 대한 詔書を 읽어 내렸다 【中野高行 1987, 坂上康俊 2004】. 그리고 일례에 불과하지만 일본이 신라의 上宰·故金順貞에게 준 ‘璽書’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勅伊飡金順貞, 汝卿云々’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서(《續日本紀》 神龜 3年(723) 7月 13日條), 論事勅書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대국의 중추관청에 대한 太政官牒이 발급된 적도 있다(《續日本後紀》 承和 3年(836) 閏5月 13日條, 同 承和 9年 4月 12日條).

제3장 일본과 신라의 관계 추이

제1절 8세기 일본과 신라의 관계

1. 신라와 倭(일본)의 蜜月期

660년 백제의 멸망, 663년 白村江 전투에서 백제의 부흥군과 일본(倭)군의 패배, 668년 9월 고구려의 멸망 이후 한반도에서는 唐의 점령군과 신라와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唐은 676년에 安東都護府를 遼東故城에, 그리고 다음 해에는 遼東新城으로 옮김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어 결국은 신라에 의해 반도가 통일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669년을 마지막으로 遣唐使 파견을 일시 정지하고(이 遣唐使의 귀국 시기는 불분명), 국내의 방비체제를 공고히 하고 율령체제로의 길을 걷는다. 한편 唐과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던 신라는 일본에 빈번하게 사신을 보냈고, 특히 고구려의 先王인 嗣子 혹은 庶子라고 하는 安勝(후의 報德王)을 고구려왕에 봉하는 등 그 名義를 이용하여 신라 자신은 送使로서 수행하고 일본에 빈번하게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시키면서¹⁷⁾,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다. 이 고구려에 대하여 天武 10년(681)과 天武 13년에 일본에서 遣高句麗大使를 파견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신라 측도 이러한 사절에 대한 대응에는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도 좋다.

어디까지나 《日本書紀》에서 보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신라는 ‘調’를 지참하는 등¹⁸⁾, 일본에 대하여 상당히 저자세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天武 4년(675) 2월에는,

新羅遣王子忠元·大監級滄金比蘇·大監奈末金天沖·弟監大麻朴武麻·弟監大舍金洛水等,進調. 其送使奈末金風那·奈末金孝福,送王子忠元於筑紫.

17) 《日本書紀》 天武 元年(672) 5月 28日條, 同2年 8月 20日條, 天武 5年 11月 23日條, 天武 8年 2月 1日條, 天武 9年 5月 13日條, 天武 11年 6月 1日條.

18) 《日本書紀》 天智 10年(671) 6月條, 同年 10月 7日條, 天武 4年(675) 3月條, 天武 5年 11月 3日條, 天武 8年 10月 17日條, 天武 9年 11月 24日條, 天武 10年 10月 20日條, 天武 12年 11月 13日條, 天武 14年 11月 27日條, 朱鳥 元年(686) 4月 19日條.

라며 왕자 金忠元을, 또 持統 원년(687) 9월 23일에는,

新羅遣王子金霜林·級浪金薩舉·及級浪金仁述·大舍蘇陽信等, 奏請國政, 且獻調賦. 學問僧智隆附而至焉. 筑紫大宰便告天皇崩於霜林等. 即日, 霜林等皆著喪服東向三拜, 三發哭焉.

이라며 왕자 金霜林을 파견하여 ‘調’를 貢進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金忠元·金霜林이 신라의 왕자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일본 측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하며 신라가 20년 정도에 걸쳐 ‘調’를 순조롭게 계속 貢進해 왔고 때로는 왕자를 일본에 파견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억, 이것이 大寶律令 시행 이후 일본의 對新羅觀을 규제한다.

한편 【古畑徹 1983-60~61】에 따르면, 675년~711년에 걸쳐 신라와 唐의 관계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흘러간다.

- I. 675~680년 唐·신라 전쟁의 연장선에서의 대립시대. 唐은 신라에 대한 재공격을 계획하고 신라도 이에 대비해 일본과 손잡고 있는 시기. 이는 678년을 경계로 하여 唐이 吐蕃에게 침략당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관계로 이행되어 간다.
- II. 680년대 唐·신라 모두 특별히 상대에게 관심을 표하지 않는 시기. 唐은 정책전환을 했지만 신라와 융화해가려고 하지 않고, 신라도 그 시기의 중심 과제였던 옛 백제 영토 통치문제가 唐과 관련이 없어서 특별히 唐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시기. 단 이 시기에도 책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는 이어져 있음.
- III. 690년대 唐·신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시기. 唐은 국제정세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한 자세를 완화시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유하는 자세를 보이고, 신라는 중심과제가 北進策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시 唐에 대한 관심이 환기된다. 이 시기 신라는 일본과의 관계를 점차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 IV. 700년대 703년을 기점으로 신라와 唐의 관계는 명확하게 친밀해지고 있어서 양국 관계의 회복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이다. 唐은 동북정책의 일환으로 신라에게 강하게 권유를 하고 신라도 종래의 北進策에 對日문제가 더해져 여기에 호응하기 시기.

III·IV 시기, 즉 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원활해진 이후의 신라에게 있어서 對日관계는 중요성이 떨어져서 굳이 일본에 대하여 외교상의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바로

여기에 8세기 이후 일본의 對新羅觀과 신라의 對日本觀 사이의 차이가 있었던 근본원인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2. 일본·신라 관계의 알력

신라가 對唐관계를 회복시키거나감에 따라 對日 저자세외교를 수정해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일본 측에서 처음으로 문제시했던 것은 아래에 보는 것처럼 持統 3년(689) 5월의 일이었다.

五月癸丑朔甲戌. 命土師宿祢根麻呂, 詔新羅弔使級飡金道那等曰. 太政官卿等奉勅奉宣. (持統)二年遣田中朝臣法麻呂等, 相告大行天皇天武喪. 時新羅言. 新羅奉勅人者, 元來用蘇判位. 今將復爾. 由是法麻呂等, 不得奉宣赴告之詔. 若言前事者, 在昔難波宮治天下天皇(孝德天皇)崩時, 遣巨勢稻持等告喪之日, 翳飡金春秋奉勅. 而言用蘇判奉勅, 即違前事也. 又於近江宮治天下天皇(天智天皇)崩時, 遣一吉飡金薩儒等奉弔. 而今以級飡奉弔, 亦違前事. 又新羅元來奏云. 我國自日本遠皇祖代, 並舳不干楫奉仕之國. 而今一艘, 亦乖故典也. 又奏云. 自日本遠皇祖代, 以清白心仕奉. 而不惟竭忠, 宣揚本職. 而傷清白, 詐求幸媚. 是故, 調賦與別獻, 並封以還之. 然自我國家遠皇祖代, 廣慈汝等之德不可絕之. 故彌勤彌謹, 戰々兢兢, 修其職任, 奉遵法度者, 天朝復益廣慈耳. 汝道那等奉斯所勅. 奉宣汝王.

(《日本書紀》 同月 22日條).

이미 持統 2년 6월에는 淨御原令이 諸司에 반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石井正敏 1992-548】는 여기에서 말하는 ‘不得奉宣赴告之詔’라는 것은 문서화된 詔書를 신라에게 지참시켜 올리려고 했었는데 거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다. 단, 이 시기에도 신라는 아직 ‘調’를 계속 貢上하고 있었고(持統 6년 11월 18日條, 文武 2년(698) 正月 3日條), 또 持統 9년(695) 3월에는,

新羅遣王子金良琳·補命薩隆朴強國等, 及韓奈麻金周漢·金忠仙等, 奏請國政, 且進調獻物.

(《日本書紀》 持統 9年(695) 3月 20日條)

와 같이 왕자 金良琳을 파견하여 ‘調’를 貢上하는 등 저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 이후에 일본은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遣唐使를 파견하는데, 이 때 처음으로 則天武后가 唐 왕조를 찬탈했던 이른바 武周革命이 있었다는 정보를 얻는 등 신라가 제공하는 중국 정보에 대하여 일본은 어느 정도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坂上康俊

1999】. 한편으로 신라 측에서도 일본이 직접 唐과 접촉하는 遣唐使를 재개했기 때문에 이에 맞서기 위해 더욱 唐에 접근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古畑徹 1983】¹⁹⁾.

단, 이 이후에도 慶雲 2년(705)에 일본에 오고 다음 해에 귀국한 新羅使(《續日本紀》慶雲 3年 正月 4日條), 養老 3년의 新羅使(《續日本紀》養老 3年 閏7月 7日條), 그리고 神龜 3년의 新羅使가 ‘調’를 올리는 등(《續日本紀》神龜 3年 7月 13日條), 신라는 일본 측의 요청에 어느 정도 응하려고 하고 있었고 또 文武 2년(698)에 金弼德, 大寶 원년(701) 정월에 金所毛, 慶雲 3년(706) 정월에 金儒吉과 같이 元日朝賀에 참례하거나, 和銅 8년(715) 정월의 重阿飡·金元靜과 같이 大射의 儀에 참례하는 등(모두 《續日本紀》), 大寶令 撰定·공포·실시 당시의 일본의 요구에 응하여 스스로를 일본에 대해 諸蕃의 위치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로 이 때 쯤 파견되었던 遣新羅使²⁰⁾가 大寶令을 보이고 正月朝賀에 대한 참례를 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견해도 있고【濱田耕策 1979-123~5·142】²¹⁾, 또 발해건국 직후에 唐이 신라보다 발해를 중시했고 그 결과 신라가 일본에 대하여 융화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古畑徹 1986b, 新藏正道 1999】. 養老 7년(723)·神龜 3년(726)에 新羅使가 일본에 왔을 때에는 右大臣, 후에 左大臣인 長屋王이 사저에 新羅使를 불러 향연을 여는 등【石母田正 1964, 鈴木靖民 1967b·1968, 村田正博 1984, 辰巳正明 1990, 井實充史 1994, 佐藤信 1997-96~7】²²⁾, 일본 측도 이러한 자세를 환영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天平 4년(732)에는 그 해 정월에 일본에 온 新羅使의 요청에 따라 來日 주기를 3년으로 한번으로 했다(《續日本紀》天平 4年 5月 21日條). 신라와 일본과는 조공관계를 맺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일본 측의 인식이었다고 봐도 좋다. 단, 같은 해 8월 17일에 제정되고, 天平 6년 4월 21일에 정지된 東海·東山·山陰·西海諸道の 節度使

19) 【鈴木靖民 1967a-124】는 慶雲 원년(704) 10월에 임명되어 다음 해 5월에 귀국하는 遣新羅使 幡文造通의 使命을 일본과 唐 간의 국교 재개를 신라에 대해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나 보고 있다.

20) 文武 4년(700) 5월에 임명되어 10월에 귀국하는 佐伯宿祢麻呂, 그리고 大寶 3년(703) 9월에 임명되어 慶雲 원년(704)에 귀국하는 波多朝臣廣足, 慶雲 원년 10월에 임명되어 다음 해 5월에 귀국하는 幡文造通 등의 遣新羅使 및 《三國史記》新羅本紀 聖德王 2년(703) 7월條의 “日本國使至. 總二百四人” 등을 참조.

21) 이 기간 중인 和銅 2년(709)에 일본에 오는 金福信은 ‘方物’을 바치는데 이에 대해서 【濱田耕策 1979-141】는 金福信이 정식 신라 사절이 아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22) 藤原不比 등도 和銅 2년(709) 5월에 朝堂에서의 향연 후에 新羅使와 특별히 대면하고 있다【佐藤信 1997-95~6】.

체제는 제정 6일 전인 8월 11일에 귀국한 遣新羅使 角家主의 귀국 보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라와의 군사적 긴장의 산물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坂本太郎 1932, 村尾次郎 1953, 早川庄八 1962, 鈴木靖民 1974, 瀧川政次郎 1977, 北啓太 1984】, 특히【鈴木靖民 1967b, 1968】은 후에 거론하는 바와 같은 《三國史記》 聖德王 21年(722, 養老 6년) 10月條의 축성 기사와 同王 30年 4月條의 日本兵船 來襲 기사를 근거로 이 시기 일본과 신라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 節度使 설치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하고,【井上辰雄 1970】은 《新抄格勅符抄》의 大同 2年牒에 기록되어 있는 氣比神에게 天平 3년 12월 10일에 從二位가 내려진 것의 배경으로 신라와의 관계가 긴박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또【友寄隆史 1979, 下向井龍彦 1995, 原田諭 1999】는 후에 서술하는 唐·신라와 발해 간의 긴장 고조를 節度使 설치의 중요한 계기라고 하고 있다. 단,【奥田尙 1975-119~131】은【鈴木靖民 1968】이 근거로 삼고 있는 《三國史記》의 기사에 대한 해석에 이론을 주장하고, 이것을 그대로 관계 악화가 명확해 진 것이라고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天平 4년의 新羅使 영접 상황을 보면 양국 간의 긴장이 보이지 않고 있고, 天平 2년의 遣渤海使의 귀국에 의해 일본에 대한 신라의 중압이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된 일본에서 天平 2년에 防人制가 정지된 것과 節度使制가 표리관계에 있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天平 7년에 일본에 온 新羅使는 스스로를 ‘王城國’이라고 불려서 일본은 귀국시켜 버린다(《續日本紀》 天平7年 2月 27日條). 신라가 이 시점에서 일본에 대하여 거만한 자세를 공공연히 드러낸 중요한 배경은 天平 4년(唐의 開元 20년, 732) 9월에 黑水靺鞨의 唐에 대한 조공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발해가 唐의 登州를 공격한 데 대해서 唐이 신라에 파병을 요청하여 같이 발해를 공격하지만 패배한 사건이 있다(《舊唐書》 卷199下 渤海靺鞨傳, 《新唐書》 卷219 渤海傳)【石井正敏 1973, 古畑徹 1984】. 이 때 唐과 신라의 동맹관계는 확립되고 신라왕은 새롭게 ‘寧海軍使’의 칭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天平 7년(735, 開元 23년) 2월에는 唐이 신라에게 溟江(大同江) 이남의 영유를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한다【末松保和 1974】. 이러한 唐과의 관계 강화를 배경으로 신라가 일본에 대해 대등한 관계를 갑자기 강하게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이 시기의 신라에서는 禮制가 정비되어 唐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자국을 上位의 藩國이라고 규정하고 그 결과 일본에 대해 ‘대등한 예로 대하는(尙禮) 隣國’이라는 의식이 자리나게 된 것이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末松保和 1933, 濱田耕策 1979-129, 1983-336~339】, 신라의 使者가 일본의 正月儀禮에 참례하는 것도

和銅 8년(715)의 金元靜 이후 寶龜 11년(780)의 金蘭蓀까지 보이지 않게 된다【濱田耕策 1979-125】. 그리고 聖德王 24년(725)에 대일관계를 중시하던 上宰 金順貞이 서거한 것이 신라의 대일본 대등의식이 점점 강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和田軍一 1924a-23~24, 濱田耕策 1979-135~37】. 天平 9년(737)에 귀국한 遣新羅使가 “新羅國失常禮, 不受使旨”라고 復命한 것은(《續日本紀》 天平 9年 2月 15日條), 이러한 신라의 일본에 대한 자세 변화로 인해 일본의 慰勞詔書 수취를 거부했던지 授受 형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것일 것이다【石井正敏 1992-550】.

天平 15년(743)에 일본에 온 新羅使는 ‘調’가 아닌 ‘土毛’를 지참했었기 때문에 “檢校新羅客使多治比真人土作等言. 新羅使調改称土毛, 書奥注物數. 稽之旧例, 大失常禮. 太政官處分. 宜召水手已上, 告以失禮之狀, 便即放却”(《續日本紀》 天平 15年 4月 25日條)이라고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신라의 官制 중에서 領客府에서 倭典을 분리시켜서 오직 일본과의 교섭만을 담당시키게 된 것은 이 시기가 아닐까 하는 설이 있다【濱田耕策 1979-133~5】²³⁾.

그런데 天平勝寶 4년(752)에 일본에 온 ‘신라왕자’라고 칭하는 金泰廉²⁴⁾과 貢調使大使는 ‘調’를 貢進하면서 신라국왕의 말로써,

新羅國者, 始自遠朝, 世々不絶, 舟楫並連, 來奉國家, 今欲國王親來朝貢進御調. 而顧念, 一日無主, 國政絶亂. 是以, 遣王子韓阿滄泰廉, 代王爲首, 率使下三百七十余人入朝, 兼令貢種々御調.

라며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일본에 대해 타협적인 자세를 표명했다(《續日本紀》 平勝寶 4年 6月 14日條). 이에 대해 일본은,

新羅國來奉朝廷者, 始自氣長足媛皇太后平定彼國, 以至于今, 爲我藩屏. 而前王承慶·大夫思恭等, 言行怠慢, 闕失恒禮. (중략) 自今以後, 國王親來, 宜以辭奏. 如遣余人入朝, 必須令齎表文.

이라며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 전설을 상기시키면서 신라 국왕 자신이 일본에 오든지 다른 자를 파견할 경우에는 上表文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續日本紀》 天平勝寶 4年 6月 17日條). 神功皇后의 신라정벌 전설은 《日本書紀》 《古事記》에는 기재되어

23) 단 ‘倭典’에 관해서는 【三池賢一 1971·72, 鈴木靖民 1977, 李成市 1982】 등과 같이 대일 교역을 담당한 官司가 아니었을까 하는 설도 있다.

24) 金泰廉을 소위 ‘가짜 왕자’라고 보는 설에는 【和田軍一 1924a, 濱田耕策 1983-346~8】 이 있고, 庶子인 왕자였을 것이라고 보는 설에는 【石井正敏 1987】 가 있다.

있지만, 奈良時代의 외교 관계 속에서 신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으로, 《日本書紀》 持統 3年 5月 22日條(위에 게재)에 이은 것이다²⁵⁾. 그리고 天平 후반부터 신라 사절단의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末松保和 1933, 內藤雋輔 1961, 東野治之 1974-305】는 이 시기부터의 來日 목적에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金泰廉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李成市 1997, 田村圓澄 1999, 石井正敏 2001b】 등 다수의 연구가 있고, 신라 측의 경제적인 목적 혹은 종교를 통한 일본 측의 정치적인 목적 등을 추측하고 있지만, 【酒寄雅志 1977b-211~212】는 景德王代에 신라의 北辺 경영이 활발해졌고 발해의 제3회 遣日使節이 天平勝寶 4년 9월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일본과 발해가 연계하여 신라를 협공하게 될 위험을 회피하려는 예방적인 목적을 들고 있고, 【李成市 1998-366】도 통상무역론을 비판하면서 긴장관계에 있던 국제 관계를 배경으로 양국의 왕권이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賓禮’ 속에서 문물을 교환했다고 하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다음 해인 天平勝寶 5년(753)에 신라에 파견된 小野田守에 대해서는, 《續日本紀》에 “其後遣小野田守時, 彼國(新羅)闕禮, 故田守不行使事而還歸”(天平寶字 4年(760) 9月 16日條), 그리고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12年(753) 8月條에 “日本國使至. 慢而無禮, 王不見之, 乃廻”라고 나와 있듯이 景德王이 ‘無禮’를 책망하며 회견을 거부했다. 신라 측의 태도가 강경해 진 원인으로는 唐의 元日朝賀 때의 신라와 일본 간의 爭長事件(위의 서술을 참조)이 상정되고 있다 【和田軍一 1924ab, 坂本義種 1967~68】. 일본에서는 天平勝寶 8歲(756)에 怡土城을 축조하는 등 【大類伸 1918, 鏡山猛 1937, 瀧川政次郎 1961, 角田文衛 1963, 酒寄雅志 1977, 前原市教育委員會 2006】, 서서히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天平寶字 원년(757) 11월10일의 文章得業生 후보자에 대한 시험에서는,

頃蕞爾新羅, 漸闕蕃禮, 蔑先祖之要誓, 從後主之迷罔, 思欲多發兵船, 遠揚威武, 斲奔鯨於鯢窟, 戮封豕於鷄林. 但良將伐謀, 神兵不戰. 欲到斯道, 何施而獲.

라고 하는 設問이 있는 등(《經國集》 卷20 策下), 이미 이 시점에서 신라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石母田正 1971】.

때마침 그런 시기였던 天平寶字 2년(758)에 발해에서 귀국한 小野田守가 唐에서 安祿山의亂이 발발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唐이 신라를 도와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상정

25) 神功皇后의 三韓征討 전설과 고대 일본의 한반도 三國觀에 대해서는 【鈴木靖民 1969, 渡邊誠 2009】를 참조.

한 일본은 【和田軍一 1924ab, 石母田正 1971】 , 藤原仲麻呂가 주도하여, 天平寶字 3년부터 시작하여 3년간 내지는 天平寶字 7년의 節度使 정지까지에 걸쳐 신라 정벌 계획을 추진한다.

3. 藤原仲麻呂의 신라 정벌 계획

天平寶字 2년(758) 9월 渤海使 楊承慶 등 23인이 遣渤海使 小野田守의 귀국길에 같이 일본에 왔다. 小野田守는 聖武天皇의 서거를 발해에 알리기 위해 과견된 자료 【鳥山喜一 1968, 新妻利久 1969, 酒寄雅志 1977a-213】 , 이번 渤海使의 과견 목적은 조문에 있었다고 생각되지만(《續日本紀》 天平寶字 3年 正月 3日條 所引 高麗國王大欽茂言을 참조), 小野田守가 安祿山の 反亂을 보고하고, 또 唐에서 발해에게 지원요청을 하는 칙서까지 갖고 오면서 渤海使의 來日 그 자체가 그 후에 전개되는 일본의 신라정벌계획에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고, 이 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일본과 발해 간의 제휴 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설도 있다 【酒寄雅志 1979-66~7】 . 小野田守를 발해에 과견할 때에는 당시 紫微內相이었던 藤原仲麻呂의 자택에서 송별 연회가 개최되었고(《万葉集》 卷 20-4524), 그 仲麻呂는 紫微中台(天平勝寶 원년 8월)와 紫微內相(天平寶字 원년 5월)이라고 하는 발해의 中台省·大內相(政堂省의 長官)의 호칭을 따랐다고 하는 官司와 官職을 설치한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瀧川政次郎 1954】 , 발해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石井正敏 1974】 , 小野田守의 발해과견 단계에서 日羅관계의 타개를 발해와의 교류를 통하여 피하려고 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酒寄雅志 1977a-213~218】 .

天平寶字 3년(759) 6월에는 “令大宰府造行軍式 以將伐新羅也”(《續日本紀》 同月 18日條)와 신라 정벌 계획이 발안되어 병선 500척을 3년 이내에 건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續日本紀》 同年 9月 19日條). 天平寶字 5년 11월에는 節度使 체제가 시행되고(《續日本紀》 冬月 3日條), 天平寶字 6년 11월 16일에는 ‘爲征新羅調習軍旅’를 목적으로 香椎廟에 공물을 바치는(奉幣) 등 정벌계획이 추진되어 간다. 그리고 【河內春人 1995】 는 당초에는 위협만 하는 것이었겠지만, 天平寶字 4년(760)에 일본에 온 新羅使 金貞卷의 對日 자세가 강경했었기 때문에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간 중 天平寶字 5년 10월에는 일찍이 唐의 天寶12載 元日朝賀 때 신라와 爭長事件을 일으켰을 때의 遣唐使의 일원으로 고구려 계통 망명자의 일족이었던 高麗大山²⁶⁾이 遣渤海使로 임명되어 天平寶字 6년 4월 이후에 출발했지만 【石井正敏 1974】 , 이는 造船

명령에서 말하는 3년째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신라 협공에 대한 건이 使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酒寄雅志 1977a-223】. 그리고【酒寄雅志 1979-68】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21년(762) 5月條에 보이는

築五谷·鶻巖·漢城·獐塞·池城·德谷六城,各置大守.

라고 하는 북방의 大同江에 근접한 지역에서의 築城記事를 일본에게 유입을 거부당해 귀국한 신라인들(《續日本紀》 天平寶字 3年 9月 4日條 참조)에게 정보를 얻어 그 결과【酒寄雅志 1977a-222~234】, 일본과 연계하여 발해의 침공에 대비하는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처한 위치가 ‘太守’였고 무관이 아닌 점에 의문이 남는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天平寶字 6년(762) 6월에 孝謙上天皇과 淳仁天皇과의 관계가 악화되어(《續日本紀》 同月 3日條), 이를 배경으로 藤原仲麻呂정권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仲麻呂의 亂이 일어나 신라 정벌 계획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酒寄雅志 1979-69】.

한편 寶應 원년(762)에 唐은 발해왕 大欽茂를 발해 국왕으로 하고 신라 국왕과 동등한 ‘檢校大尉’라고 하는 官을 수여했다(《新唐書》 渤海傳). 이를 통해 발해는 신라 정벌 방침을 전환하고 唐에 접근하게 된다. 이것이 일본과의 연계를 포기한 배경으로 중시되며, 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의 文官(政堂省左允)渤海使 王新福이 일본에 왔다고 하는 설이 있지만【石井正敏 1974, 酒寄雅志 1979-68~9, 李成市 1994-413】, 唐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신라가 北邊에 성을 축조하는 등 발해와 신라는 계속 긴장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酒寄雅志 1977a-225】는 王新福은 오히려 정벌의 기회는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온 것이 아닐까 보고 있다.

4. 일본과 신라의 외교 관계 단절

仲麻呂가 신라 정벌 계획을 한참 추진하고 있던 가운데 天平寶字 4년(760)에 일본에

26) 高麗大山은 원래 肖奈大山이라고 하지만, 天平 19년(747) 6월에 肖奈福信 등과 함께 肖奈王이란 姓을 하사받고 있다. 그 후 天平勝寶 2년(750) 정월에 福信 등에게 巨万(高麗)이란 姓이 하사되었을 때와 동시에 賜姓된 것 같고, 동년 8월에는 造東大寺司判官으로서 高麗大山の 自署가 있다(《大日本古文書》 25권 134p).

온 金貞卷이,

不脩職貢，久積年月．是以，本國王令齋御調貢進．又無知聖朝風 俗言語者．仍進學語二人．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은

凡是執玉帛行朝聘，本以副忠信通禮儀也．新羅既無言信，又闕禮儀．棄本行末，我國所賤．

라고 비난하고 향후에는 “專對之人，忠信之禮，仍舊之調，明驗之言”을 갖추라 하며, 國使來朝의 조건을 명시했다(《續日本紀》 天平寶字 4年 9月 26日條).

그러나 신라가 일본의 요구에 응할 리가 없고, 天平寶字 7년(763)에 일본에 온 신라의 國使 金体信에 대하여 金貞卷에게 제시했던 지난번의 4가지 조건을 구비하고 왔는지 물었을 때 金体信은 “承國王之教，唯調是貢．至于余事，非敢所知”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를 무례하다고 생각한 太政官은 다시 “自今以後，非王子者，令執政大夫等入朝．宜以此狀，告汝國王知”라고 명했다(《續日本紀》 天平寶字 7年 2月 10日條).

寶龜 5년(774)에는 金三玄을 大使로 하는 235명의 사절단이 大宰府에 왔기 때문에 河內守從五位上紀朝臣廣純과 大外記外從五位下內藏忌寸全成 등이 파견되어 일본에 온 이유를 묻고 다음과 같은 문답을 나누었다(《續日本紀》 寶龜 5年 3月 4日條)

三玄言曰．奉本國王教，請修旧好每相聘問，并將國信物及在唐大使藤原河清書來朝．問曰．夫請修旧好每相聘問．乃似尙禮之隣．非是供職之國．且改貢調稱爲國信．變古改常．其義如何．

對曰．本國上宰金順貞之時，舟楫相尋，常脩職貢．今其孫邕，繼位執政．追尋家聲，係心供奉．是以，請修旧好每相聘問．又三玄本非貢調之使．本國便因使次，聊進土毛．故不稱御調．敢陳便宜．自外不知．

於是，勅問新羅入朝由使等曰．新羅元來稱臣貢調，古今所知．而不率旧章，妄作新意．調稱信物，朝爲修好．以昔准今，殊無禮數．宜給渡海料，早速放還．

실제로 清河는 770년에 서거하고 있어서 【增村宏 1988-246】은 이 파견을 신라의 工作의 하나라고 보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어쨌든 신라가 일본과 唐의 중간에 있는 위치를 이용하여 ‘尙禮之隣’이라는 입장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濱田耕築 1997-384~6】, 일본은 사의를 표하기는 하지만 명분상으로는 조공 관계 이외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寶龜 10년(779)에 일본에 온 신라국의 貢調使 金蘭孫 등이 다음 해 정월에

夫新羅開國以降, 仰賴聖朝世々天皇恩化, 不乾舟楫, 貢奉御調, 年紀久矣. 然近代以來, 境內奸寇, 不獲入朝. (하략)

라는 신라 국왕의 인사를 전한 것에 대해 光仁天皇은

新羅國世連舟楫, 供奉國家, 其來久矣. 而泰廉等還國之後, 不修常貢, 每事無禮. 所以頃年, 返却彼使, 不加接遇.

라고 비난하면서도 이번 使者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다고 했지만(《續日本紀》 寶龜 11年 正月 5日條), 그들이 귀국할 때에 준 신라국왕에게 보내는 璽書(慰勞詔書)에서는

王自遠祖, 恒守海服, 上表貢調, 其來尙久. 日者虧違蕃禮, 積歲不朝. 雖有輕使, 而無表奏. 由是, 泰廉還日, 已具約束. 貞卷來時, 更加諭告. 其後類使, 曾不承行.

라며 지금까지 몇 번이나 敎示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갖추어야 할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을 회고하며 앞으로는 “必須令齋表函, 以禮進退”라고 명하고 있다(《續日本紀》 寶龜 11年 2月 5日條). 이러한 일본의 고자세는 安史의 亂 이후 唐제국이 신라의 후방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신라 자체가 780년 4월의 惠恭王 암살사건에 이르는 혼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가 하고 상상할 수 있다【坂上康俊 2001】. 그러나 결국에는 이때를 마지막으로 新羅使는 일본에 오지 않게 되었다. 《三國遺事》 卷2 元聖王條에 貞元 2년(786) 10월과 다음해에 걸쳐 일본왕 文慶이 거병하여 신라에 압력을 가해 신라 왕실에 전하는 ‘万波息笛’이라고 하는 靈寶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전설이 실려 있는데 일본 측에는 이에 대응하는 사료가 없다.

이상으로 奈良時代 일본의 對新羅國觀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日本書紀》에 나온 神功皇后가 신라를 복속시켰다는 전승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신라가 唐과 대립관계 있던 시기에 ‘왕자’가 일본에 왔던 것과 ‘調’ 貢上을 전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신라는 일본에 대해 복속의 상징인 ‘調’를 貢進해야 하고 국왕 자신의 來日이나 국왕의 上表文이라는, 신하가 군주에게 제출하는 양식의 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이에 반하여 신라는 金泰廉이 일본에 왔을 때와 같이 가끔은 일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세를 보이면서도 결국은 그런 조공관계를 거부하는 방향

으로 가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본이 이렇게까지 고자세로 신라에 대해 조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신라가 결정적인 거절이라고 하는 방침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신라 측에도 일본과의 국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는 《三國史記》 聖德王 21년(722, 養老6) 10월에 “築毛伐郡城, 以遮日本賊路”, 同書 地理志一에 “臨關郡, 本毛火郡. 聖德王築城, 以遮日本賊路. 景德王改名. 今屬慶州”라고 나와 있고, 또 《三國遺事》 卷2 孝成王條에는 “開元十年(722) 壬戌十月, 始築關門於毛火郡. 今毛火村, 屬慶州東南境, 乃防日本塞垣也”라고 나와 있듯이 일본에 대비하여 關門城(毛伐城)이 축조되고 있고²⁷⁾, 同王 30년 4월에는 “日本國兵船三百艘, 越海襲我東過, 王命將出兵大破之”와 같이 일본의 병선이 신라를 침공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 실제로 교전하고 있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일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인 聖德王 20년(721)에 북방에 長城을 축조하고 있듯이 7세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건국된 발해와의 관계가 작용하여 일본과 결정적으로 단절하는 것을 피했을 가능성도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金泰廉과 후의 張保臯의 사례를 가지고 추정해보면 【濱田耕策 1983-349~51】 일본과의 교역 관계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내생산과 唐과의 사이의 교역 활동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상정하고 있다.

제2절 奈良時代의 불교와 신라

奈良時代의 불교에 신라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飛鳥時代 이래의 일본불교의 흐름 속에서의 신라불교의 역할 특히 신라에서 일본으로 온 승려들의 활동이 있고, 두 번째로는 특히 聖武朝 이후에 화엄경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 전개에서의 신라의 역할이다.

우선 첫 번째 측면에 대해서 논하자면, 飛鳥에 궁을 두었던 6~7세기 일본의 조정은 특히 불교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와

27) 毛伐城의 축성과 대일관계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鈴木靖民 1967b, 奥田尚 1975, 酒寄雅志 1977a】 등을 참조.

도 교류를 하고 있었다【曾根正人 2007】. 이런 가운데 신라의 승려로서는 우선 《日本書紀》 朱鳥 元年(686) 10월 2日條에 보이는 大津皇子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飛驒의 가람으로 옮겨진 ‘新羅沙門行心’이 있다. 그는 《懷風藻》의 大津皇子傳에 “新羅僧行心, 解天文卜筮”라고 나와 있고, 《續日本紀》 大寶 2年(702) 4월 8日條에 飛驒의 僧隆觀은 流僧幸甚의 아들로 보이는 幸甚과는 동일인물일 것이라 하고 있다【關晃 1954, 鈴木靖民 2002-60~61】. 《日本書紀》 持統 4年(690) 2월 11日條에는 “新羅沙門詮吉·級滄北助知等五十人歸化”라고 나와 있어서, 신라 승려가 일본에 오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山本幸男 2004-456】. 단, 한참 뒤의 시대이지만, 《日本三代實錄》 貞觀 5年(863) 4월 21日條에 “先是, 大宰府言. 新羅沙門元著·普嵩·清願等三人, 着博多津岸. 至是勅安置鴻臚館, 資給糧食, 待唐人船, 令得放却”, 同 貞觀 15年(873) 9월 8日條에 “甲斐國言. 新羅沙門傳僧·卷才二人, 來寄山梨郡. 傳僧等, 貞觀十三年徙配上總國者也. 仍令還着本處焉”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포함하여 일본에 온 경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日本書紀》 持統 元年(687) 4월 10日條에는 “筑紫大宰獻投化新羅僧尼及百姓男女廿二人. 居于武藏國, 賦田受粟, 使安生業”이라고 하고, 이것도 한참 뒤시대이지만, 《續日本紀》 天平寶字 2年(758) 8월 24日條에는 “歸化新羅僧卅二人·尼二人·男十九人·女廿一人, 移武藏國閑地. 於是, 始置新羅郡焉”이라고 나와 있어서, 신라 출신 승려를 다수 포함하는 아마도 개발 기술을 가진 집단을 개발 예정지에 투입했던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런 예는 신라 승려뿐만 아니라, 《日本書紀》 天武天皇 13年(684) 5월 14日條에 “化來百濟僧尼及俗人男女并廿三人, 皆安置于武藏國”이라고 하듯이 백제 승려에 대해서도 같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었다. 《日本書紀》 持統 7年(693) 6월 1日條에 “詔高麗沙門福嘉還俗”이라고 하듯이 7세기 말~8세기 초에는 외국에서 온 승려도 일종의 기술자로서 대우 받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속시켜서 조정에서 일하게 하고 있다【關晃 1955】. 養老 5年(721)에는 80세를 넘었다고 하는 백제에서 온 승려 道藏도, 天武 12年·持統 2年の 기우제로 유명해졌다. 天智 원년(662) 4월에 고구려의 멸망을 예언하고 《日本書紀》에 실린 <日本世記>의 필자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는 고구려의 승려 道顯【橋川正 1920】도 마찬가지로 간주되고 있다.

이 시기 敎學의 면에서는 隋로 건너가, 三論宗을 대성시킨 嘉祥大師 吉藏에게 사사하여 三論을 공부하고, 推古 33年(625)에 고구려왕이 보내어 일본에 와서 元興寺에 머무르며 三論을 보급시킨 고구려 승려 惠灌, 그의 제자로 역시 고구려 출신 승려였던 福亮(大化 원년의 十師 중 한 명)등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遣隋使·遣唐使를 수행하여

隋·唐에 왕래하였던 僧旻·惠日·惠隱·惠妙(~680) 등, 그리고 玄奘에게 사사하고 齊明 7년(661)에 귀국하여 法相宗을 전파한 道昭(629~700), 白雉 4년(653) 4월에 唐에서 유학하고 《依四分律抄撰錄文》一卷을 저술한 道光, 혹은 고구려에서 유학했던 것으로 보이는 道登, 大寶 2년에 당으로 가서 養老 2년에 귀국하는 道慈(744) 등 주로 당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는 승려들의 활동이 눈에 띄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奈良時代에 들어서 玄昉으로 이어진다. 원래 신라 출신 승려로 大寶 3년에 당에 갈 것을 명받아 智周에게 사사하고 귀국한 후에는 法相宗을 보급한 智鳳과 같은 경력을 가진 자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라 불교와의 관련이 중시되어 온 것은 제2의 논점인 華嚴敎學에 주목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華嚴經》이 일본에 들어온 것은 養老 2년(718) 12월에 당에서 귀국한 승려 道慈가 가져온 것 같고, 養老 6년 11월 19일에는 元明天皇의 1주기에 즈음하여 그 書寫를 명하고 있다(《續日本紀》). ‘靑丘留學華嚴審祥大德’(《華嚴一乘開心論》 下卷, 天長 7년경, 普機撰) ‘新羅學生審祥大德’(《東大寺要錄》 卷5 ‘東大寺華嚴別供緣起’)이라고 칭해지고 있고, 일본에서 화엄의 祖師라고 불리는 審祥은 신라에 유학하여 華嚴宗 第二祖·智儼의 제자 義湘(625~702)의 제자가 되고 후에 唐에도 유학하여 第三祖·法藏(643~712, 義湘의 동문 후배)에게 화엄종을 배웠다고 전한다(《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 ‘華嚴宗’). 그 후 天平 12년(740) 10월에는 勅에 의해 金鐘寺(후에 발전하여 東大寺가 됨)에서 《華嚴經》을 강의했다(《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東大寺要錄》 卷1) 【堀池春峰 1973, 宮崎健司 1998, 山本幸男 2004】. 審祥의 藏書에 대해서는 正倉院 문서 속에 보이는 “右五十部 二百五十卷 審祥師”(《大日本古文書》 17卷 134p)라는 기술에서 추측할 수 있는데 목록의 일부에 가까운 것으로서 170점의 서적을 기재하는 ‘更可請章疏等’(天平 20年, 《大日本古文書》 3卷 84~91)이 있다 【大平聰 2009 143~4】. 그의 제자로는 良弁·慈訓 등이 있다.

正倉院 문서를 통람해 보면, 智儼·法藏의 저작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 元曉·義湘·明晶·表貝 등 신라 學僧의 주석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石田茂作 1930-84~5】. 正倉院 문서에서 조금씩 보이는 審祥으로부터의 經典 대역관계 사료를 바탕으로 【堀池春峰 1973】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審祥이 소지하고 있던 經論은 170部 645卷에 이르고, 元曉·義寂·玄一·義湘·大行 등 신라 學僧들의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고 특히 元曉의 것은 32部 78卷에 이르렀다고 한다. 단, 天平勝寶 3년(751) 5월 25일 <華嚴宗布施法定文案>(《大日本古文書(編年文書)》 11卷 557~562p)을 이용하여 당시의 화엄종 연구 양상을 상세하게 검토한 【山本幸男 2008-96】은 東大寺의 화엄종은 法

藏의 화엄교학을 핵심으로 하는 學團이며, 學僧인 元曉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한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聖武朝에 융성기를 맞이하는 華嚴宗에 대해서는 교학적으로 一即多(하나의 것이 천 우주와 대응한다)라는 장대한 사상이 聖武天皇의 이상에 들어맞았다는 설명【末木文美士 1992-54~5】， 또 聖武天皇은 《金光明最勝王經》으로 율령국가 수호를 꾀하면서 《華嚴經》에서 설명하는 十方세계의 관념(보편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천연두 등으로 인해 피폐해진 일본국가의 재생과 번영을 구상했다는 설명【森本公誠 2003】， 혹은 法相宗 이후에 등장한 華嚴宗에는 기존의 모든 종파를 포섭하여 서열화한다는 독특한 이론이 구축되어 있어서, 圓經(완전한 가르침)으로서 세속의 권력이 의존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지적【山本幸男 2008-116】 등 전적으로 교학적인 측면에서 융성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것이다. 또 신라에서는 法藏의 別教一乘을 元曉의 一心觀에 의거하여 一乘大乘이라고 동일시해버리는 太賢과 같은 교학이 생겨나고 그것이 審祥에 의해 일본에도 전해져서 東大寺 조영과 대불 건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제창되고 있다【吉津宜英 1991-551~561, 1997】.

그러나 聖武·孝謙朝에 《華嚴經》에 열중하는 것은 四字年號, 唐風官名, 國分寺·尼寺의 건립, 대불(盧舍那佛) 조영 등 여성 황태자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 유일의 여제인 武則天의 시책을 모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武則天은 《大雲經》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시켜서 불교 신앙을 이용하여 즉위한 후【矢吹慶輝 1927】， 《華嚴經》을 자신의 정치이념으로 삼고 화엄종을 대성시킨 화엄종 第三祖·法藏에게서 受戒했다【鎌田茂雄 1965-147, 任繼愈 1994-86】. 聖武·孝謙朝 이후 화엄종이 일단 급속하게 쇠퇴하는 점도 염두에 둔다면 교학적인 면에서의 설명에 더해, 唐(周)에서 화엄종을 중요시한 것이 동기였다고 하는 편이 설명하기 쉽고, 인맥적으로는 신라의 화엄종과도 연계되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화엄종에서 중요시되는 盧舍那佛에 대해서는 金泰廉 등의 일행이 經卷을 바친 것으로 보이고 天平勝寶 4년(752) 6월 22일에 ‘新羅國 使人’이 奉請한 《法華經》《梵網經》《頭陀經》에 대한 이야기가 ‘自所々請來經帳’(《大日本古文書》 12卷 289·296p)에 보인다【東野治之 1974-305, 田村圓澄 1999, 鈴木靖民 2007-55】. 그리고 오타니(大谷)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判比量論》(신라의 元曉가 671년에 찬술)은 그 書風·書體·料紙를 관찰해 보면 8세기 전반 신라로부터의 舶載經으로 審祥이 소지했던 것일 가능성이 지적되었는데, 당해 경전에 신라의 角筆이 확인됨에 따라【小林芳規

2002c】，신라로부터의 舶載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鈴木靖民 2007-53~5】. 【宮崎健司 2006-49】는 이 경전의 藏書印을 조사하여 당해 경전은 橘三千代가 죽기 전에 光明皇后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天平 5년(733) 이전의 書寫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 【山本信吉 2006】는 東大寺 聖語藏 《大方廣佛華嚴經(自卷第七十二至卷第八十)》이 일부 합본이라는 점, 省略本이라는 점, 楮紙·無界라는 점, 紙數表記에 ‘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볼 때 奈良時代의 寫經이 아닌 통일신라 내지는 고려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적을 받은 【小林芳規 2008-1~4】는 東大寺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同經(自卷第十二至卷第二十)이 이와 僚卷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여기에는 확실하게 신라어와 신라 훈독 부호가 角筆로 기입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訓点의 일종인 오코토(ヲカ)점, 返讀点, 구기리후(句切り)符, 역주 : 단락 구분 기호), 合符의 원류가 신라에 있다고 【小林芳規 2002d】는 추측하고 있다.

이 외에 皇龍寺에서 이루어졌던 백 명의 승려가 일제히 《仁王經》을 독송하여 외적의 침공과 내란을 막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百座講會가, 신라에서는 眞平王 35년(613)에 처음으로 보이고, 憲康王 2년(876) 이후에는 즉위 의례의 하나로서 1대에 한번 실시되는 흐름이 있지만 【濱田耕策 1982-34】，이것과 일본 仁王會와의 관계는 향후의 과제이다.

제3절 正倉院 보물 속의 신라 문물

1. 물품

正倉院 보물에 대해서는 “실크로드의 발착역이 長安이라고 한다면 正倉院 寶庫는 제2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본과 마찬가지로 唐 문화권에 속하는 신라 문물의 전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正倉院事務所 1978-8】. <國家珍寶帳>에 기재된 2대의 ‘金鏤新羅琴’은 弘仁 14년(823)에 出藏되어 버렸지만 동년에 소장된 다른 2대의 新羅琴(<雙倉雜物下帳>에 ‘相替施入’이라고 보임)은 현존하고 있고【荒川浩和 1981, 木內武男 1981, 成瀬正和 1991, 定森秀夫 1999】，또 마찬가지로 <國家珍寶帳>에 기재된 “銀平脫合子四合(各納棊子)”도 이전에는 백제 義慈王이 보내온 감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백제국 義慈王이 內大臣 藤原鎌足에게 보낸 赤漆槻木

감실 一口는 현존하지 않고 同帳에 실린 ‘百濟畫屏風’도 현존하지 않는다. 이 외에 여러 가지 藥帳에 ‘新羅羊脂’가 보이는데 이것도 현존하지 않는다²⁸⁾. 이 외에는 【松島順正 1978-169】에 ‘新羅楊家上墨’ ‘新羅武家上墨’이라고 채록되어 있는 2점의 신라묵이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正倉院 보물 중에 있는 신라 문물에 대해서는 【鈴木靖民 1982a】의 개론이 있고²⁹⁾, 상기의 것 이외에 아래와 같이 소개하는 것이 있다.

① 南倉의 佐波理鏡·佐波理加盤(여러 겹으로 되어 있음, 重鏡)은 佐波理重鏡 속에 한 반도의 고문서 같은 것(후술을 참조)이 부속되어 있다는 점 【關根眞隆 1969, 中野政樹 1976-19, 鈴木靖民 1977】에서 신라에서 온 물건으로 보인다.³⁰⁾ 문서는 그 형태로 보아 처음부터 있는 鏡과 鏡 사이에 접어서 끼워져 있었을 것이다 【鈴木靖民 1977】. 天平勝寶 5년(753) 6월에 ‘檢定’했다는 墨書가 있으므로 天平勝寶 4년에 왔던 金泰廉 일행이 지참했던 것을 東大寺가 한꺼번에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關根眞隆 1969】, 佐波理皿·鏡에는 물감 접시로 화공·經師가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 점을 보면, 造東大寺司가 일괄 구입했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 【鈴木靖民 1977】. 단, 【中野政樹 1981】은 문서가 부속되어 있던 세트는 다른 것과 비교하면 대형이기 때문에 正倉院의 모든 佐波理鏡이 신라제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한다. 그리고 雁鴨池에서 출토된 鏡과 접시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중국의 陝西省 등의 유적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것이 출토되고 있음) 【李蘭暎 1983-382·388】, 순가락 세트도 雁鴨池 출토품은 正倉院 보물과 비슷하다 【李蘭暎 1983-391】.

② 南倉의 佐波理皿의 針銘³¹⁾ 중에는 ‘爲水架’(22번 6호)이 있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인명과 관명에 사용되는 乃末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새겨진 단계에 문제는 있지만 신라에서 온 물건이든지 신라인이 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佐波理 주조 제품인 加盤은 전부 86組 436口가 있고(佐波理蓋·承盤 각 2개를 포함), 佐波理皿은 700口 및 16口에 상당하는 殘欠이, 佐波理匙(南倉45)는 18束 345枚가 있고, 이외에 鏡, 水瓶, 습자 등도 있는데 【中野政樹 1976-8~9】, 이 중에서 순가락은 円匙·長匙 2

28) 延曆 6년, 弘仁2년의 寶庫開檢目録에는 보이고 있다.

29) 이 외에 【鈴木靖民1990, 1997】도 참조.

30) 그리고 佐波理加盤의 명문 일람은 【柳雄太郎1976】에 게재되어 있음.

31) 일람은 【柳雄太郎1976】에 게재되어 있음. 그리고 佐波理皿의 명문에서는 ‘塞(地)’의 則天文字를 볼 수 있다(36番1~5의 바깥 면).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상황이 雁鴨池의 출토 상황과 동일하다 【中野政樹·李蘭暎 1978-81, 鈴木靖民 1977-389】 .

- ③ 南倉 33의 金銅剪子(가위)는 그 형상이 雁鴨池에서 출토된 쫓대용 가위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신라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 【金東賢 1976, 中野政樹 1976-19, 鈴木靖民 1977-388, 中野政樹 1978-79】 .

한국에서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진전되면서 그 결과 正倉院 文庫 속에서 신라와 관련이 깊은 것이 발견되는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河田貞 1981】 .

그리고 正倉院 寶物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문물이 한반도에서 온 것이라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 ① 法隆寺 헌납보물 중에서 水瓶·塔鏡·脚付鏡·蓋鏡·鏡·加盤(重鏡)·托子·匙·柄香爐가 있고 【阪田宗彦 1974】 , 7세기 말~8세기 초기 재건 당시에 묻은 法隆寺五重塔心礎出土鏡도 佐波理에 가깝다. 단, 【鈴木靖民 1977-384~7】 는 그 산지에 관해서는 국내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 ② 【尾崎喜左雄 1964】 는 群馬縣의 많은 고분에서 출토되는 佐波理는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 같다고 한다.
- ③ 貞觀 13년(871)의 <安祥寺資財帳>에 기입되어 있는 疊子·五盛堦·闕伽毘·塗香盤·田匙에는 ‘신라’라는 주석이 달려있어서, 이것들은 同帳에서 말하는 ‘新羅商客’에게서 매입한 물건이라고 생각된다 【東野治之 1974-334】 .
- ④ 平城宮에서는 花形와 葉形의 문양을 틀로 눌러서 찍고, 녹색의 유약을 바른 신라제 도기의 파편이 출토되었고, 西市에서 가까운 금속 공방 유적의 토광에서 신라제 長頸瓶의 청회색 파편도 출토되었다 【千田剛道 1996-210, 2006】 .

이 외에 전국에서 출토되고 있는 신라제 문물에 대해서는 【江浦洋 1988, 1992, 1994】 등에서 집대성이 시도되고 있지만 지금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長屋王邸 등에서 출토된 목간에서도 ‘신라’라는 말이 보이고 있고(《木簡研究》 12-22, 《平城京發掘調査出土木簡概報》 17-19, 27-13, 32-22), 《万葉集》 卷3-460·461 左註에서 보이는 신라 尼僧인 理願과 같이 귀화 내지는 都京에 거주하고 있던 신라인의 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鈴木靖民 1997-209~218, 2007-61~2】 .

2. 문서

우선 이른바 ‘신라 촌락문서’에 대하여 보자. 1933년 10월에 正倉院 中倉 계단 아래의 中棚에 수납되어 있던 13매의 經帙 중에서 파손 수리를 위해 해체된 華嚴經論帙의 布心に 발라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신라 촌락문서’는 【野村忠夫 1953】에 의해 학계에 소개된 이후 많은 연구가 거듭되어 왔다. 이러한 研究史는 1986년 단계까지는 【濱田耕策 1986】가, 2003년 단계까지는 【宋浣範 2003】 및 【尹善泰 2003】가 정리했다³²⁾. 지금 그 내용을 분석 중인 것³³⁾을 제외하고 작성 연차와 전래 경로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만 소개하자면, 우선 【旗田巍 1958·59】는 ‘烟受有田畚’을 《三國史記》 聖德王 21年(722)條의 ‘始給百姓丁田’의 丁田이라고 해석하고 문서 속의 ‘乙未年’을 755년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하여 【武田幸男 1976】는 《三國史記》 景德王 16年(757) 3月條의 “除内外群官月俸, 復賜祿邑”에 주목하고 본 문서는 內省 내지는 內省의 관직에 지급된 祿邑 관계 문서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815년설을 제창했고³⁴⁾, 이것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통설로 되어있다. 이 외에 【李弘植 1954】의 875년 가능성설도 있다.

이에 대하여 【尹善泰 1995, 1996, 1998, 2000ab】는 ① 744년~758년 사이에 唐·신라에서는 ‘年’ 대신에 ‘載’가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壹月’이라는 표기는 695년~700년 사이에만 사용되었다는 점, ③ 帙로 사용되었던 華嚴經論은 7帙 이상이었기 때문에 唐의 李通玄(635~730 혹은 646~740)이 新譯華嚴經 80卷에 주석을 단 40卷이 아닌, 北魏의 靈弁이 舊譯華嚴經 60卷에 주석을 단 100卷본을 가리키며 한반도 계통 華嚴經을 일본에 가져온 審祥(736년에는 일본에 있었음, 751년경에 사망)이 소지하고 있던 華嚴經論 65卷(《大日本古文書》 10卷 278p, 同 17卷 129p)과의 관련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점, ④ 그리고 문서 속의 西原京은 685년에 설치된 것이니, 그 이후라고 보면, 乙未年은 695년에 해당한다는 설을 제창하고 있다. ‘載’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755년설을 부정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분위기가이지만, 해당 華嚴經論帙이 審祥의 소장본이었다는 확증은 없고 【李仁哲 2001-73~5】, 또 【木村誠 2004-99~100】는 ‘壹月’의 설명

32) 이 외에 【金壽泰 2001, 李文基 2002】가 있음.

33) 【崔吉成 1960, 虎尾俊哉 1974ab, 明石一紀 1975ab, 木村誠 1976, 兼若逸之 1976·1979ab·1980, 濱中昇 1982·1983, 李宇泰 1983, 兼若逸之 1984ab, 濱中昇 1985·1986, 安部井正 1989, 李泰鎮 1990, 濱中昇 1993, 李仁哲 1993, 李宇泰 1993, 李喜寬 1994】 등 다수.

34) 【李弘植 1954, 田鳳德 1956】도 同年說에 들어간다.

에 대해서는 尹善泰 설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祥瑞記事의 집중을 근거로 신라에서는 803년에 周正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위해 ‘壹月’라고 하는 표기가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여전히 815년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외에 則天文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尹善泰 설을 비판하는 견해를 【金壽泰 2001-15, 李仁哲 2001-77~8】에서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佐波理加盤 부속문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宮內廳 正倉院事務所編 《正倉院의 金工》(日本經濟新聞社, 1976년)에 게재된 図版(銘文図版33)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正倉院 南倉에 소장되었던 문서로 全45組의 佐波理(동·주석·은 합금) 加盤(크기가 다른 같은 모양의 기물을 차례로 포개어 넣는 식기에 뚜껑을 덮은 것) 중에서 제15호 四重鏡의 제4호 鏡 속에 들어있던 것이다. 【柳雄太郎 1976-121】에서 해설(단, 釋文은 달지 않음), 【鈴木靖民 1977, 1978】에서 釋讀을 한 연구가 있다. 鈴木에 따르면, ① 본 문서에는 吏讀가 사용되고 있고, ② 곡류의 계량단위를 石·斗·刀로 나타내고 있고 또 십진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고려 중엽 이전의 것이며, ③ 巴川村은 李朝 이전에 4곳이 있고 어느 곳인지 결정하긴 어렵고, ④ 표는 馬肉을 바친 것과 尾를 바쳤으나 오염되었다는 것과 巴川村의 정월에서 3월까지의 上米·大豆의 수량을 기록한 것이며, ⑤ 인명·관명 같은 것(永忽知朶, 六直朶, 奮米山奮은 그 상한이 眞平王代, 하한이 高麗초기이다. 해당 문서에 관해서는, 【中野政樹·李蘭暎 1978-81~2】에 출납장의 한 장일지도 모른다는 李蘭暎의 언급이 있고, 【尹善泰 1997】 등의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買新羅物解(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 그 외에 대하여 보자. 【鬼頭清明 1969】가 모두 신라 관계라고 지적했던, 鳥毛立女屏風の 초배지로 사용되었던 문서인데, 【東野治之 1974】에 따르면 正倉院과 일부는 尊經閣에도 소장되어 있는 비슷한 문서(원래는 右図의 초배지 중 일부인가)와 一群의 것으로 天平勝寶 4년 6월 중순~하순의 날짜가 적혀있으며, 향료·약물·안료·염료·금속·기물·생활용품 등의 품목을 열거하고, 그 가격을 緇·絹·糸·綿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天平勝寶 4년에 일본에 온 왕자 金泰廉 이하 신라 사절들이 배에 싣고 온 물건들을 둘러싸고 구입을 희망하는 五位 이상의 귀족 계급에서 아마도 內藏寮에게 제출했던 買新羅物解이다. 향료·약물·안료 등 중에는 중국·동남아시아·서역·인도 등이 산지인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는 신라에 의한 중계무역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러 종의 약물·松子, 佐波理製의 鏡·盤과 甌은 신라의 특산품이다. 이 문서에 관해서는 이 외에 【金義煥 1982~1984, 杉本一樹 1990, 皆川

完一 1994, 李成市 1997-제1~3장】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關根眞隆 1975, 1982】은 해당 문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교역품이라는 생각과 함께 신라의 조공품을 팔려고 내놓았을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東野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이 외에 北倉에 보관되어 있던 花卉長方氈과 紫色氈에는 각각 ‘行卷韓舍儂花氈一/ 念物得追于’ ‘紫草娘宅紫稱毛一/ 念物糸乃綿乃得/追于’ ‘今綿十五斤小/ 長八尺 廣三尺四寸’ (異筆) ’라고 하는 墨書가 있고, 麻布로 만든 小籠이 붙어있다. 이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신라의 문자라고 【藤田亮策 1954】 등이 추측했었고, 또 본래 각각의 氈에 부착되었던 것이라는 것도 기재된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다. 【東野治之 1977】은 念物이란 교역품의 의미로 후자는 糸이나 綿과 교역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에 대하여 綿十五斤이라고 하는 대가가 기록된 것이고, ‘行卷韓舍’ ‘紫草娘宅’는 판매자나 제조업자의 상호일 것이다. ‘新羅墨’(前述)을 참조하면 당시의 신라에서 대외교역을 고려한 수공업 생산이 관인과 제조업자 하에서 전개되고 있었고 내외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상인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본 문서에 관해서는 이 외에 【李成市 1998, 尹善泰 1997b】 등의 연구가 있고, 李成市는 ‘念物’을 희망품이라고 고쳐 해석하여 신라의 귀족이 일본과의 교역을 전제로 그 名義와 가치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교역 희망품의 획득을 지시하기 위한 짐의 꼬리표로 오늘날의 진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고, 內省管下의 官司인 倭典에서 작성하여 그것을 毛氈에 꿰매어 부착해 일본에 반입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제4절 平安時代 일본과 신라의 관계

1. 신라 상인의 내향

신라에서는 780년 惠恭王 부부가 살해된 이후 下代라고 불리는 동요·쇠퇴기에 들어선다 【北村秀人 1982b, 李成市 2000, 武田幸男 2000】. 寶龜 10년(779)의 사절을 마지막으로 신라는 일본에 사자를 보내지 않게 되고, 일본이 遣唐使 왕래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자를 모욕하는 등 일본과 신라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단, 《三國史記》 <新羅本紀> 哀莊王 4年(803) 7月條에는 “與日本國交聘結好”, 또 同

5年 5月條에는 “日本國遣使, 進黃金三百兩”이라고 나온다. 전자는 延曆의 遣唐使 파견에 즈음하여 아마도 해안에 도착했을 때의 보호를 의뢰하는 것을 使命으로 延曆 22년(803) 3월에 신라로 파견된 齋部浜成(宮內廳書陵部藏明應本 《古語拾遺》 識語)의 교섭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石井正敏 1986】, 후자는 다음 해의 遣唐使가 재출발한 후 慰勞詔書가 아니라 太政官牒을 가지고 가서 使人의 보호를 요청한 遣新羅使 大伴岑万里의 일(《日本後紀》 延曆 23年 9月 18日條)을 가리킨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濱田耕策 1979-140~141】은 여기에 드디어 일본이 신라가 주장하는 대등한 예로 대하는(尙禮) 隣國으로서의 관계를 받아들였다고 하고 그 배경으로 일본에서 율령제가 동요되고 있던 상황을 들고 있지만³⁵⁾, 이러한 遣新羅使는 遣唐使의 항로상 안전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太政官牒을 가지고 간 것이 나타내듯이 국서를 교환하는 국교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의하면 哀莊王 7년(806) 3월에도 “日本國使至, 引見朝元殿”, 9년 2월에도 “日本國使至, 王厚禮待之”라고 나와 있는데, 대응하는 일본 측의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³⁶⁾.

실제로 파견되었던 마지막 遣唐使였던 承和의 遣唐使 파견에 앞서 承和 3년(836)에도 遣唐使가 신라에 도착했을 경우에 보호와 송환을 ‘告諭’하기 위한 遣新羅使로서 紀三津이 파견되고 있는데, 이 때 紀三津의 말과 지참했던 太政官牒과의 모순(아마도 후자는 거만했었기 때문일 것이다)에 대해 책망하고, “恕小人(=紀三津)荒迫之罪, 申大國(=신라)寬弘之理. 方今時屬大和, 海不揚波. 若求尋旧好, 彼此何妨”이라며 신라의 大國 의식을 선양하는 내용의 執事省牒을 부여하여 되돌려 보낸다 《續日本後紀》 承和 3年 12月 丁酉條³⁷⁾.

한편 사적인 교류에 눈을 돌려보면, 奈良時代부터 平安時代 초기에 걸친 신라인 漂着者들에 대한 처우의 변화【山內晋次 1990】가 후에 여러 차례 오는 신라 상인에 대한 조

35) 단, 【濱田耕策2000c-266】에서는 일본 측이 대신라 외교자세를 개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도, 【濱田耕策 2000c-267】에서는 신라는 발해와 일본을 ‘交聘’國으로 하는 국제관계를 확립했다고 하고 있어서 관점이 흔들리고 있다.

36) 【森克己 1964】는 이러한 사례를 大宰府의 官人과 西日本の 상인의 사적인 통교라고 보지만, 【山內晋次 1990-106】는 이 외에 景文王 4년(864), 憲康王 4년(878), 同 8년의 사례를 포함하여 靑丘民 송환을 위한 使者였을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37) 9세기에 3번 파견한 遣新羅使에 관해서는 【石井正敏 1987】을 참조. 紀三津사건에 대해서는 【西別府元日 2000, 山崎雅稔 2007】이 있고, 西別府는 장보고의 세력 등 동아시아의 多島海에서 활동하는 교역자(‘島嶼之人’ ‘商帆’)의 존재가 신라 정부의 의심을 고조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치의 전제로서 주목된다. 寶龜 연간부터 다음에 거론하는 承和 9년(842)에 藤原衛의 奏上 이 있기까지의 시기에는 ‘歸化’와 ‘流來’의 구별에 따라 신라인 漂着民에 대한 처우가 결정되었고, 전자는 종래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후자에 대해서는 ‘放還’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 조치의 유래는 《續日本紀》 寶龜 5年(774) 5月 17日條(《類聚三代格》 卷 18)에도 동일 날짜의 太政官符 ‘應大宰府放還流來新羅人事’를 수록)에 나오는 아래의 勅이다.

勅大宰府曰. 比年新羅蕃人, 頻有來著. 尋其緣由, 多非投化. 忽被風漂, 無由引還留爲我民, 謂本主何. 自今以後, 如此之色, 宜皆放還以示弘恕. 如有船破及絕糧者, 所司量事, 令得歸計.

이 이전에는 漂着者에 대해서 新羅使가 귀국할 때 같이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도착 시점에 ‘放還’시키는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칙명에 의해 ‘流來’와 ‘歸化’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후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었다. 실제로 9세기에 弘仁~天長 연간에 걸쳐서는 다수의 신라인이 ‘歸化’한 사례가 알려져 있고 【佐伯有清 1964, 奥村佳紀 1971】 이와 함께 송환이 실시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日本後紀》 弘仁 2年(811) 8月 12日條, 同 弘仁 3年 3月 1日條, 同 弘仁 3年 9月 9日條).

【山内晋次 1990-75】은 이러한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당시의 일본과 신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고, 본의 아니게 표착하게 된 자를 일본 국내에 머물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의식하게 된 것과 신라에서 온 표착민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상위 자로서의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日本後紀》 弘仁 4年(813) 3月 18日條 逸文(《日本紀略》)에는

大宰府言. 肥前國司今月四日解稱. 基肆団校尉貞弓等, 去二月廿九日解稱. 新羅一百十人駕五艘船, 着小近嶋, 与土民相戰, 即打殺九人, 捕獲一百一人者. 又同日解稱. 新羅人一清等申之. 同國人清漢巴等, 自聖朝歸來. 云々. 宜明問定, 若願還者, 隨願放還. 遂是化來者, 依例進止.

라고 하여, 5척의 배에 탄 신라인 110명이 五島列島에 상륙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중 9명을 죽이고 나머지를 체포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 점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아마도 【北村秀人 1982b, 生田滋 1991】가 서술하는 것과 같은 국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라에서 온 유입자가 8세기 말부터 증가 추세에 있었고, 특히 北部九州에서는 신라와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平野卓治 1996】 이 실제로 이 시기의 신라에서는 반란·기아·역병이 빈발하고 주민의 해외 도피가 많아져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田中史生 1997-216~219, 239~240】은 寶龜 5년의 시점에서 이미 교역을 목적으로 한 來航者가 섞이게 되어 좀 전의 칙령은 국가 간의 교역 이외의 국제교역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당시 실제로 교역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논거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런데 9세기의 전반에는 신라 상인이 일본에 오는 일이 빈번하게 보이게 된다. 【田中史生 1997-236~7, 西別府元日 2000】은 《日本後紀》 延曆 18年(799) 5月 13日條에,

前遣渤海使外從五位下內藏宿祿賀茂麻呂等言. 歸鄉之日, 海中夜暗, 東西掣曳, 不識所著. 于時遠有火光. 尋逐其光, 忽到鳴濱. 訪之, 是隱岐國智夫郡. 其處無有人居. 或云. 比奈麻治比賣神常有靈驗. 商賈之輩, 漂宕海中, 必揚火光. 賴之得全者, 不可勝數. 神之祐助, 良可嘉報. 伏望奉預幣例. 許之.

라고 나오는 ‘商賈之輩’를 隱岐 근해라고 하는 위치에서 봤을 때 일본해를 무대로 국가 간 교역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국제교역자라고 추측하고 있다. ‘신라 상인’이라고 명기된 자가 일본에 온 첫 사례는 《日本後紀》 弘仁 5年(814) 10月 丙申條의 “新羅商人卅一人, 漂着於長門國豐浦郡”에서 보이지만, 【榎本涉 2007-93~4】는 《日本後紀》 逸文(《日本紀略》) 弘仁 9年(818) 正月 13日條의 “大宰府言. 新羅人張春等十四人來獻驢四”에서 보이는 張春과 同逸文(《日本紀略》) 弘仁 11年(820) 5月 4日條의 “新羅人李長行等進殺羴羊二, 白羊四, 山羊一, 鶩二”에 보이는 李長行도 아마 海商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일본 정부의 대응은 “若願還者, 隨願放還. 遂是化來者, 依例進止”(앞의 《日本後紀》 弘仁 4年(813) 3月 18日條), 또 《日本後紀》 逸文 弘仁 5年(814) 5月 9日條(《日本紀略》)에,

新羅王子來朝之日, 若有朝獻之志者, 准渤海之例. 但願修隣好者, 不用答禮, 直令還却. 但給還糧.

라고 나와 있듯이 국가적 외교와 그 외의 來航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그 주된 대상은 신라 상인이었고 【石上英一 1984】, 그들에게 大宰府에서의

관리 교역을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西別府元日 2000】. 天長 8년(831)에는 다음과 같이 신라 상인과의 교역 제한령이 내려질 정도가 된다.

太政官符

應檢領新羅人交關物事

右,被大納言正三位兼行左近衛大將民部卿清原真人夏野宣稱. 奉勅, 如聞, 愚闇人民, 傾覆櫃運, 踊貴競買. 物是非可輕適, 弊則家資殆罄. 耽外土之聲聞, 蔑境內之貴物. 是實不加捉搦所致之弊. 宜下知大宰府, 嚴施禁制, 勿令輒市. 商人來着, 船上雜物一色已上, 簡定適用之物, 附驛進上, 不適之色, 府官檢察, 遍令交易. 其直貴賤, 一依估價. 若有違犯者, 殊處重科, 莫從寬典.

(《類聚三代格》卷18 天長 8年 9月 7日 太政官符)

이 官符에 의하면 신라 상인이 가져오는 물품은 매우 호평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고가에 매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大宰府에 명하여 우선 조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京都에 진상시키고, 그 후에 大宰府 官人の 감독 하에 공정 가격으로 사적 교역을 허하도록 하게 되었다 【石井正敏 1988, 田中史生 1997-241~2】. 결국 이는 그때까지 외국에서 오는 사절과의 교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던 규정을 신라 상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弘仁 연간의 방침을 제도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渡邊誠 2003】.

이러한 신라 상인의 활발한 교역활동과 그에 대응하는 일본 측의 무역 통제 강화의 배후에는 青海鎮 大使 장보고의 활동이 있었다³⁸⁾.

2. 장보고와 入唐僧

장보고의 업적에 대해서는 【日野開三郎 1960~61】을 비롯하여 특히 【蒲生京子 1979, 石井正敏 1988, 堀敏一 1998a, 濱田耕策 1999, 李基東(近藤浩一譯) 2001, 千田稔 2003, 田中史生 2005, 2007, 黃純艷 2008-332】 등의 연구가 있고, 신라 국내에서의 세력 신장과 붕괴 과정 및 대일 무역의 전개 양상이 검토되었다.

장보고(弓福·弓巴라고도)는 唐에서 徐州의 武寧軍 節度使의 부하인 軍中小將이라고 하는 군직에 있었고 귀국 후에는 莞島를 근거지로 하여 해상활동을 전개한다. 그는 天長

38) 【山崎雅稔 2001a-5】은 이때에 정비된 장보고와 大宰府 간의 日羅무역을 ‘青海鎮 - 鴻臚館貿易’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榎本涉 2007-93】이 지적하듯이 이 무역은 日羅 사이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원년(824)에 일본에 온 적이 있었던 것 같고(《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5年 9月 22日條), 【李炳魯 1993】은 이 시기부터 장보고는 大宰府 管内에 거주하며 교역 활동을 하고 있던 在日 신라인을 세력 하에 두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라에서는 810년 전후부터 唐, 특히 山東半島로의 인신 掠賣가 극성이었기 때문에, 828년(天長 5년)에 唐에서 귀국한 장보고는 이를 진압하여 막기 위해 신라 興德王에게 청원을 하여 青海鎮 大使에 임명되어 이미 在唐新羅人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李炳魯 1993】, 신라·일본·唐의 3국간 교역을 통괄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라의 閔哀王 2년(839)에는 그에게 의탁하고 있던 金祐徵을 받들어 반란을 일으켜 閔哀王을 치고 金祐徵을 神武王으로 즉위시킨다. 그 다음해인 承和 7년(840)에는

大宰府言. 藩外新羅臣장보고, 遣使獻方物. 卽從鎮西迫却焉. 爲人臣無境外之交也.

(《續日本後紀》 承和 7년(840) 12月 27日條)

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太政官仰大宰府云. 新羅人장보고, 去年十二月進馬鞍等. 寶高是爲他臣. 敢輒致貢. 稽之旧章, 不合物宜. 宜以禮防閑, 早從返却. 其隨身物者, 任聽民間令得交關. 但莫令人民違失沽價, 競傾家資. 亦加優恤, 給程糧, 並依承前之例.

(《續日本後紀》 承和 8年(841) 2月 27日條)

라고 일본에 통교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종래에 신라상인에게서 받고 있던 【奥村佳紀 1971, 李侑珍 2004】 貢獻物 수납도 거부되고 단지 교역만은 인정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장보고가 이러한 요청을 했던 배경으로는 그때 쯤 이미 장보고는 지위의 안정을 외부 권력에 요구해야만 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다 【山崎雅稔 2001a-5, 森公章 2008b-224~225】.

그 후에 장보고는 山東半島의 동쪽 끝에 설치된 新羅坊에 赤山法華院을 조영하고 있고(《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4年〈承和 6年, 839〉 6月 7日條), 承和 遣唐使의 일원으로 唐에 간 후 唐에 남아있던 円仁은 開成 5년(840) 2월 17일, 青海鎮 大使(장보고)에게 法華院에서 체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대한 인사와 출국 시에 筑前守小野末嗣가 장보고에게 보낸 서한을 唐土를 목전에 두고 배가 침몰했을 때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죄를 하는 서한을 보냈다(《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5年〈承和 7年, 840〉 2月 17

日條). 이것으로 보아 장보고와 大宰府 근방의 官人들과의 사이에는 사적인 통교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고, 그것은 뒤에 나오는 文室宮田麻呂에 의한 화물 억류 사건에 의해 보다 분명해 진다.

그리고 承和의 遣唐使 자신도 동승하고 있던 신라 통역 金正南의 활약으로 9척의 신라 배를 수배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겨우 귀국할 수 있었다. 唐에 잔류하여 후에 마찬가지로 신라 배로 귀국한 円仁에 대해서는 그의 일기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대한 【Reischauer 1955·1963, 小野勝年 1964】, 그리고 【白化文·李鼎霞·許德楠 2007】 등의 주석적 연구와 【足立喜六譯注 1970·1985】가 한문을 훈독하여 일본어의 순서대로 읽고 주를 달았고, 【深谷憲一 1990】의 현대어 번역문에서 円仁和 신라인과의 교섭을 언급하고 承和의 遣唐使 전반을 다룬 【佐伯有清 1978】과, 【石井正敏 1979·1985·1994, 金文經 2001, 酒寄雅志 2005】 등의 연구에서 円仁和 장보고를 포함하는 신라인과의 교류가 검토되었다³⁹⁾. 특히 신라 譯語라고 불렀던 劉愼言(楚州新羅譯語, 후에 新羅坊惣管), 張詠(登州新羅通事, 勾當新羅所押衙平盧軍節度同十將), 金正南(第1船 新羅譯語), 道玄·朴正長(모두 第2船 新羅譯語)에 대해서는 【坂上早魚 1988】이 있고, 그리고 円仁이 山東半島에서 귀국한 후에 勸請했다고 하는 新羅明神에 대해서는 【辻善之助 1915】 이래 많은 논고에서 다루고 있다⁴⁰⁾.

장보고는 神武王의 아들 文聖王(재위 839~857)의 후궁으로 딸을 들여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반란을 일으켜 841년 11월에 암살된다. 이미 承和 8년(841) 3월 28일에는

詔曰. (중략)大宰府者, 匪亶古來鎮遏之區, 兼復當時怪見之地也. 最須先慎以備不虞. 布告遐邇, 俾知朕意.

또 承和 8년(841) 8월 19일에는

以大宰府曹百四口充對馬嶋. 兼充防人.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날에는

39) 오래된 연구로는 【今西龍 1933, 那波利貞 1954~6, 日野開三郎 1960, 內藤雋輔 1961】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 【佐伯有清 1964, 新川登龜男 1993】도 참조.

40) 【春山武松 1931, 倉田文作 1963, 岩佐貫三 1965, 宮井義雄 1992, 伊東史朗 1996, 高梨純次 1998, 山本勉 1998, 黒田智 2001, 宮家準 2002】 등.

勅曰. 聞. 下大宰府驛傳官符并彼府言上解文, 路次諸國·長門關司等, 每各開見. 縱國裏機急, 境外消息, 不可必令万民咸知. 而解文委曲未來京華, 下符辭狀無達宰府, 載記之旨諠譁民間, 途說之輩滿溢內外. 寔是專輒開見所致之漸也. 宜告山陽道諸國司更莫令然. 亦四畿六道之內, 指一ヶ國所下之符, 同無令開.

라고 나와 있는 점으로 보아(모두 《續日本後紀》, 또 《類聚三代格》 卷17 承和 8년 8월 20일 官符 ‘應禁止開見驛傳馬符并言上解文事’도 참조), 【山崎雅稔 2001a-6】은 장보고의 세력이 안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정보가 일본에 상당히 빨리 전달되어, 이에 대한 정보 관리의 강화를 포함한 현실적인 대응을 피했었던 것이라고 한다. 장보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술되어 있듯이 承和 9년(842) 정월에는 일본 정부가 알게 되었다.

新羅人李少貞等卅人, 到筑紫大津. 大宰府遣使問來由. 頭首少貞申云. 장보고死, 其副將李昌珍等欲叛亂, 武珍州[別駕인지]列賀閻丈興兵討平, 今已無虞. 但恐賊徒漏網, 忽到貴邦, 擾亂黎庶. 若有舟船到彼不執文符者, 並請切命所在推勘收捉. 又去年廻易使李忠·揚円等所齎貨物, 乃是部下官吏及故장보고子弟所遺, 請速發遣. 仍齎閻丈上筑前國牒狀參來者. 公卿議曰. 少貞曾是寶高之臣, 今則閻丈之使. 彼新羅人, 其情不遜. 所通消息, 彼此不定. 定知, 商人欲許交通, 巧言攸稱. 今覆解狀云. 李少貞齎閻丈上筑前國牒狀參來者. 而其牒狀無進上宰府之詞, 無乃可謂合例. 宜彼牒狀早速進上. 如牒旨無道, 附少貞可返却者. 或曰. 少貞今既託於閻丈, 將掠先來李忠·揚円等. 謂去年廻易使李忠等所齎貨物, 乃是故寶高子弟所遺, 請速發遣. 今如所聞, 令李忠等与少貞同行, 其以迷獸投於餓虎. 須問李忠等, 若嫌与少貞共歸, 隨彼所願, 任命遲速. 又曰. 李忠等廻易事畢, 歸向本鄉. 逢彼國亂, 不得平著, 更來筑前大津. 其後於呂系等化來云. 己等장보고所攝島民也. 寶高去年十一月中死去, 不得寧居. 仍參着貴邦. 是日, 前筑前國守文室朝臣宮田麻呂, 取李忠等所齎雜物. 其詞云. 寶高存日, 爲買唐國貨物, 以繩付贈, 可報獲物. 其數不尠. 正今寶高死, 不由得物實. 因取寶高使所齎物者. 縱境外之人, 爲愛土毛, 到來我境. 須欣彼情令得其所, 而奪廻易之便, 絕商賈之權. 府司不加勘發, 肆令并兼. 非失買客之資, 深表無王憲之制. 仍命府吏, 所取雜物, 細碎勘錄, 且給且言. 兼又支給糧食, 放歸本鄉.

(《續日本後紀》 承和 9年(842) 正月 10日條)

이 기사에서 筑前守였던 文室宮田麻呂(承和 9年(840) 4月 6日任)가 장보고에게 적지 않은 자금을 맡기고 唐國의 화물을 구입하려고 했던 점, 그런데 장보고가 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의 부하였던 李忠 등이 가지고 있던 재화를 압류했던 점, 그러나 그 행위는 일본 정부로부터 비판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大宰府 근방의 官人들에 의한 사적인 상행위가 발각된 것이다. 承和 10년(843) 12월에는 宮田麻呂가 모반 혐의로 고발당해 左右衛門府에 구금되고 죄를 한 단계 낮춰 주어, 본인은 伊豆國에, 두 아들은 각각

佐渡·土左國에 유배되었다. 貞觀 5년(863)에 神泉苑에서 개최된 御靈會에서는 그가 위령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그의 모반 사건은 무고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무고한 죄의 배후에는, 신라·唐과의 상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되고 있다⁴¹⁾. 그리고 사건은 단순한 사교역 적발이 아니라(사교역 자체는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渡邊誠 2005, 森公章 2008b-227】 과 같이 宮田麻呂는 중앙의 內藏寮에서 파견된 교역 담당 특사였는데 그가 화물을 계속 억류했고, 게다가 李少貞이 계속 大宰府에 체재했기 때문에 신라의 내정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內豎를 파견하여 藏人所에 소환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장보고의 서거에 따른 일본과 신라 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承和 9년(842) 8월, 大宰府의 사실상의 長官이었던 大宰大貳 藤原衛는 四箇條의 제안을 정부에 올렸다. 그 第1條는

新羅朝貢, 其來尙矣. 而起自聖武皇帝之代, 迄于聖朝, 不用旧例, 常懷姦心, 苞苴不貢. 寄事商賈, 窺國消息. 望請, 一切禁斷, 不入境內.

였다(《類聚三代格》 卷18 承和 9년 8월 15일 官符. 《續日本後紀》 同年 8월 15日條도 약간 字句의 차이가 보이지만 거의 같음 【渡邊誠 2003】).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德澤泊遠, 外蕃歸化. 專禁入境, 事似不仁. 宜比于流來, 充糧放還. 商賈之輩, 飛帆來著, 所齎之物, 任聽民間令得廻易, 了即放却. 但不得安置鴻臚館以給食.

으로 신라인이 오면 표류에 준하여 귀국시키고 귀화를 원하는 자도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역은 민간 교역만을 허가하지만(정부에서 매입은 하지 않음), 鴻臚館에서의 安置 공급은 인정하지 않고 거래가 끝나면 바로 귀국시킨다고 하는 것이었다 【山內晋次 1990, 山崎雅稔 2001a-4, 渡邊誠 2003, 森公章 2008b-229】 . 이 조치가 선택된 배경에는 군사적인 긴장과 신라와의 무역이 위기에 처하자 교역의 가능성을 남겨놓으면서도 신라국의 혼란이 일본 국내로 파급되는 것을 가능한 한 막으려고 했던 일본의 방침이 있었다고 추측되지만 【石上英一 1984-262, 山崎雅稔 2001a-3~7】 ⁴²⁾, 어찌되었든 여기서

41) 文室宮田麻呂 사건에 대해서는, 【戶田芳實 1967, 松原弘宣 1994, 1998-337, 1999, 李成市 1997-168~170, 山崎雅稔-1999, 保立道久2004】 등을 참조.

42) 【佐伯有清 1964】 는 여기예다가 신라인은 각지에 新羅坊을 두고 울령국가에 반항하는 경향이 있는 점, 및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있던 신라가 大國과의 관계를 반영한 排外思想을 추가로 거론

‘歸化’를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 자신이 명목상 국제사회 속에서 설정하였던 위치, 즉 德化思想을 동반하는 小中華思想의 포기라는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石上英一 1984-263】.

원래 일본 율령국가에 있어서 ‘歸化’는 당초부터 功利的인 관점에서 이용되어, 7세기 후반에는 다수의 신라·백제·고구려로 부터의 이민을 東國을 중심으로 하는 미개척지에 자리 잡고 살게 하여 선진 개발기술을 발휘시키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大津透 1987】.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中華思想에 준하여 王化를 우러러 일본에 온 자를 처우한다는 방침을 버리고 단순한 표착민은 국경을 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功利的인 관점에서의 선별이 노골적으로 발현된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지만 弘仁 11년(820)에는

配遠江·駿河兩國新羅人七百人反叛. 殺人民, 燒屋舍. 二國發兵擊之, 不能勝. 盜伊豆國穀, 乘船入海. 發相模武藏等七國軍, 勦力追討, 咸伏其辜.

라는 사건이 일어나(《日本後紀》 逸文 弘仁 11年(820) 2月 13日條(《日本紀略》) 귀화했다는 것으로, 일본 국내에 있던 신라인들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가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藤原衛의 起請 후 사료 상으로는 일본에 오는 신라 상인은 감소하고 그 대신에 ‘唐國 상인’ ‘唐商’들이 증가한다⁴³⁾. 이에 대해서는 신라 상인과 唐 상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일본 측이 신라에 대한 경계를 강화시키고 唐에 거점을 두고 있는 海商과의 관리 무역을 추진하게 되었고【松原弘宣 1999, 渡邊誠 2003】, 한편 唐商 쪽도 신라인과의 연계와 唐 국내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과 교역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吳玲 1999, 李侑珍 2004, 田中史生 2007-5】 실제로 교

하고, 【松原弘宣 1999-380】은 신라 상인의 鴻臚館 安置를 거절하고 唐 상인과의 교역을 우선시했던 것은 신라 상인과 西海道 지방관과 호족들의 사교역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43) 遣唐使를 따라 오는 사람들 이외에 唐人的 來日가 처음 보이는 것은 ‘新羅人船’을 타고 온 ‘大唐 越州人 周光翰·言升則 등’이고(《日本紀略》 弘仁 6年(815) 11月 壬戌條), 다음은 承和 원년에 大宰府에 있던 ‘唐人 張繼明’이지만(《續日本後紀》 承和 元年(834) 3月 丁卯條)【森公章 2008-212~213, 243】, 분명히 상인이며 표류하다가 온 것이 아닌 예로는, 承和 9년(842) 5월 5일에 博多를 출항하여 唐으로 돌아가는 ‘大唐商客’ 李處人(<安祥寺伽藍緣起資財帳> 《平安遺文》 164호)이 있으며, 일찍이【森克己 1949-214】가 거론했던 같은 해에 일본에 오는 李麟德은 唐海商이라고 하는 확증이 없다【榎本涉 2007-82·92】.

역의 주체가 신라 상인에서 唐商으로 변화했다는 견해【山崎雅稔 2001a-7】이 있는 한편, 무역을 통한 이윤을 중시하는 현지 관인들이 來航者를 ‘唐人’ ‘唐國商人’으로서 대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藤原衛의 起請 취지가 무시되었다는 견해【村上史郎 1999】, 혹은 唐海商이란 唐에서 일본으로 오는 海商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민족적인 구분으로 말하자면 신라인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의 太政官符 아래에 불리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생겨났기 때문에 在唐 신라인이 의도적으로 唐海商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다고 하는 견해【黃約瑟 1993, 榎本涉 2007-87】이 있다. 실제로 仁壽 3년(853)에 당에 간 圓珍은 ‘大唐商人’ 王超의 배를 같이 타고 갔다는 기술도 있는 한편(《平安遺文》 102·103호에 “大唐商客王超·李延孝”라고 나옴), 王超를 신라 상인이라고 한 사료도 있고(《平安遺文》 124호에 “新羅商主王超”라고 나옴), 또 《入唐求法巡禮行記》 大中 元年(847) 6月 9日條에 ‘新羅人’이라고 나온 金珍이 同記 承和 14年 10月 19日條에서는 ‘唐人 金珍’으로 나오는 등 이른바 唐 상인 중에는 실제로는 唐에 근거지를 둔 신라 상인이 포함되어 있었거나 唐 상인과 신라 상인이 동일 선단을 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小野勝年 1964-四-407~8, 渡邊誠 2003, 榎本涉 2007-82~85, 田中史生 2007-8, 森公章 2008b-239~240】. 이 점은 일찍이 李少貞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弘仁 11년(820)에는 唐人이라고 하는데(《日本紀略》 弘仁 11年 4月 27日條에 “唐人李少貞等二十人漂着出羽國”이라함), 앞서 거론했듯이 承和 9년(842)에는 신라인이라고 되어 있다. 또 會昌 연간에 明州에서의 활동이 보이는 李麟德도 최근에는 在唐 신라인이라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坂上早魚 1988, 龜井明德 1991, 金文經 2001, 李侑珍 2004, 田中史生 2007-9~11】. 현실적으로 출신지·출항지·거래처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어도 상인 자체의 국적과 민족적인 귀속 내지는 船籍이라는 개념은 大宰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長江이남 특히 明州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인의 居留區·교역 거점이 각지에 전개되어 있었던 것이 후대의 사료이기는 하나 중국의 地方志류에 여기 저기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만 하고【田中史生 2007-6~8, 黃純艷 2008】, 신라 국내의 사회 혼란을 배경으로 하여 신라인의 국외이주가 시도되어【濱田耕策 1999】, 唐人과의 협업도 8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서【榎本涉 2007-87~88】, 9세기 중엽에 신라 海商에서 唐 海商으로 세력이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에는 회의적이고, 신라 海商-唐 海商-吳越 海商-宋 海商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주류라고 할 수 있다【榎本涉 2007-86~91】.

단, 8세기의 신라와의 교역에서는 綿이 대가로 사용되고 있고, 9세기에 들어서도 앞

서 다루었던 文室宮田麻呂는 대가로서 絁를 주고 있고, 신라 해적선도 貢綿船을 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에서는 綿(眞綿)과 絹 등의 섬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日本三代實錄》 元慶 元年(877) 12月 8日條에는

先是, 大宰府言. 資財·蕃客·遣唐使留置返上等四箇帳, 貢綿千一百五十二屯, 徒積庫底, 將致腐損. 請相博沙金五百七十二兩, 以爲永貯. 至是許之.

라고 나와 大宰府에 축적되어 있는 綿이 교역에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承和 9년 이후에도 민간과의 교역은 인정되고 있었지만, 藤原衛의 제의로 인해 신라 상인을 大宰府의 鴻臚館에 安置하지 않게 되고 綿을 이용하는 신라와의 공교역이 감소했던 것과 대응하고 있다는 【皆川雅樹 2002-27~28】의 지적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공교역의 상대는 “大宰府馳驛言上. 大唐商人五十三人多齎貨物, 駕船一隻來著”(《續日本後紀》 嘉祥 2年(849) 8月 4日條) 이래 명목상 唐商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松原弘宣 1999-366~368】. 그리고 일본 측에서 파악하는 호칭은 변화했다고 해도 일본의 수입품은, 예를 들어 도자기에 대해 말하자면, 신라제품이 아닌 唐제품이므로 수요의 중심은 唐 제품 내지는 唐에서 유통되고 있는 南海產品으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榎本涉 2007-93】.

承和 12년 말에는 “大宰府馳驛言. 新羅人齎康州牒二通. 押領本國漂蕩人五十余人來著”(《續日本後紀》 承和 12年(845) 12月 5日條)라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青海鎮 大使 장보고의 암살을 계기로 혼란 상태에 빠졌던 해상의 질서는 대충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大中 元年(847)에 귀국하기 위해 신라 배를 타고 있던 円仁은 한반도 서해안의 불온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서(《入唐求法巡禮行記》 大中 元年 9月 6日條, 同 8日條), 신라 주변 해역의 수상 교통로는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고, 이를 계기로 在唐 신라인의 거점 자체가 江南지역으로 이동했고, 때마침 會昌廢仏의 영향이 조금 약했던 江南지역의 唐商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견해를 【田中史生 2007-16~26】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9세기 전반에 在唐 신라인들이 浙東·江蘇·山東·한반도·北部 九州에서 구축했던 동지나해 해역의 네트워크는 宋元시대의 海商에게 넘어가서 동지나해 해역 상권으로 계속되었지만, 在唐 신라인 사회는 10세기의 吳越 때까지는 존속하나 고려의 무역통제로 인해 宋代가 되면 자취를 감추게 된다 【榎本涉 2001, 2007-81~2, 90】.

그리고 藤原衛에게 있어서 신라는 이미 사실상 국교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본에 조공을 해야 하는 나라이며, 그 본래의 형태가 무너진 것은 8세기 전반의 聖武朝(724~749)이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쪽의 틈을 노리는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藤原衛가 가리키는 聖武朝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거론했던 일본과 신라와의 관계사를 참조해 보면, 앞서 거론했던 天平 7년 신라 국사가 자신의 本國을 ‘玉城國’이라고 하여 귀국 조치를 당하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천황 서거로 인해 服喪 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신라사가 大宰府에서 귀국 조치에 처해진 적은 있었지만, 신라사의 언동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귀국 조치를 당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3. 貞觀 연간의 신라 해적선의 습격과 王土王臣思想

承和 12년(845)에는 앞서 거론했듯이 “大宰府馳驛言. 新羅人齎康州牒三通, 押領本國漂蕩人五十余人來着”(《續日本後紀》 承和 12年 12月 5日條)라는 기사가 보이고 또 일본에 흘러들어온 신라인에 관해서도, “大宰府奏言. 新羅人卅人漂著此岸. 稟糧放歸”(《文德實錄》 齊衡 3年(856) 3月 9日條), 또 “先是, 大宰府言. 新羅沙門元著·普嵩·清願等三人, 着博多津岸. 至是勅安置鴻臚館, 資給糧食, 待唐人船, 令得放却”(《日本三代實錄》 貞觀 5年(863) 4月 21日條), 그리고 “因幡國言. 新羅國人五十七人, 來着荒坂濱頭. 略似商人. 是日, 勅給程糧, 放却本蕃”(《日本三代實錄》 貞觀 5年(863) 11月 17日條), “先是. 去年新羅國人卅余人漂着石見國美乃郡海岸. 死者十余人, 生者廿四人. 詔國司給程糧放却”(《日本三代實錄》 貞觀 6年(864) 2月 17日條)라고 나오고, 또 신라에서도

卯時, 到武州南界黃茅島泥浦泊船. 亦名丘草島. (중략)少時, 守島一人, 兼武州太守家投鷹人二人來船上, 語話云(중략)四月中, 日本國對馬島百姓六人, 因釣魚漂到此處. 武州收將去, 早聞奏訖. 至今勅未下. 其人今在武州囚禁, 待送達本國. 其六人中一人病死矣.

(《入唐求法巡禮行記》 大中 元年(847) 9月 6日條)

라고 나와 있듯이⁴⁴⁾, 대체로 貞觀 연간 전반까지는 표류민의 상호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

44) 여기서 보이는 ‘囚禁’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山内晋次 1990-98】은 관청의 엄중한 감시 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당시의 일본과 신라 간의 긴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村上史郎 1998】은 일련의 송환 수속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下代 말기인 9세기 후반에는 국내의 혼란이 심각해져가고 아마도 그 정보와 관련된 형태로 貞觀 8년 이후 일본 관인과 신라와의 通謀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테면 貞觀 8년에는

大宰府馳驛奏言. 肥前國基肆郡人川辺豊穂告. 同郡擬大領山春永語豊穂云. 与新羅人珍賓長, 共渡入新羅國, 熹造兵弩器械之術, 還來將擊取對馬島. 藤津郡領葛津貞津・高來郡擬大領大刀主・彼杵郡人永岡藤津等, 是同謀者也. 仍副射手冊五人名簿進之.

(《日本三代實錄》 貞觀 8年 7月 15日條)

라고 나와 肥前國 諸郡의 郡領 급에 있는 자들이 신라와 通謀한 것을 동료가 고발하고 있다. 그 진위의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지만, 【田中正日子 1989】는 신라를 해적으로 간주하고 현해탄 주변의 해상 방비를 강화하려고 했던 大宰府에 대항하여 여기서 적발된 郡領氏族은 신라 상선과의 사적 교역 루트(有明海 루트)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이어 貞觀 8년 중에는

太政官論奏曰. 刑部省斷罪文云. 貞觀八年隱岐國浪人安曇福雄密告. 前守正六位上越智宿祢貞厚, 与新羅人同謀反造. 遣使推之, 福雄所告事是誣也. 至是法官覆奏. 福雄應反坐斬. 但貞厚知部內有殺人者不舉. 仍應官當者. 詔. 斬罪宜減一等處之遠流. 自余論之如法.

(《日本三代實錄》 貞觀 11年 10月 26日條)

라고 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어서, 隱岐國守와 신라와의 通謀에 관해서는 무고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지만 그런 무고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서 당시 신라와의 긴장관계를 엿볼 수 있다. 【松原弘宣 1999-384~385】는 越智貞厚를 仁壽 3년 2월 11일 大宰府牒(《平安遺文》 102호)에 보이는 ‘大典越’ ‘貞原’과 동일인물이라고 보고 원래 대외 교통에 대한 관여가 있었고 이에 대해 ‘浪人安曇福雄’은 그姓을 보면 해상교통과 교역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양자의 이해가 대립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시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貞觀 11년(869)에 일어난 아래의 사건이었다⁴⁵⁾.

45) 신라 해적 사건에 대해서는 【遠藤元男 1966, 平野邦雄 1970, 生田滋 1991, 山崎雅稔 2000, 2001】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大宰府言. 去月廿二日夜. 新羅海賊, 乘二艘, 來博多津, 掠奪豊前國年貢絹綿, 即時逃竄. 發兵追, 遂不獲賊.

(《日本三代實錄》貞觀 11年 6月 15日條)

사건에 경악했던 大宰府와 일본정부는

先是. 大宰府言上. 往者新羅海賊侵掠之日, 差遣統領選士等, 擬令追討. 人皆懦弱, 憚不肯行. 於是調發俘囚, 御以膽略. 特張意氣, 一以當千. 今大鳥示其怪異, 龜筮告以兵寇. 鴻臚中島館并津廚等, 離居別處, 無禦侮. 若有非常, 難以應猝. 夷俘分居諸國, 常事遊. 徒免課役, 多費官糧. 請配置處分, 以不虞. 分爲二番. 番別百人, 每月相替, 交相駢役. 其糧者, 諸國所舉夷俘利稻之內, 每國令運輸, 以給其用. 至是, 勅曰. 俘夷之性, 本異平民. 制御之方, 何用恒典. 若忽離旧居, 新移他土, 衣食無續, 心事反常. 則野心易驚, 遂致猜變. 宜簡典有謀略者, 令其勾當, 并統領選士幹事者, 以爲其長. 勉加綏誘, 能練武衛. 設有諸國糧運闕如, 卽須府司廻撥支濟. 又以百人爲一番, 居業難給, 轉餉多煩. 宜五十人爲一番.

(《日本三代實錄》同年 12月 4日條)

이라며 俘囚을 동원하여 博多灣 일대의 방비를 굳건히 하고 이와 함께 伊勢大神宮에 사자를 파견하여 奉幣하고 다음과 같은 告文을 진상하게 했다.

天皇我詔旨止, 掛畏岐伊勢乃度會宇治乃五十鈴乃河上乃下都磐根爾大宮柱廣敷立, 高天乃原爾千木高知天稱言竟奉留天照坐皇大神乃廣前爾, 恐美恐美毛申賜倍止申久. 去六月以來, 大宰府度々言上多良久. 新羅賊舟二艘筑前國那珂郡乃荒津爾到來天豊前國乃貢調船乃絹綿乎掠奪天逃退多利. 又廳樓兵庫等上爾依有大鳥之怪天卜求爾, 隣國乃兵革之事可在止卜申利. 又肥後國爾地震風水乃有天, 舍宅悉仆顛利. 人民多流亡多利. 如此之比古來未聞止, 故老等毛申止言上多利. 然間爾, 陸奧國又異常奈留地震之言上多利. 自余國々毛, 又頗有件止言上多利. 傳聞. 彼新羅人波我日本國止久岐世時利相敵美來多利. 而今人來境內天奪取調物利天無懼沮之氣. 量其意況爾兵寇之萌自此而生加. 我朝久無軍旅久專忘警多利. 兵亂之事尤可慎恐. 然我日本朝波所謂神明之國奈利. 神明之助護利賜波, 何乃兵寇加可近來岐. 況掛毛畏岐皇大神波, 我朝乃大祖止御座天, 食國乃天下乎照賜比護賜利. 然則他國異類乃加侮致亂倍岐事乎, 何曾聞食天驚賜比拒却介賜波須在牟. 故是以王從五位下弘道王·中臣雅樂少允從六位上大中臣朝臣冬名等乎差使天, 禮代乃大幣帛遠, 忌部神祇少祐從六位下齋部宿祢伯江加弱肩爾太襪取懸天, 持齋令捧持天奉出給布. 此狀乎平介久聞食天, 假令時世乃禍亂止之天, 上件寇賊之事在倍岐物奈利止毛, 掛毛畏支皇大神國內乃諸神達乎毛唱導岐賜比天, 未發向之前爾沮拒排却賜倍. 若賊謀已熟天兵船必來倍久在波, 境內爾入賜須天之, 遂還漂沒女賜比天, 我朝乃神國止畏憚禮來禮留故實乎澆多之失比賜布奈. 自此之外爾, 假令止之天夷俘乃造謀叛亂之事, 中國乃刀兵賊難之事, 又水旱風雨之事, 疫癘飢饉之事爾至万天爾, 國家乃大禍·百姓乃深憂止毛可在良牟乎波, 皆悉未然之外爾拂却鎖滅之賜天, 天下無躁驚久, 國內平安爾鎮護利救助賜比皇御孫命乃御休乎, 常磐堅磐爾與天地日月共爾, 夜護晝護爾護幸倍於奉給倍止, 恐美恐美毛申賜久止申.

(《日本三代實錄》 同年 12月 14日條)

이 宣命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日本朝는 이른바 神明의 나라다”라고 중세에 이은 神國사상이 표현되었다【村井章介 1995】.

이 사건에 이어서 貞觀 12년에는,

筑後權史生正七位上佐伯宿祢眞繼奉進新羅國牒. 卽告大宰少貳從五位下藤原朝臣元利萬侶与新羅國王通謀欲害國家. 禁眞繼身付非遣使.

(《日本三代實錄》 貞觀 12年 11月 13日條)

勅大宰府. 追禁少貳藤原朝臣元利萬侶·前主工上家人·浪人清原宗繼·中臣年曆·興世有年等五人. 以從五位下行大內記安倍朝臣興行, 爲遣大宰府推問密告使. 判官一人·主典一人.

(《日本三代實錄》 貞觀12年 11月 17日條)

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貞觀 12년 당시의 帥는 時康親王, 大貳는 參議 藤原冬緒라고 하는 陣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大宰府의 장관이라고 해도 좋은 大宰少貳라고 하는 元利萬侶의 지위로 보아 본 건에도 교역과 관련된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森公章 2008b-236】은 같은 시기에 마찬가지로 少貳로 대신라 강경과였던 坂上瀧守과의 대립을 상정하고 있다. 한편 【渡邊誠 2007】은 신라와의 교역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북부 九州의 부호층에 의해 元利萬侶가 실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松原弘宣 1998-359~360】은 일찍이 円珍이 歸京했을 때에 天安 2년(858) 12월 28일, 藤原良相가 円珍에게 위문을 하기 위해 이 元利萬侶를 파견하고 있다는 점(《行歷抄》 293p. 《大日本仏教全書》遊方傳叢書第一, 仏書刊行會, 1915年. 大法輪閣復刊, 2007年)도 참조하고, 良相·円珍·伴善男으로 이어지는 대외무역(단, 唐에 주안점을 둠) 확대파의 존재를 지적한다. 良相이 貞觀 9년에 서거했다는 점, 應天門의 變 때에 良相과 형인 良房이 대립관계에 있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여 숙청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松原弘宣 1999-385】.

貞觀 12년에는,

先是, 大宰府言. 對馬島下縣郡人卜部乙屎麻呂, 爲捕鳥, 向新羅境. 乙屎歷爲新羅國所執, 囚禁土獄. 乙屎歷見彼國挽運材木, 搆作大船, 擊鼓吹角, 簡士習兵. 乙屎歷竊問防援人, 曰. 爲伐取對馬島也. 乙屎歷脫禁出獄, 纔得逃歸. 是日, 勅. 彼府去年夏言. 大鳥集于兵庫樓上. 決之卜筮, 當夏隣兵. 因, 頒幣轉經, 豫攘. 如聞. 新羅商船時々到彼, 縱託事賈販, 來爲侵暴. 若無其, 恐同慢藏. 況新

羅凶賊心懷覬覦，不收尾。將行毒螫。須令緣海諸郡特慎警固。又下知因幡·伯耆·出雲·石見·隱岐等國，修守禦之具焉。

(《日本三代實錄》貞觀 12年 2月 12日條)

이라며 對馬島民이 신라가 對馬侵攻計畫을 세우고 있다고 통보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어서 大宰府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류민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심문을 한 다음 모두 放還하게 되었다.

勅大宰府。新羅人潤清·宣堅等卅人及元來居止管內之輩，水陸兩道給食馬入京。先是彼府言。新羅凶賊掠奪貢綿，以潤清等處之嫌疑，禁其身奏之。太政官處分。殊加仁恩，給糧放還。潤清等不得順風，无由歸發其國。對馬嶋司進新羅消息日記并彼國流來七人。府須依例給糧放却。但爾新羅，凶毒狼戾，亦洒者對馬嶋人卜部乙屎麿，被禁彼國，脫獄遁歸，說彼練習兵士之狀。若彼疑洩語，爲伺氣色差遣七人，詐稱流來歟。凡垂仁放還，尋常之事，挾奸往來，當加誅儻。加之，潤清等久事交關，僑寄此地，能候物色，知我无備。令放歸於彼，示弱於敵，既乖安不忘危之意。又從來居住管內者，亦復有數。此皆外似歸化，內懷造謀。若有來侵，必爲內應。請准天長元年八月廿日格旨，不論新旧，併遷陸奧之空地，絕其覬覦之心。從之。

(《日本三代實錄》貞觀 12年 2月 20日條)

先是大宰府言。去九月廿五日，新羅人卅二人，乘一隻船，漂着對馬嶋岸。嶋司差加使者送府。即禁其身，着鴻臚館。是日勅曰。新羅人挾年久，兇毒未悛。疑亦流着之休，構候隙之謀。宜重加搜，審覈情狀，早令放歸。

(《日本三代實錄》貞觀 15年 12月 22日條)

先是，大宰府上言。新羅人金四·金五等十二人，駕船一艘，漂着對馬嶋。至是勅府司問來由，早從放還。

(《日本三代實錄》貞觀 16年 8月 8日條)

이 기간에는 征夷경험이 있는 군사 관료를 大宰府에 임명하는 조치도 취하는 등 【關幸彦 1989】 경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습격한 것은 불과 2척의 신라선이었지만, 이렇게 경계를 한 배경에는 신라 해적의 현실적인 위협과 【旗田巍 1962】 내통하는 신라인 세력의 존재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일본인이 있었다 【松原弘宣 1999-383~86】 .

4. 고려 건국·신라 멸망과 일본

元慶 연간에도 여전히 일본 측의 긴장은 계속되었지만 【太田英比古 1974】 , 신라에서

漂着民이 오는 것은 일단락되고 있었다. 仁和 원년(885)에는 新羅國使라고 칭하는 자가 執事省의 牒이라고 칭하는 물건을 지참하고 肥前肥後國 天草郡에 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국서의 형식은 물론 종래의 執事省牒의 형식도 참조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放還된 사실을 아래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大宰府言. 去四月十二日, 新羅國判官徐善行·錄事高興善等四十八人, 乘船一艘, 來着肥後國天草郡. 問其來由, 答曰. 前年漂蕩, 適着海岸, 蒙給官糧, 得歸本鄉. 今奉賀仁恩, 賚國牒信物等來朝者. 今檢, 寄事奉賀, 牒貨相兼. 只有執事省牒, 无國王啓. 其牒不納函子, 以紙裹之. 題云. 新羅國執事省牒上日本國, 其上踏印五字. 謹案先例, 事乖故實. 仍寫牒并錄貨物數進上. 勅. 新羅國人, 包藏禍心, 窺覷家國. 雖寄事於風波, 然猶疑其毒螫. 須懲其姦匿, 以從重法. 然而, 朝家好仁, 不忍爲之, 在宥放還, 然其首領矣.

(《日本三代實錄》 仁和 元年 6月 20日條)

신라 해적인 跳梁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던 것은 寬平 연간에 들어서부터이다. 寬平 5년(893) 5월 (《日本紀略》 同月 22日條)에서 6년간에 걸쳐서는 《日本紀略》 寬平 5年 5月 22日條, 閏 5月 3日條, 6月 20日條, 同 6年 2月 22日條, 3月 13日條, 4月 14日條, 4月 17日條, 5月 7日條, 9月 19日條, 9月 20日條, 10月 6日條 와 같이 종종 신라 해적의 동향이 기술되고 있고, 이에 대해 특히 山陰道 제국에 대해서는 新羅賊心調伏의 修法, 弩師 설치, 防人(역주: 北九州 등 변방 경비병) 差遣, 烽燧 설치 등의 대응책이 취해졌다. 그리고 大宰府管內에 거주하던 신라인을 제국으로 移配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關幸彦 1989, 石井正敏 2001a】. 이러한 가운데 신라에서 오는 漂流民에 대한 조치도 엄격해져서 신병을 엄중하게 구속하고 심문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山内晋次 1990- 77~78】.

이러한 일련의 기사 속에서도 《扶桑略記》 寬平 6年(894) 9月 5日條는 신라 해적의 상세한 실정과 그 배경으로 신라왕의 흑독한 징세 【石井正敏 2001a】, 그리고 일본 측의 방위 태세를 기술한 것으로 유명하다.

對馬島司言新羅賊徒船四十五艘到着之由. 大宰府同九日進上飛驒使. 同十七日記曰, 同日卯時, 守文室善友召集郡司·士卒等, 仰云, 汝等若箭立背者, 以軍法將科罪, 立額者, 可被賞之由言上者. 仰訖, 卽率列郡司士卒, 以前守田村高良令反問, 卽島分寺上座僧面均·上縣郡副大領下今主爲押領使, 百人軍各結廿番. 遣絕賊移要害道. 豐圓春竹卒弱軍四十人, 度賊前. 凶賊見之, 各銳兵而來向善友前. 善友立楯令調弩, 亦令亂聲. 時凶賊隨亦亂聲射戰, 其箭如雨. 見賊等被射并逃歸, 將軍追射. 賊人迷惑, 或入海中, 或登山上. 合計射殺三百二人. 就中大將軍三人·副將軍十一人. 所收

雜物, 大將軍縫物甲冑·貫革袴·銀作太刀·纏弓革·胡籙·苑夾·保呂各一具. 已上附脚力多米常繼進上. 又奪取船十一艘, 太刀五十柄·杵千基·弓百十張·胡籙百十·房楯三百十二枚. 僅生獲賊一人. 其名賢春. 即申云. 彼國年穀不登, 人民飢苦, 倉庫悉空, 王城不安. 然王仰爲取穀絹, 飛帆參來. 但所在大小船百艘, 乘人二千五百人. 被射殺賊其數甚多. 但遣賊中, 有最敏將軍三人. 就中有大唐一人. 已上日記.

이러한 신라 해적의 활동의 배경에는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聖王 2年(888) 2月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眞聖女王 치정 하에서 왕권의 동요, 《三國史記》3年條와 列傳 甄萱條에서 보이는 국내 통치의 혼란이 있었다【森公章 2008c-3】.

신라에서는 9세기 말에 각지에서 군벌이 세력을 펼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 중에서는 892년(일본의 寬平 4년)에 武珍州(光州)에서 독자적인 기반을 성립한 甄萱이 完山州(全州)를 도읍으로 정하고 스스로를 후백제왕이라 칭했다(900년, 일본의 昌泰 3년). 한편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자칭한 弓裔는 901년(일본의 延喜 원년)에 松岳(開城)에서 독립된 기반을 성립하여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弓裔가 세운 나라는 후에 摩震(904~), 그 후 泰封(911~)이라고 개명하고 도읍도 鐵原(江原道)으로 옮기는데, 이렇듯 慶州에 잔존하고 있던 신라를 포함하여 후삼국시대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윽고 이러한 鼎立 상태는 弓裔의 부하로 開城 출신인 王建에 의해 해소된다. 王建은 918년(일본의 延喜 18년)에 弓裔를 무너뜨리고 왕위에 앉게 되고 고려 왕조의 성립을 선언, 다음해에는 開城을 도읍으로 정한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敬順王은 935년(일본의 承平 5년)에 고려에 항복하여 신라는 멸망하게 된다. 그 다음해에는 후백제도 멸망시키고 王建의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한다. 고려는 後梁과도 통교하고 있었지만, 933년에는 後唐의 책봉을 받고 그 이후 五代부터 宋에 걸쳐서 중국의 책봉체제 속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정하고 있었다. 이 시기 후백제의 甄萱과 고려의 王建이 遣日使를 파견한다【中村榮孝 1927, 森公章 2008c】.

한편 현재의 중국 동북지방에서 러시아령 沿海州 일대를 영토로 가지고 있던 발해가 거의 동 시기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렇게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일본 이외의 구성국인 唐·신라·발해가 모두 멸망하게 되면서 동아시아는 일시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일본왕조로서는 국제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한동안은 정세를 관망하기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 한참 빠져있던 한반도에서는 우선 延喜 22년(922)에, 당시 스스로를 후

백제왕이라고 칭하고 있던 甄萱이 파견한 부하인 輝岳 등이 對馬에 와서 일본에 대하여 表函(上表文을 넣은 상자)과 方物(특산품)을 보내려고 했다⁴⁶⁾. 그러나 이때는 신라의 大官으로서 일본과 교섭을 신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일본 측은 “朝天之禮, 陪臣何專”(《本朝文粹》 卷12 大宰府答新羅返牒 菅原淳茂作) 즉 외교는 왕의 전권 사항이므로 신라왕의 신하인 甄萱에게는 일본과 외교를 맺을 권한이 없다고 하고 사절을 對馬에서 귀국시켰다(《扶桑略記》 延喜 22年 6月 5日條에는 “對馬島新羅人到來. 早可從却歸之由, 官符給宰府了”라고 나옴).

후백제는 신라인과 唐人들이 형성하고 있던 해상 네트워크를 계승하고 있고 【北村秀人 1982b-57~8】, 甄萱은 延長 7년(929)에도 사절을 對馬로 파견하고 있지만 이때에도 일본 측은 이를

新羅甄萱使張彥澄等二十人, 來着對馬島. 持送大宰府司書狀并信物, 又送島守坂上經國書及信物等, 請向府. (하락)

(《扶桑略記》 延長 7年 5月 17日條)

라고 기록하고 있다. 실은 이보다 전인 동년 정월에 貪羅(濟州島)와의 사이에서 海藻를 교역하려고 하고 있던 신라의 배가 對馬에 漂着했던 것을 島守 經國이 보호하여 시중을 붙여서 全州까지 보내주었을 때 全州王인 甄萱이 수십 州를 併吞하여 ‘大王’이라고 칭하고 있는 사실과, 甄萱이 일본에 조공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알게 된 太政官은 “人臣無私, 何有逾境之好”라고 《春秋左氏傳》을 인용하여 甄萱으로부터의 조공 신청을 거절하고, 對馬島로부터는 “前救溺頂之危, 適成援助之慮. 非是求隣好, 唯爲重人生云々”이라고 전해 大宰大貳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人臣之義, 已無外交”라고 하는 서한을 보내어 사절을 귀국시켰다(《扶桑略記》 5月 21日條).

이렇게 甄萱의 사절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끝까지 신라의 大官으로서 통교와 조공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 같고⁴⁷⁾, 일본 정부로서는 신라국왕을 통하지 않는 교섭은 딱 잘라 거절한다고 하는 논리로 물렸던 것이다. 발해 멸망 후에 건국된 東丹國의 使者로 裴璆가 일본에 온 것은 그 해 말의 일이다. 드디어 甄萱은 고려에 항복하고(935년), 같은 해에 신라도 멸망한다. 甄萱의 뒤를 이은 아들 神劍은 936년에 고려에 항복하고 이로써 고려

46) 이하의 甄萱의 대일교섭에 대해서는 【山崎雅稔 2004, 石井正敏 2007】도 참조.

47) 【森公章 2008c-6】는 일본 측이 후백제가 독립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에 의해 한반도는 재통일된다. 결국 후백제 甄萱으로부터의 사절은 2번으로 끝났다.

이어서 사료에 나타나는 한반도에서 온 使者는 고려가 통일을 이룩한 다음 해(937)에 大宰府에 온 神秋連이라는 使者라고 전한다. 이 때 그는 고려의 왕이 조공을 일본에게 거절당한 것을 괴로워하고, 하다못해 선물을 헌상해서라도 조공에 준하는 형식을 취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결국 이 使者에 대해서는 大宰府에서 高麗國의 廣評省이라고 하는 중추관청 앞으로의 牒을 내주었다고 하는 것이 나온다(《日本紀略》 天慶 2年 3月 11日條). 그리고 동년 3월에는 武藏介源經基가 平將門의 모반을 奏上하여, 藤原秀郷 등이 다음 해 2월에 平將門을 멸망시킨다. 이러한 타이밍을 고려할 때 일본 조정의 고려와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번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는 京都에서 公卿들이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大宰府에서 상대국의 관청에 답장을 보내는 방식은 이후에도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되는 관례가 된다. 결국 천황의 명의로 발급하는 국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일본의 중추관청인 太政官이 발급하는 官牒이 되어야 하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출장기관 일 뿐인 大宰府에서의 사무적인 처리로서 상대국에 통지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후 일본과 고려 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과 吳越·宋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서 교환을 수반하는 정식 국교를 맺지 않게 된다.

9세기 말에 왕성하게 사료에 기록되었던 신라 해적의 동향은 10세기에 들어서면 급격하게 사료 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다. 이는 한반도 내부의 항쟁이 수습되어 가는 것과 대응하는 면이 있겠지만 일본 측의 사료 상황의 변화 즉 국사의 종언과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실태는 불분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延長 8년 太政官牒 ‘應擇補大宰府四王寺四僧事’(《政事要略》 卷56 交替雜事)에는 “方今怪異屢示, 告兵賊”, 《日本紀略》 承平 5年(935) 12月 30日條에는 “賜官符於大宰府. 殺害新羅人事”(《貞信公記》 逸文 承平 5年 12月 30日條도 참조)라고 나와 신라에 대한 경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일본과 발해의 관계 추이

제1절 奈良時代의 일본과 발해의 관계

—양국의 地位에 대한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7세기 말 聖曆 원년(698, 일본의 文武天皇 2년)에 大祚榮에 의해 건국된 振國(震國이라고도. 《日本後紀》 逸文 延曆 15年 4月 27日條(《類聚國史》 卷193)참조)는 開元 원년(713)에 大祚榮이 唐으로부터 渤海郡王으로 책봉되면서 발해라고 개칭했다. 그 발해는 함께 34회의 渤海使를 일본에 보냈고 일본에서도 13회의 遣渤海使를 파견하였다⁴⁸⁾.

초기의 渤海使로는 무관이 임용되고 있고 또 그들은 ‘結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石井正敏 1974, 古畑徹 1986ab】⁴⁹⁾, 760년대에는 문관 사절 파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세기 후반에는 군사를 포함하는 정치적인 통교에서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인 통교 쪽으로 비중이 옮겨 가고 있었던 것 같다 【鳥山喜一 1915, 末松保和 1933, 森克己 1951, 新妻利久 1969, 酒寄雅志 1979】.

일본과 발해와의 관계를 渤海使에 대한 賓禮방식의 변천, 渤海使의 來日 형태와 목적, 일본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森公章 2003-167~171】은 아래와 같이 시기 구분을 했다.

I. 唐·신라와 대립하던 발해가 일본에 접근한 시기〔神龜 4년(727)~天平勝寶 4년(752)〕

遣使는 10년에 1번 정도로 약간 소원한 통례 관계. 발해 측은 한 척의 배에 최고 75명, 일본 측은 送使라고 하는 형태로만. 발해 측은 臣禮를 취하는 상하관계와 上表文을 奉모하는 조공 관계가 아닌 대등한 통교를 요구함.

II. 일본 측의 요청으로 통교가 재개되어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진 시기〔天平寶字 2년(758)~天平寶字6년(762)〕

48) 상세한 일람표가 酒寄雅志 《渤海와 古代日本》(校倉書房, 2001년), 石井正敏 《日本渤海關係史研究》(吉川弘文館, 2001년)에 부록으로 실려 있고, 이 외에도 【上田雄 2002】가 매회의 渤海使의 동향을 정리했다.

49) 【李成市 1997】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교역이 중심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일본 측은 대신라 관계의 타개를 목표로, 藤原仲麻呂가 신라 정벌 계획을 진행한다. 발해 측은 무관을 대표로 20명 정도가 개별 목적 수행을 위해 일본에 음. 발해 측은 구두 상의 奏上만 하고 국서의 양식문제는 보류되어 있었다. 발해와 당의 관계가 호전되고 仲麻呂가 몰락하면서 전기를 맞이한다.

Ⅲ. 교역을 주목적으로 한 사절단이 일본에 오는 시기〔寶龜 2년(771)~弘仁 14년(823)〕

발해는 對唐관계의 회복과 국내의 수공업 발전을 배경으로 교역을 통한 국가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시기. 단 일본 측은 그다지 교역에는 열의가 없었고 외교 방식의 정비를 목표로 하여 一紀一貢의 원칙을 통고한다.

Ⅳ. 一紀一貢의 年期制에 의한 통교가 확립된 시기〔天長 2년(825) 이후〕

渤海使의 인원수는 105명으로 일정함. 일본 측은 賓禮가 정비되어 외교문서의 양식도 발해 측은 王啓와 中台省牒을, 일본 측은 慰勞詔書와 太政官牒을 발급하는 것으로 정립되었다. 빈번하게 來貢하려고 하는 발해에 대한 대응이 일본 측에게는 과제였고, 一紀一貢이 가끔은 깨진다.

이하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제Ⅱ기까지의 양상을 특히 양국의 지위에 대한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해 가고자 한다.

발해에서 최초의 使者가 도착했던 神龜 4년(727) 말, 발해의 유래에 대하여 《續日本紀》의 地の文〔최종 완성은 延曆 16년(797)〕에서는

渤海郡者, 旧高麗國也. 淡海朝廷七年冬十月, 唐將李勣伐滅高麗. 其後朝貢久絶矣. 至是渤海郡王遣寧遠將軍高仁義等廿四人朝聘. 而着蝦夷境, 仁義以下十六人, 並被殺害. 首領齊德等八人, 僅免死而來.

라고 서술하여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神龜 4년 12월 29日條).

다음 해 正月 17日條에는 발해 국왕인 大武藝가 보낸 국서를 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高齊德等上其王書并方物. 其詞曰. 武芸啓. 山河異域, 國土不同. 延聽風猷, 但增傾仰. 伏惟, 大王, 天朝受命, 日本開基, 奕葉重光, 本枝百世. 武芸, 忝當列國, 濫惣諸蕃, 復高麗之旧居, 有扶余之遺俗. 但以天崖路阻, 海漢悠悠, 音耗未通, 吉凶絶問. 親仁結援, 庶叶前經, 通使聘隣, 始乎今日. 謹遣寧遠將軍郎將高仁義·游將軍果毅都尉德周·別將舍航等廿四人, 齎狀, 并附貂皮三百張奉送. 土

宜雖賤, 用表獻芹之誠. 皮幣非珍, 還慚掩口之諛. 生理有限, 披瞻末期. 時嗣音徽, 永敦隣好.

라고 나와 있다. ‘啓’는 下達上文書의 하나로 鄭余慶 《大唐新定吉凶書儀》(9세기 전반 성립)의 文例와 같은 시기 발해왕의 啓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아, 【石井正敏 1992-552~3】은 이런 종류의 書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제1회 국서에서 발해는 일본의 천황을 ‘大王’라고는 칭하고 있지만 보내온 것은 일본 측의 표기로는 ‘方物’이지만 발해 측의 표기에는 ‘土宜’여서, 이는 일부러 자신을 하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 ‘啓’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저자세를 취하면서도 일본을 동격으로 보고 있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단,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점은 일찍이 일본과 교류가 있었던 고구려를 상기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는 해도 동시에 그것은 일찍이 對唐 전쟁이 한창일 때에 일본에 조공을 해 온 나라로서의 고구려를 일본 측에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본에 영합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이었다 【石井正敏 1975ab】. 사실 좀 전에 거론한 《續日本紀》神龜 4年 12月 29日條에서는 國史의 地의 文에서 보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본 측이 발해 측의 통교 취지를 ‘朝聘’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발해왕의 국서에 대한 천황의 답장으로서의 慰勞詔書(神龜 5年 4月 壬午條)에서는

天皇敬問渤海郡王. 省啓具知. 恢復旧壤, 聿修曩好, 朕以嘉之. 宜佩義懷仁, 監撫有境. 滄波雖隔, 不斷往來. 便因首領高齊德等還次, 付書并信物綵帛一十疋·綾一十疋·絁廿疋·絲一百鈞·綿二百屯. 仍差送使發遣歸鄉. 漸熟. 想平安好.

라며 옛 국토 회복을 축하하고 있다. 이때의 문서 양식에는 慰勞詔書를 사용하고 있고, 渤海郡王이 보낸 ‘啓’에 대하여 분명히 上位者가 보내는 下達文書의 양식이다. 상대를 명확하게 신하로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인식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고구려는 예전에 조공을 바치던 존재인 이상 일본으로서로는 앞으로 조공 관계를 수립해 가고자 하는 의향을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渤海郡王’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는 唐이 발해에게 부여한 것임을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⁵⁰⁾, 일본 측은 발해에 대해 동시에 二國에 조공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大武藝가 ‘左金護衛大將軍渤海郡王’을 자칭하면서 ‘啓’를 보냈던 선택은 唐 高祖가 突厥

50) 【金子修一 1998】은 여기에서 발해가 ‘渤海郡王’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唐에 內屬되어 있음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보았다.

에 대해 배푼 배려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石井正敏 1992-552~3】.

이때에 발해가 사신을 보낸 배경에 대해서는 726년에 唐에 들어가 통교했던 黑水靺鞨과 발해와의 항쟁이 발해와 唐의 대립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唐과 관계가 친밀했던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末松保和 1933, 森克己 1951, 西嶋定生 1962, 酒寄雅志 1977-200, 1979-57】.

그리고 平城京左京三條二坊八坪의 東二坊坊間路西側溝(長屋王 저택의 동남쪽 밖)에서는 ‘渤海使’ ‘交易’이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摺書木簡이 출토되고 있어서⁵¹⁾, 이는 시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 渤海使가 처음 일본에 온 그 시점부터 일본과 교역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당연히 長屋王이라고 하는 執政大臣과의 사이에 한정된 것일 지도 알 수 없기는 하다 【佐藤信 1997, 酒寄雅志 1998b, 2003-10】.

이 최초의 渤海使는 神龜 5년(728)의 正月朝賀에 참례하고 있는데, 그 이후 渤海使는 寶龜 10년(779) 정월의 張仙壽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正月朝賀에 참례하고 있어서 신라와는 대조적이다. 이 점을 중시하는 【濱田耕策 1979-142】는 일본은 발해를 조공국의 위치로 인식하고 발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단, 天長 2년(825) 이후에는 정월에 入京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기의 渤海使를 배웅한 使者(제1회 遣渤海使)는 보통 神龜 5년(728)에 그 일행이 출발했다고 하지만, 天平 2년(730)의 越前國正稅帳에 “送渤海郡使人等食料伍拾斛” “糒”이라고 나온 것으로 보아, 【鎌田元一 2005】는 실제로 출발한 것은 天平 2년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제1회 渤海使가 朝賀에 참례했을 때 일본의 수도는 천도하고 나서 18년 후인 平城宮이었다. 그 平城宮이 위치한 平城京의 평면계획과 가장 오랫동안 발해의 수도였던 上京龍泉府의 평면계획 사이에 적지 않은 일치점을 발견한 【井上和人 2005-108】은 渤海使의 견문이 天寶 말년(755년 경)에 中京顯德府에서 천도한 上京龍泉府의 조영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있다.

제2회 渤海使는 天平 11년(739)에 왔다. 이때에도 渤海郡王 大欽茂는 그 ‘啓’ 속에서 자신의 선물인 물품명은 거론하고 있지만 총칭을 쓰지 않는 식으로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續日本紀》 天平 11年 12月 10日條). 제2회 渤海使의 파견 목적에 대해서 【酒寄雅志 1977a-208~210】은 大欽茂가 왕위를 계승했음을 일본에 통지하는 것과 737년에 신라의 聖德王이 서거한 후에 신라의 정정이 불안정해 졌다는 것을 일본에 전하는 것도

51) 《平城京跡發掘調査出土木簡概報》 23-20上, 그리고 《平城京木簡一 長屋王家木簡一》(吉川弘文館, 1995년).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91-30】도 참조.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한다.

제3회 渤海使에 대해서는 《續日本紀》 天平勝寶 5年(753) 5月 25日條에

渤海使輔國大將軍慕施蒙等拜朝, 并貢信物. 奏稱, 渤海王言日本照臨聖天皇朝. 不賜使命, 已經十
余歲. 是以, 遣慕施蒙等七十五人, 齋國信物, 奉獻闕庭.

라고 나오듯이 발해에서는 ‘調’가 아닌 ‘國信物’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 후에도 발해에
서는 ‘方物’이 進毛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발해에 대해서는 신라와는 달리 ‘調’를
받기 보다는 ‘表’를 제출하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절에 대해
서 천황이 발급한 慰勞詔書(《續日本紀》 天平勝寶 5年 6月 8日條)는

天皇敬問渤海國王. 朕以寡德, 虔奉寶圖. 亭毒黎民, 照臨八極. 王僻居海外, 遠使入朝. 丹心至明,
深可嘉尚. 但省來啓, 無稱臣名. 仍尋高麗舊記, 國平之日, 上表文云, 族惟兄弟, 義則君臣. 或乞援
兵, 或賀踐祚. 修朝聘之恒式, 効忠款之懇誠. 故先朝善其貞節, 待以殊恩. 榮命之隆, 日新無絕.
想所知之, 何假一三言也. 由是, 先廻之後, 既賜勅書. 何其今歲之朝, 重無上表. 以禮進退, 彼此共
同. 王熟思之. 季夏甚熱. 比無恙也. 使人今還. 指宣往意. 并賜物如別.

이라며 “앞으로는 ‘啓’가 아닌 예전의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臣某’라고 국왕의 이름을 기
록한 ‘表’를 지참하라, 이는 지난번에 분명히 명했는데 이번에도 종래대로의 문서를 가
지고 온 것은 좋지 않다”며, 명확하게 臣禮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石井正敏
1992-554, 堀敏一 1998-254】. 단, 좀 더 주목해야하는 것으로는 이 璽書에서는 명확하
게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이해하고 이에 입각해 조공국으로 대우하려는 의사를
표하고 있지만【石井正敏 1974】, 신라에 대해서는 양국의 관계를 형제 관계에 견주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鈴木靖民 1969, 酒寄雅志 1977a-210~211】은 신라를
대할 때와는 달리 오히려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발해를 약간 후하게 대우하고 있는 모
습을 엿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渤海使에 대한 일본 측의 叙位는 新羅使에 대한
그것보다도 높은 것이었다【平野卓治 1985】. 그리고【酒寄雅志 1977a-211】는 이때
의 遣日使節 파견 이유를 東大寺 大佛의 開眼祝賀와 신라 景德王代의 의욕적인 北邊經營
에 대한 견제라고 하고 있다.

이 후의 天平勝寶 3년(759)부터 天平勝寶 6년(762) 11월의 香椎奉幣까지의 3개년 내지
는 天平勝寶 7년 8월의 節度使 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과 발해와의 대신라 동맹【酒
寄雅志 1977a】과 藤原仲麻呂의 신라 정벌 계획이 전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前

章에서 언급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天平勝寶 7歲(755) 8월 21일 紫微中台請經文에 보이는 인물과 동일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목간(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平城宮木簡二 解説》 2726호, 1975년)에서 보이는 ‘靺鞨’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하여 【酒寄雅志 1997a-347】은 이 이전에 渤海使에 의해 전해진 雅樂의 곡명 ‘古靺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제3회 渤海使에 대한 일본 측의 이전의 요청에 응하여 발해는 天平寶字 2년(758)의 遣日使節 이후에는 ‘表’를 제출해 오지만⁵²⁾, 天平寶字 6년(762)의 王新福이 일본에 온 이후 얼마 동안 간격을 두고 일본에 온 寶龜 2년(771)의 渤海使에 관해서는 《續日本紀》 寶龜 3年(772) 正月 16日條에

先是，責問渤海王表無禮於壹万福。是日，告壹万福等曰。万福等，實是渤海王使者。所上之表，豈違例無禮乎。由茲不收其表。万福等言。夫爲臣之道，不違君命。是以不誤封函，輒用奉進。今爲違例，返却表函。万福等，實深憂慄。仍再拜據地，而泣更申。君者彼此一也。臣等歸國，必應有罪。今已參渡，在於聖朝。罪之輕重，無敢所避。

라고 나오듯이 또 아래에 있는 慰勞詔書에서 지적하듯이 국서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달 25일에는 “渤海使壹万福等，改修表文，代王申謝”라는 것으로 사태는 수습되고, 2월 28일에는 아래와 같은 慰勞詔書를 보낸다.

天皇敬問高麗國王。朕繼體承基，臨馭區宇。思覃德澤，寧濟蒼生。然則率土之濱，化有輯於同軌。普天之下，恩無隔於殊隣。昔高麗全盛時，其王高氏，祖宗奕世，介居瀛表。親如兄弟，義若君臣。帆海梯山，朝貢相續。逮乎季歲，高氏淪亡。自爾以來，音問寂絕。爰洎神龜四年，王之先考左金吾衛大將軍渤海郡王遣使來朝，始修職貢。先朝嘉其丹款，寵待優隆。王襲遺風，纂修前業。獻誠述職，不墜家聲。今省來書，頓改父道。日下不注官品姓名，書尾虛陳天孫僭号。遠度王意，豈有是乎。近慮事勢，疑似錯誤。故仰有司，停其賓禮。但使人万福等，深悔前咎，代王申謝。朕矜遠來，聽其悔改。王悉此意，永念良凶。又高氏之世，兵亂無休。爲假朝威，彼稱兄弟。方今大氏曾無事。故妄稱舅甥，於禮失矣。後歲之使，不可更然。若能改往自新，寔乃繼好無窮耳。春景漸和，想王佳也。今因廻使，指此示懷。并贈物如別。

여기에서도 일본 측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왕이 高氏에서 大氏로 바뀌었다고는 해도 고구려와 발해는 계승관계에 있다고 하고, 일찍이 고구려는 일본에 조공을 하고 있었

52) 【浜田久美子 2005】에 의하면 발해가 국서에 表를 사용한 것은 天平寶字 2년(758)부터 寶龜 10년(779)까지임.

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高氏의 멸망 후에는 조공관계가 끊어졌었지만, 神龜 4년에 재개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식이 상례를 벗어나고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⁵³⁾. 그리고 국서(慰勞詔書) 속에서 발해에 대해 ‘高麗’라고 표기하는 것은 仲麻呂 정권 하인 天平寶字2~6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堀敏一 1998b-250~60, 金子修一 2003-120】은 이 속에서 신라에 대해 함께 적대하기를 바라는 仲麻呂의 의도를 읽어내려고 하고 있다.

제2절 平安時代의 일본과 발해의 관계

1. 年期制의 성립과 그 운용

寶龜 2년(771)의 渤海使는 17척의 배에 325명의 방대한 인원이 나누어 타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전적으로 교역만을 하는 상인의 성격을 띤 발해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된다. 이 시기를 경계로 하여 渤海使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변화했다고 이야기되는 이유이다. 그 변화의 배경으로서 【酒寄雅志 1977a-227】는 신라 景德王의 서거(765년 6월)이후 惠恭王 살해(780년 10월)에 이르기까지의 신라 국내 지배층 내부의 항쟁을 들고 있다.

그 이후에도 일본과 발해 간에는 表函 내지는 啓의 書式이 상례에 어긋나서 문제시되는 사건이 가끔 일어나지만(예를 들어 《續日本紀》 寶龜 4年(773) 6月 24日條, 同 寶龜 10年 11月 9日條, 《日本後紀》 逸文 延曆15年 10月 15日條(《類聚國史》), 발해 측으로부터는

渤海使史都蒙等貢方物. 奏曰. 渤海國王, 始自遠世供奉不絕. 又國使壹万福歸來, 承聞, 聖皇新臨天下, 不勝歡慶. 登時遣獻可大夫司賓少令開國男史都蒙入朝, 并戴荷國信, 拜奉天闕.

이라고(《續日本紀》 寶龜 8年(777) 4月 22日條), ‘遠祖’로부터 供奉이라는 표현에서 일본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寶龜 4년의 발해 국왕은 文王大欽茂이고, 神龜 4년(727)의 왕은 武王大武藝로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발해의 遣使가 ‘遠祖’로

53) 延曆 17년의 慰勞詔書에서는 이 시기의 상황을 <中間書疏傲慢, 有乖旧儀>(《日本後紀》 逸文 延曆 17年 5월 戊戌條(《類聚國史》))라고 하고 있다.

부터 온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명백히 발해는 고구려의 對日外交의 역사를 전제로서 상기시키려고 하였던 것이었다.⁵⁴⁾

延曆 5년(786) 9월에 일본에 온 渤海使 李元泰가 다음 해에 漂着地에서 귀국한 이후 한동안은 일본과 발해 관계 사료가 단절되었다가, 延曆 14년(795)에 재개되었을 때에는 발해에서 ‘啓’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 때의 기사를 실은 《日本後紀》 逸文 延曆 15年(796) 4月 27日條(《類聚國史》 卷193)에는

渤海國者, 高麗之故地也. 天命開別天皇七年, 高麗王高氏, 爲唐所滅也. 後以天之眞宗豐祖父天皇二年, 大祚榮始建渤海國, 和銅六年, 受唐册立其國. 延袤二千里, 無州縣館驛, 處々有村里. 皆靺鞨部落. 其百姓者, 靺鞨多, 土人少. 皆以土人爲村長. 大村曰都督, 次日刺史. 其下百姓皆曰首領. 土地極寒, 不宜水田. 俗頗知書. 自高氏以來, 朝貢不絶.

이라고 나온다. 이는 《日本後紀》에 처음으로 발해가 등장했기 때문에 서술하고 있는 國史의 地의 文이므로 그 奏上시점인 承和 7년(840)의 인식이기는 하지만, “自高氏以來, 朝貢不絶” 즉 고구려 시대부터 오랫동안 계속 조공을 해왔던 나라라는 인식에는 단절이 없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다만 이 시기의 渤海使는 결국 “首尾不慥, 既違旧儀”라며 入京을 거부당하고 있다.

발해와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日本後紀》 逸文 延曆 17年 5月 19日條(《類聚國史》)에 게재된 慰勞詔書에도

天皇敬問渤海國王. 前年廣岳等還, 省啓具之. 益用慰意. 彼渤海之國, 隔以滄溟, 世脩聘禮, 有自來矣. 高氏繼緒, 每慕化而相尋, 大家復基, 亦占風而靡絶. 中間書疏傲慢, 有乖旧儀. 爲此, 待彼行人, 不以常例. 王追蹤曩例, 脩聘于今. 因請隔年之裁, 庶作永歲之則. 丹定款誠所著, 深有嘉焉.

이라고 하듯이 발해의 大氏는 고구려 高氏의 계승자라고 일본 측에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日本後紀》 逸文 弘仁 5年(814) 5月 9日條(《日本紀略》)에는 “新羅王子來朝之日, 若有朝獻之志者, 准渤海之例. 但願修隣好者, 不用答禮, 直令還却. 但給還糧”이라고 나와서 당시 발해의 사절은 단순히 ‘願修隣好’라는 명목이 아닌 ‘朝獻之志’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발해 측의 자세에 대응하여 일본 측도 굳이 表를 지참하라고까지 요구하지 않게 된 것 같다【石井正敏 1995】. 실제로 이미 延曆 15年 10月 15日條(《類聚國史》卷193)에서

54) 발해의 고구려계승의식에 대해서는 특히 【石井正敏 1975b】를 참조.

先是, 渤海國王所言上書疏, 体無定例, 詞多不遜. 今所上之啓, 首尾不失禮, 誠款見于詞.

라고 나오듯, 비록 ‘啓’일지라도 ‘失禮’가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하는 판단이 엿보인다.

발해와 교섭 시에 사용했던 용어를 검토하여 이를 통해 延曆 15년~承和 8년에는 通交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聘’이라고 칭하는 등 발해에 대해서는 신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발해의 위상이었던 ‘蕃國’이 아닌 지위를 올려 ‘諸侯’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提說이 있고【重松敏彦 1997】, 또 寶龜에서 延曆 연간에 걸쳐 외교상의 용어에 상하 관계가 명시되도록 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현저해졌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保科富士男 1995】. 어찌되었든 문서상 용어에 구애되는 형태로 상호인식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약간 보류하려는 의도가 양쪽 모두에게 엿보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대신에 등장한 것이 아래에서 서술하는 年期制였다.

延曆 14년(795)에 일본에 온 渤海使 呂定琳을 발해까지 배웅한 送使 御長廣岳·桑原秋成은 그 귀국 시에 발해국왕의 啓를 가지고 온다.

正六位上御長真人廣岳等歸自渤海國. 其王啓曰. 嵩璘啓. 差使奔波, 貴申情禮. 佇承休眷, 瞻望徒勞. 天皇頓降敦私, 貺之使命. 佳問盈耳, 珍奇溢目. 俯仰自欣, 伏增慰悅. 其定琳等, 不料刃虜, 被陷賊場. 俯垂恤存, 生還本國. 奉惟天造, 去留同賴. 嵩璘, 猥以寡德, 幸屬時來. 官承先爵, 土統旧封. 制命策書, 冬中錫及. 金印紫綬, 遼外光輝. 思欲修禮勝方, 結交貴國. 歲時朝覲, 桅帆相望. 而巨木楡材, 土之難長. 小船汎海, 不沒卽危. 亦或引海不諧, 遭罹夷害. 雖慕盛化, 如艱阻何. 儻長尋旧好, 幸許來往, 則送使數不過廿, 以茲爲限, 式作永規. 其隔年多少, 任聽彼裁. 裁定之使, 望於來秋. 許以往期, 則德隣常在. 事與望異, 則足表不依. 其所寄絹廿匹·絁廿匹·絲一百鈞·綿二百屯, 依數領足. 今廣岳等, 使事略畢. 情求迨時, 便欲差人送使奉謝新命之恩. 使等辭以未奉本朝之旨. 故不敢淹滯, 隨意依心. 謹因廻次, 奉付土物. 具在別狀. 自知鄙薄, 不勝羞愧.

〔《日本後紀》 逸文 延曆 15年 10月 2日條(《類聚國史》 卷193)〕

위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는 일본에 朝聘 간격을 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시기 발해는 建中·貞元 연간(780-804)에 겨우 4회 밖에 唐에 사절을 보내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酒寄雅志 2001a-70~71】은 왕위 계승의 혼란 속에서의 國人세력이 커지게 되어 경제적 요구의 실현을 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일본은 이 요청에 대하여 延曆 17년(798) 4월에 內藏加茂麻呂를 발해에 파견하여 ‘但願巨海之無際, 非一葦之可航. 驚風踊浪, 動罹患害. 若以每年爲期, 艱虞巨測. 間以六歲, 遠近合宜’(《日本後紀》 逸文 延曆 17년 5月 19日條(《類聚國史》 卷193))라며 “六年一貢”

이라고 전했다. 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고른 점에 대해서는 大寶令의 주석서인 令集解職員令太政官條古記에 ‘朝聘者, 經六歲聘一年也’라고 하는 해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石井正敏 1995】은 고전에 정통했던 桓武天皇이 明王의 制인 周의 六年周期說을 선택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교역을 중시했던 발해는 【石井正敏 1974, 鈴木靖民 1999, 森公章 2004-191】 6년은 너무 간격이 멀다며 동년 12월에 渤海使가

嵩隣啓. 使賀万等至. 所貺之書, 及信物絹各卅疋, 糸二百鉤, 綿三百屯, 依數領之. 慰悅實深. 雖複巨海漫天, 滄波浴日, 路無倪限. 望斷雲霞, 而巽氣送帆, 指期旧浦, 乾涯斥候, 無闕糶糧. 豈非彼此契齊, 暗符人道, 南北義感, 特叶天心者哉. 嵩隣莅有旧封, 繼承先業, 遠蒙善弊, 聿脩如常. 天皇遙降德音, 重貺使命. 恩重懷抱, 慰諭慙慙. 況俯記片書, 眷依前請, 不遺信物, 許以年期. 書疏之間, 嘉免痕類, 庇廕之顧, 識異他時. 而一葦難航, 奉知審諭. 六年爲限, 窃憚其遲. 請更貺嘉凶, 並廻通鑑. 促其期限, 傍合素懷. 然則向風之趣, 自不倦於寡情, 慕化之勤, 可尋蹤於高氏. 又書中所許, 雖不限少多, 聊依使者之情. 省約行人之數, 謹差慰軍大將軍左熊衛都將上柱將開國子大昌泰等, 充使送國, 兼附信物. 具別狀. 土無奇異. 自知羞惡.

〔《日本後紀》逸文 延曆 17年 12月 壬寅條(《類聚國史》卷193)〕

이라고 단축을 요청하는 王啓를 가지고 왔고, 그 결과 일본은 ‘勿勞年限’이라하며 일단은 年期制를 포기해 버린다.

이 기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일본 측에서 대부분 送使라고 하는 명목으로 파견하고 있던 渤海使가 弘仁 원년 임명되어 弘仁 2년에 돌아온 林宿祿東人을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일본과 발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濱田耕策 2000a】, 이것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年期制가 확립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과 발해와의 상호인식이 안정된 상황으로 자리 잡아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부터 외교문서 상의 표현에 관한 일본과 발해와의 사이에 갈등은 보이지 않게 되는데 【森公章 2004-201~3】, 이것은 年期制를 채용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일본과 발해 사이의 명분적 관계를 상징한다 【浜田久美子 2008】는 것처럼 일본 측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일단 年期制는 포기했지만, 傍系로서 왕위를 이은 발해국왕 宣王 大仁秀 시대에 들어서면서 弘仁 9년, 10년, 12년, 14년, 天長 2년, 4년과 같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渤海使가 일본에 오면서 賓待 비용, 路次諸國의 피폐 등이 문제시되고(《日本後紀》逸文 天長 원년 2월 3日條·天長 3年 3月 1日條, 모두 《類聚國史》卷194), 때로는 入京을 거

부당하게 된다(弘仁 14년). 이런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계기와 ‘12年’이라고 하는 숫자의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森公章 2004-195】, 天長 원년(834) 6월에 일본은 발해의 來日年期를 一紀(=12년)一貢으로 개정하고 이것이 이후에 定制가 된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일본에 온 渤海使에 관해서는 藤原緒嗣에게 “渤海客徒, 既違詔旨, 濫以入朝. 偏容拙信, 恐損旧典. 實是商旅, 不足隣客. 以彼商旅爲客, 損國未見治体”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石井正敏 2001d】(《日本後紀》逸文 天長 3年 3月 1日條(《日本紀略》)), 在唐學問僧 靈仙의 表物을 가지고 온 것과 年期制가 알려지지 않은 것일 거라는 것이 고려된 듯 하여 【森公章 2004-199】 入京을 허락하고 있다.

年期制에 대해서는 天長 4년에 일본에 온 王文矩이 역시나 年期制를 지켰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入京을 딱 잘라 거절당한 후에는

遣勅使於鴻臚館, 宣詔. 賜渤海王書曰. 天皇敬問渤海國王. 福延等至, 得啓具之. 惟王奉遵明約, 沿酌旧章. 一紀星廻, 朝覲之期不爽, 万里溟濶, 琛貢之款仍通. 言念乃誠, 無忘鑿寐. 前年聘唐使人却廻, 詳知苾蒞靈仙化去. 今省別狀, 事自合符. 亦悉付遣黃金陷沒綠浦. 雖人逝賫失元凶不諧. 而思夫轉送之勞. 遙感應接之義. 悠悠天際, 足非可跋. 予相見無由, 焉不已耳. 附少國信, 色目如別. 夏景初蒸, 比平安好. 略此還答, 指不多及. 太政官賜中台省牒曰. 日本國太政官牒渤海國中台省. 入覲使政堂省左允賀福延等壹佰伍人牒. 得中台省牒稱. 奉處分, 日域東遙, 遼陽西阻. 兩邦相去, 万里有余. 溟漲滔天, 風雲雖可難測. 扶光出地, 程途亦或易標. 所以每航海以占風, 長候時而入覲. 宜遵旧章欽修覲禮. 謹差政堂省左允賀福延. 令覲貴國者. 福延等來修聘禮. 守一紀之龍信, 凌千里之鼈波. 乘風便以企心, 仰日光而追影. 事有成規, 准例奏請. 被勅報曰. 隣好相尋, 匪亶今日. 靜言純至, 嘉尚于懷. 宜加優矜得復命者. 今使還之次, 附靈書并信物. 至宜領之. 但啓函修飾, 不依舊例. 官儀棄瑕不舉. 自後奉以悛之. 准勅牒送. 牒到准狀. 故牒. 勘解由判官正六位上藤原朝臣粟作. 文章生從六位上大中臣朝臣清世等爲領客使. 是日. 使賀福延等歸鄉.

〔《續日本後紀》 承和 9年(842) 4月 12日條〕

라고 나오듯이

今更遣使, 誠非守期. 雖然, 自古隣好, 憑禮相交. 曠時一歲, 猶恐情疎. 况茲, 星律轉迴, 風霜八變. 東南向風, 瞻慕有地. 寧能恬寂, 罕續音塵. 謹備土物, 隨使奉附. 色目在於後紙.

〔《續日本後紀》 嘉祥 2年(849) 3月 14日條〕

라고 하는 정도의 변명을 쓴 王啓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하면서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안정되었다 【森公章 2004-199~200】⁵⁵⁾. 발해에서는 ‘啓’와 ‘信物’ 내지는 ‘方物’을

가지고 왔고 일본에서는 ‘璽書’ ‘勅書’ (사실은 모두 慰勞詔書)와 ‘信物’이 전달되는 관계가 계속되었지만, 嘉祥 2년(849)의 국서에도 ‘入貢使’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처럼 渤海使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조공 사절로서 그 위상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金子修一 2003-126】. 그리고 承和 9년(842) 3월 28일에 太政官에 송달된 것으로 平安 후기의 사본인 宮內廳書陵部所藏의 咸和 11년(841, 일본의 承和 8년) 渤海國中台省牒(寫)(《壬生家文書》 古往來消息雜雜)은 新羅執事省牒〔《續日本後紀》 承和 3年(836) 12月 3日條〕와 承曆 3년(1079) 高麗國禮賓省牒(《朝野群載》 卷20異國)과는 달리 ‘牒’이 아닌 ‘牒上’이라고 기록하는 점, 또 문장의 맺음이 ‘謹牒’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 【中村裕一 1979】는 中台省이 보내는 牒은 奈良時代부터 일관되게 갖고 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酒寄雅志 1985a】는 좀 전에 거론한 특징을 갖는 牒은 일본을 중주국으로 모시는 부용국 발해라는 외교문서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서 9세기 초인 弘仁 연간(810-823)에 발해에 대하여 牒을 가지고 올 것을 의무화했던 성과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天長 4년(827) 12월 29일에 일본에 온 渤海使 王文矩의 목적에 대해서 《類聚三代格》 卷18에 실린 天長 5년 정월 2일의 太政官符는, “文矩等申云, 爲言大唐淄青節度使康志曄交通之事, 入覲天庭. 違期之程, 逃罪無由”라고 渤海使가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핑계에 대하여 【石井正敏 1976-524~539】는 827년 5월에 일어난 唐의 橫海節度使 李同捷의 亂과 연관시켜서 발해국왕 大仁秀가 발해와 당의 교통에 방해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이것을 알리는 것을 구실로 경제적인 통교의 기회를 늘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고⁵⁶⁾, 【酒寄雅志 1979-78~9】는 이에 대해 그 전년에 발해에 대비하여 大同江연안에 長城을 축조한 신라를 일본에게 견제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榎本淳一 2003】는 위의 【濱田耕策 2000b-151】가 ‘交通’을 ‘通交’의 의미로 해석한 것에 대하여 語義 자체는 ‘交際’의 의미인 ‘通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淄青節度使가 일본에 通交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어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세기 말인 貞觀 15년(873)에 일어난 아래의 사건과 그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긴 교섭 끝에 결론이 난 일본의 對渤海觀을 對新羅觀과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종합평가라고 할

55) 【森公章 2004】는 嘉祥 2년의 예외를 仁明天皇의 四十賀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6) 그리고 【石井正敏 1976】는 ‘康志曄’는 ‘康志睦’을 잘못 쓴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수 있을 것이다 【坂上康俊 2008-64】 .

先是. 大宰府言. 去三月十一日. 不知何許人. 舶二艘載六十人. 漂着薩摩國甌鳴郡. 言語難通. 問何用. 其首崔宗佐·大陳潤等自書曰. 宗佐等. 渤海國人. 彼國王差入大唐. 賀平徐州. 海路浪險. 漂盪至此. 國司推驗事意. 不公驗. 所書年紀. 亦復相違. 疑是新羅人. 僞稱渤海人. 來竊窺辺境歟. 領將二舶. 向府之間. 一舶得風. 飛帆逃遁. 是日. 勅. 渤海遠蕃歸順於我. 新羅爾久挾禍心. 宜令府國官司. 審加推勘. 實是渤海人者. 須加慰勞糧發歸. 若新羅凶党者. 全禁其身言上. 兼令管內諸國. 重慎警守.

〔《日本三代實錄》 貞觀 15年(873) 5月 27日條〕

발해는 9세기에도 번영을 유지하고 唐으로부터 ‘海東盛國’(《新唐書》)이라고 칭해 질 정도였지만, 10세기에 들어서면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쇠퇴하고 더욱이 지배층 내부의 분쟁도 발생한다. 이것을 본 이웃나라 거란(후에, 947년에 국호를 遼라고 개정)의 耶律阿保機는 925년에 발해를 침공하고 다음 해에는 上京龍泉府를 몰락시켜서 발해 국왕인 大諱諤은 거란에 항복하게 된다. 거란은 遼河(siramuren河) 유역에 東丹國을 만들게 하고, 한편 발해 왕세자인 大光顯은 鴨綠江 유역에 발해국을 재건하고, 또 上京龍泉府의 옛 땅에 후발해국을 건국한 집단도 있었지만, 934년에는 大光顯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고려에 망명을 요청하여 발해의 유민 대부분은 고려가 받아들이고 있고, 한편 각지에 잔존하고 있던 발해 세력도 거란에 흡수되어 갔다.

이런 정세 속에서도 발해는 遣日使를 계속 파견하여 延喜 8년(908)·19년에는 大使 裴璆가 일본에 오고 있는데 그 裴璆가 이번에는 東丹國이 보낸 使者로서 일본에 왔다는 것을 延長 7년(929) 정월 3일에 丹後國이 전해왔다. 위에서도 서술했던 것처럼 이미 이 시기 발해는 쇠퇴해가고 있어서 거란이 만든 괴뢰정권 중 하나가 東丹國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 左大臣 藤原忠平 이하의 公卿은 入京시킬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함께 丹後國에 使者를 파견하여 사절단에 대응하게 했다. 그런데 大使 裴璆는 “전에는 발해 사람이었다고는 해도 지금은 몰려나서 東丹의 신하가 되었다. 그런데도 대답 중에 대부분이 거란왕의 죄악을 말한다”(《扶桑略記》)고 하여 일본 조정의 불신을 사서 사죄문을 요구하고 귀국시킨다. 이것이 발해와의 마지막 교섭이 되었다.

天慶 5년(942) 5월에는 兼明親王이 발해 大使를, 그리고 成明親王(후의 村上天皇)이 일행의 대장 역할을 하며 궁전에서 蕃客來朝를 흥내 내는 詩宴을 주최하고 또 餞別儀까지 거행했다고 전한다(《日本紀略》, 《古今著聞集》 三·公事). 안심하고 조공을 받을 수 있는 발해와 같은 국가가 있었던 시대에 대한 향수는 이후에도 平安 귀족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2. 渤海使 迎接儀禮와 문인 관료

渤海使가 일본에 오게 된 이후, 일본의 영접의례의 대체적인 흐름을 理念的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森公章 2003-167~172】.

- a. 도착지에서의 安置(寶龜2~4년 사이에 도착지의 國司에게 國書開封權이 부여됨)
- b. 存問使 과견(存問)
- c. 領客使에 의한 京上(領客)
- d. 入京시의 郊勞(郊勞)(奈良時代에는 飾馬·騎兵의 영접, 아마도 承和 8년부터는 郊勞使 과견으로)
- e. 鴻臚館에 安置, 勞問使·慰勞使의 과견과 掌客使의 임명(奈良時代는 朝見場에서 慰問(唐使의 예에 의함), 아마도 承和 8년부터는 勞問使·慰勞使)
- f. 조정에서의 使旨奏上(國書 또는 口頭), 貢獻物 奉呈(奈良時代는 太極殿出御型, 平安時代는 朝堂院型⁵⁷⁾)
- g. 여러 행사에 참가(정월행사, 五月五日節會에 참가)(天長 2년 이후, 정월 入京 없음)
- h. 천황 참석 하에 賜宴, 授位·賜祿(奈良時代는 閤門出御型, 平安時代는 豐樂院型)
- I. 교역
- j. 신하에 의한 賜饗(奈良時代는 執政大臣의 사택에서, 朝集院에서의 신하의 향연은 延曆 17년에 처음으로 보임)
- k. 鴻臚館에서의 향연(詩宴)(당초에는 없었음, 貞觀 13년을 계기로 거행)
- l. 鴻臚館에서의 慰勞詔書賜与(天長2년 이후에는 太政官牒도)
- m. 領歸鄉客使가 인솔하여 出京·귀국(弘仁元까지는 送使를 과견, 아마도 承和 8년부터는 領歸鄉客使가 출항지까지 배웅함)

이러한 의례를 담당하는 役職으로는 延喜太政官式蕃客條에 存問使·掌客使·領歸鄉客使 각 2명, 隨客使·通事 각 1명, 郊勞使·慰勞使·勞問使·賜衣服使 각 1명, 宣命使·供食使 각 2명, 賜勅書使·賜太政官使 각 2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한편으로 治部

57) 朝堂院型·豐樂院型·太極殿出御·閤門出御 등의 형식에 대해서는 【橋本義則 1984】를 참조.

省式蕃客條에는 이 외에도 領客使 2명, 隨使 1명, 掌客 2명(+史生 2명), 共食 2명을 정하게 되어 있었다. 이 두 규정에 대하여 【浜田久美子 2002】는 전자의 迎接使는 承和 8년(841) 이후의 正史의 기사에 가끔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領客使를 제외하면 《日本書紀》 이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두 규정은 성립 시기가 다르다고 하고 또 存問使와 領客使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m의 送使가 領歸鄉客使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는 【森公章 2003-173~4】가 언급한 것이 있는데, 弘仁 2년(811)에 돌아온 送使가 돌아오는 길에 2척 중 1척이 표류하다가 침몰된 사건에서 상징되듯이 항해상의 위험 및 실상 교역이 주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 반대로 말하자면 일본과 발해와의 사이에 정치·외교상 특단의 과제가 없어졌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이 시기에 일본과 발해가 상호인식의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 弘仁 2년의 送使에게 보내려고 했던 발해 국왕의 국서에 대하여

正六位上林宿禰東人等. 至自渤海. 奏曰. 國王之啓. 不據常例. 是以去而不取. 其錄事大初位下上毛野公嗣益等所乘第二船. 發去之日, 相失不見. 未知何在.

와 같은 違例問題가 발생하는 등(《日本後紀》 弘仁 2年 10月 2日條), 送使의 파견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배려된 결과일 가능성도 역시 고려되어도 좋을 것이다. 발해측은 送使의 파견을 꼭 환영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인원수를 제한하려고 했다고 하는 배경도 있다(《日本後紀》 延曆 15年 10月 2日條에는 “送使數不過廿, 以茲爲限, 式作永規”라고 하는 발해 국왕의 제안이 보임). 즉 朝聘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 측이 체면을 지키면서 年期制에 입각한 안정된 교역 관계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大目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해 요인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渤海使를 영접했을 때에 주고받은 詩文에 대해서는 弘仁 5년(814)의 渤海使王孝廉以下와 교섭 시에 주고받은 것이 《文華秀麗集》과 《經國集》에 수록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漢文學⁵⁸⁾과 歷史學⁵⁹⁾ 양 분야에서 독해와 검토가 이루어져서 漢詩文의 時系列에 따른 排列에 대하여 각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浜田久美子 2006-13】. 이때의 사절에 대해서는 그 영접 모습에 대하여 《日本後紀》와 《類聚國史》에도 기사가

58) 【小島憲之 1964, 遠藤光正 1995ab, 後藤昭雄 2003, 河野貴美子 2004, 岡部明日香 2004, 2005, 井實充史 2004, 山谷紀子 2004, 中村成里 2004, 加島吉春 2005, 蔣義喬 2005】

59) 【大日方克己 2000, 上田雄 2002, 加藤順一 2004】

남아 있는데, 山陰에 도착하여 出雲에서 공급을 받은 후에 入京했고 돌아갈 때에는 敦賀【小島憲之 1964, 遠藤光正 1995ab】 내지는 出雲【大日方克己 2000, 加藤順一 2004, 浜田久美子 2006-3】에서 출항했지만 바다를 건너는데 실패하여 다음 弘仁 7년 5월에 재출항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弘仁 12년(821)의 渤海使에 대해서도 《經國集》에 수록되어 있는 漢詩文에서 영접의 순서를 복원하고 특히 다음 해 정월 16일에 豊樂殿의 앞마당에서 개최되고 渤海使 王文矩도 참가했던 打毬의 실상을 추측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遠藤光正 2001, 浜田久美子 2006】⁶⁰⁾.

【古畑徹 1995b】는 渤海使가 일본에서 했던 漢詩文 交歡은 발해의 증화의식을 발현하는 장으로서 기능했다고 하는데⁶¹⁾, 분명히 裴頰·裴璆 부자와 같이 문인으로서 저명한 인물이 파견되어 왔던 적이 있다. 元慶 6년에 裴頰가 일본에 왔을 때에는 일본 측에서도

是日. 以正六位上行少外記大藏伊美吉善行·式部少丞高階真人茂範, 爲存問渤海客使. 前筑後少目從八位上伊勢朝臣興房爲通事.

(《日本三代實錄》 元慶 7年 正月 1日條)

또

以右衛門大尉正六以上坂上大宿祢茂樹·文章得業生從八位上紀朝臣長谷雄, 爲掌渤海客使. 民部大丞正六以上清原真人常岑·文章生從八位下多治真人有友, 爲領歸鄉渤海客使.

(同 4月 2日條)

그리고

緣饗渤海客, 所司官人雜色人等, 客徒在京之間, 聽帶禁物. 以從五位上式部少輔兼文章博士加賀權守菅原朝臣道眞, 權行治部大輔事. 從五位上行美濃介嶋田朝臣忠臣權行玄蕃頭事. 爲對渤海大使裴頰, 故爲之.

(同 4月 21日條)

라며 文章博士 菅原道眞·嶋田忠臣을 각각 權行治部大輔事·權行玄蕃頭事로 하고 掌客使에는 文章得業生紀長谷雄, 領客使에는 大藏善行을 임명하는 등 당시 일본의 저명한 문인

60) 이때의 打毬에 대해 다룬 논문 중에서 시기가 빠른 것은 【瀧川政次郎 1939】가 있다.

61) 【河野貴美子 2008】

들을 충출동시케 대응하고 있고 이때 교환한 詩文은 《菅家文草》卷2·7, 《田氏家集》속에 수록되어 있다. 또 裴璆가 3번째로 일본에 왔던 延喜 19년의 渤海使의 경우에는 《本朝文粹》卷9에 紀在昌의 詩序가 《扶桑集》卷7·9에 菅原淳茂·大江朝綱 등의 詩文이 수록되어 있다.

3. 일본과 발해의 교역

제1절에서 거론했듯이 神龜 4년(727)에 첫 渤海使가 일본에 왔을 때 그들은 담비 가죽(貂皮) 300張을 가지고 온다. 특히 760년대 이후가 되면 渤海使는 전적으로 경제적인 통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고, 【鈴木靖民 1999b】는 중계무역 내지는 자국산품의 수출로 인한 이익을 국가의 유지·발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발해의 국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후 사료에 보이는 한 渤海使의 貢納品은 大虫(=虎)皮·羆(皮?)·豹皮·인삼·꿀(이상은 信物), 貂裘(別貢物) 외에 麝香·裘帶 등으로 발해 국내산 짐승 가죽(獸皮)이 중심이며⁶²⁾, 일본에서는 平安 중기가 되어도 발해의 獸皮에 대한 동경이 시들지 않았다⁶³⁾. 단 이전에는 발해가 갖고 오는 물품들은 대부분 모두 발해산이라는 점 때문에, 중계무역을 하고 있던 신라와는 다르다고 해 왔지만 【秋山謙藏 1939-220, 森克己 1975-20, 東野治之 1974-35】, 玳瑁로 만든 酒盃(《日本三代實錄》元慶 元年 6月 25日條)와 契丹大狗(《日本後紀》逸文 天長 元年 4月 17日條(《類聚國史》卷194))와 같이 발해산이 아닌 것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은 唐과 거란에서 입수한 물건일 것이다 【東野治之 1984, 酒寄雅志 2003-10】.

그리고 貞觀 원년(859) 정월에 能登國에 도착하여 入京을 허가받지 못한 채 加賀國에서 돌려보내진 渤海使 烏孝愼이 가져온 唐의 宣明曆(貞觀 3年 6월 16일 太政官符. 《類聚三代格》卷17)에 대해서는 【大日方克己 2003】의 專論이 있고, 또 【田島公 1991】는 石山寺 所藏 《仏頂尊勝陀羅尼記》本奧書에 나오는 渤海大使 李居正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한편 발해가 일본과의 통교를 통해 입수했던 것은 綵帛·綾·綿·緇·糸·布·錦·羅 등의 섬유 제품과 袍·朝衣 등의 섬유 가공품이 중심이었지만, 황금·수은 등의 광물, 金漆·海

62) 상세한 내용은 【田島公 1993】을 참조.

63) 『江家次第』卷5 春日祭에 기록되어 있는 ‘黑貂의 裘’ 에피소드를 참조.

石榴油 등의 식물 제품, 水精念珠·檳榔扇 등의 공예품도 있었다【酒寄雅志 2003-10】.

奈良時代 교역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선 養老의 關市令8官司條에

凡官司未交易之前, 不得私共諸蕃交易. 爲人亂獲者, 二分其物, 一分賞亂人, 一分沒官. 若官司於其所部捉獲者, 皆沒官.

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관의 先買權이 있었다고 추측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平安時代에 들어선 단계부터는 민간의 교역이 과열 기미를 보였던 것 같으며, 天長 5년(828) 정월 2일에는 아래와 같은 官符가 발표되어(《類聚三代格》卷18), 일본에 온 渤海使와의 사적인 교역을 금지시키고 있다.

一, 應禁交關事

右, 蕃客齎物, 私交關者, 法有恒科. 而此間之人, 必愛遠物, 爭以貿易. 宜嚴加禁制, 莫令更然. 若違之者, 百姓決杖一百, 王臣家遣人買, 禁使者言上. 國司阿容及自買, 殊處重科, 不得違反.

이 시점은 바로 전년인 12월에 渤海使 王文矩이 但馬國에 왔는데도 年期 위반이라는 이유로 入京을 거부당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官符가 발표되고 있는 것은 王臣家가 도착한 현지까지 가서 교역을 하고 있던(하려고 하였던)사실을 나타낸다【森公章 2004-194~5】. 【酒寄雅志 2003-11】는 이 금지령을 사적 교역의 전면 금지인 것처럼 이해하지만, 언급되어 있는 法條가 위에 서술한 關市令文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은 官의 先買權을 무시한 사적 교역에 국한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京內에서 渤海使의 교역 상황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료인 《日本三代實錄》貞觀 14年(872) 5月 25日條에는, “內藏寮與渤海客, 廻易貨物” 다음 21日條에는 “聽京師人與渤海客交” 그리고 22日條에서는 “聽諸市人與客徒私相市易. 是日, 官錢四十萬賜渤海國使等, 乃喚集市塵人, 賣與客徒此間土物”이라고 나와 있듯이 官의 先買權을 확보하고 난 후에 都의 市人과 渤海使의 화물을 교역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위의 禁令이 완화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渤海使가 도착한 지점에서의 민간과의 교역을 우려하는 바가 사라지지 않고 官의 先買權 확보가 지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실제로 《日本三代實錄》元慶 6年(882) 11月 28日條에는

是日. 下符加賀國, 安置渤海客於便處, 依例供給, 謹加優遇. 又禁制私廻易客徒所賣貨物.

이라고 나와 있듯이 현지에서의 사교역을 엄금하는 명령을 계속 발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石井正敏 2001c】.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詩文의 應酬를 제외한 문화적인 면에서의 교류에 대해서는 우선 渤海樂에 대해서 【荻美津夫 1995】가 개관하고 있고, 【酒寄雅志 1997a,1998a】도 渤海樂의 하나인 ‘新靺鞨’의 所作과 裝束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10세기 초반에는 ‘新靺鞨’은 雅樂이 아닌 散樂이었지만, 11세기 전반의 刀伊의 入寇를 계기로 渤海使가 천황 앞에서 拜舞했던 모습을 상기해 내서 다시 부흥하여 오늘날에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경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는 渤海使와 관계된 문자 자료로서 秋田城 유적에서는 ① ‘客人’(9세기第一四半期), ② ‘客廚’(9세기第二四半期)라고 각각 먹으로 쓴 赤褐色土器杯⁶⁴)와 ③ ‘下狄饗料’라고 쓴 8세기 말의 목간 【鈴木拓也·熊田亮介 1995】⁶⁵), ④ 秋田城이 위치하는 寺內 지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高麗’라고 먹으로 쓴 토기편(현재는 소재 불명) 【上法香苗 1957】, ⑤ 石川縣 金澤市 교외의 戶水大西 유적에서는 9세기 전반의 대형 건물군과 함께 8세기 말~9세기 초반으로 시기를 비정할 수 있는 ‘宿家’라고 쓴 墨書토기가 출토되었고 【出越茂和 1994-152】, ‘宿家’에 대해서 【酒寄雅志 2001-29】는 貞觀 원년(859)에 能登國에 도착한 渤海使 烏孝愼 등을 安置했던 加賀國의 ‘便處’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⑥ 그 부근의 戶水 C 유적에서는 거의 동시기의 ‘津’이라고 적힌 墨書토기가, ⑦ 마찬가지로 金澤市の 畝田·寺中 유적의 河跡에서는 ‘津’ ‘津司’ ‘天平二年’이라고 쓰인 8세기 중반의 墨書토기가 출토되었고 【和田龍介 2000】, 여기에다가 天平 2년(730)에 제1차 遣渤海使 引田虫麻呂가 越前國 加賀郡으로 되돌아온 점, 그리고 天平 3년의 越前國 正稅帳의 기술 중에 “送渤海使人使等食料五十石”이라고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여 【藤井一二 2004-319】는 ‘津司’는 발해와 관련된 외교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유적이 존재하는 일대가 상륙·체재 지점이었으며 여기에 수 십 명 규모의 사절단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과 보급시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⑧ 平城京 左京三條二坊八坪의 東二坊坊間路 西側 溝에서 출토된 ‘渤海使’ ‘交易’이라고 하는 문자를 포함하는 習書 木簡에 대해서는 본장 제1절에서 소개했었다.

이 외에 발해를 포함하는 대륙 북방계로 추측되는 토기·三彩壺·오비(帶)장식금구·釜·挂甲小札이 平城宮·京을 비롯해 北海道 이남의 일본해 연안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출토

64) 【秋田市教育委員會 1987, 1990】

65) 단, 【秋田城を語る友の會 1992-60】에서는 ‘下糧饗料’라고 읽고 있다.

되고 있지만 【酒寄雅志 1997b-247, 2001b-28, 2003-12~3】, 이 중에는 일본해를 횡단하여 직접 반입된 물건도 있다고 강조하는 견해 【木村英明 1996, 小嶋芳孝 1996ab】와 이들 중에는 오호츠크인이 일본해 측에도 진출하고 있던 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 【酒寄雅志 1997b-247~8】가 있다.

4. 渤海使·遣渤海使의 항로와 교통로

마지막으로 渤海使·遣渤海使의 왕래 루트에 관한 연구를 언급하고자 한다. 【上田雄 1986】은 발해와 일본과의 교섭 루트로서 東京 龍原府→일본의 北陸以東, 南京南海府→일본의 山陰·北陸이라는 2가지 일본해 횡단 루트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新野直吉 1994】는 沿海州에서 사할린·北海道를 경유하는 북쪽 경유 루트의 존재를 상정했고, 최근에는 【小嶋芳孝 1994, 1996a, 1997】가 북쪽 경유 루트 외에도 대륙과 東北·北海道와의 직접적인 교역 루트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河上洋 1989】는 五京과 唐·신라·일본·거란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밝히고, 【酒寄雅志 1997b-241】는 寶龜 7년(776)의 渤海使가 南京 南海府(府治는 咸鏡南道 北青郡 青海土城인가)의 吐号浦에서 출항하고 있는 것은 그 부근에 있던 穢이래의 전통적인 항해술을 갖고 있던 백산말갈(白山靺鞨) 등의 海洋民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발해는 785년부터 794년에 걸쳐 東京 龍原府(중국 琿春市 八連城으로 比定되고 있음)로 천도하고 있고, 여기는 《新唐書》 渤海傳에 의하면 ‘日本道’라고 하며 여기부터 러시아의 포시예트만의 크라스크노土城을 경유하여 일본해를 건너는 코스 of 출발점이 되고 있다.

渤海使가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는 【古畑徹 1994, 1995a, 1999, 上田雄 2002】와 같이 직접 일본해를 횡단한다고 하는 견해와 【稻垣直 1992, 田島公 1993】과 같이 일단 對馬 해류를 타고 일본해 연안을 북상하여 北海道 내지는 사할린 앞바다에서 리만해류를 갈아타서 沿海州 앞바다를 남하한다는 견해이다.

渤海使가 댄던 선박에 대해서 【上田雄 1986】은 한 척당 20명 전후인 시기(770년대 이전)와 60명 전후인 시기(780년대부터), 그리고 100명을 넘는 시기, 3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 분명히 사절의 총 인원수는 弘仁 14년 이후에는 100명 전후로 일정하지만, 그 인원수를 한 척의 배가 수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단, 平安時代에 들어서서는 일정한 인원수가 빈번하게 일본에 오고 있어서 발해의 조선 능력이 진보했음을 엿볼 수 있고, 【酒寄雅志 1997b-242·249】는 일본이 기술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渤海使에 대해서는 제8차 渤海使 烏須弗에 대한 太政官 처분에 있어서 “自今以後, 宜依旧例從筑紫道來朝”(《續日本紀》 寶龜 4年(773) 6月 24日條)라고 명하고 있고 이 北路를 통해 일본에 오는 것을 금하는 명령은 《續日本紀》 寶龜 8年 正月 20日條, 同 寶龜 10年 11月 9日條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寶龜 11年 7月 26日勅에서는 “今北陸之道, 亦供蕃客”이라며 위의 禁令이 해제되었다고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日本後紀》 延曆 23年(804) 6月 27日條에서는 能登國에 渤海使를 위한 客院이 설치된 사실이 나온다. 위의 北路에 대한 禁令은 蝦夷와 긴장 관계에 있었던 寶龜 2年 6월에 325명이라고 하는 전례가 없는 인원이 일본에 온 제7차 渤海使 壹萬福 때에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하여 【石井正敏 1970-570~2】는 對蝦夷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나온 조치이며 高구려의 계승국인 발해라는 관점에서 高구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大宰府에 가라는 명을 내린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⁶⁶⁾.

일본에서는 《扶桑略記》 延喜 19年(919) 12月 24日條에 渤海使를 ‘越前國松原驛館’에 安置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고, 《延喜式》 雜式에도 “凡越前國松原客館, 令氣比神宮檢校”라고 나오듯이 越前に 客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 松原客館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淺香年木 1983·1994, 田島公 1993, 館野和己 2003】.

渤海使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찾아낼 수 없지만, 9세기 후반이 되면 때로는 渤海人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무역상인의 움직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명한 사람으로는 850년대부터 870년대까지에 걸쳐 적어도 8회는 일본과 唐 사이를 왕래하고 円珍의 <台州公驗請狀>에 ‘渤海商主’라고 기록되어 있는 李延孝와 【黃約瑟 1993, 鈴木靖民 1999a】 동 <請狀>에 李延孝와 함께 열거되어 있는 李英覺, 《金液還丹百問訣》에 唐에서 일본에 건너와 활동했던 사실이 보이는 발해인 李光玄 【王勇 1999】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다루었던 ‘新羅商主’ ‘唐商’ 등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6) 渤海使의 大宰府 회항을 둘러싸고는 【Bruce Barton 1985, 中西正和 1990】도 언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 相田二郎, 1923 <金錢の融通から見た奈良朝の經師等の生活(上・下)> 《歴史地理》 41-2・3
- 明石一紀, 1975a <統一新羅の村制について> 《日本歴史》 322
- 明石一紀, 1975b <續・統一新羅の村制について> 《民衆史研究》 13
- 正倉院事務所, 1978 《正倉院寶物 北倉》, 朝日新聞社
- 秋田市教育委員會, 1987 《昭和61年度秋田城跡發掘調査概報》
- 秋田市教育委員會, 1990 《平成元年度秋田城跡發掘調査概報》
- 秋田城を語る友の會, 1992 《秋田城出土文字資料集Ⅱ》《秋田城跡調査事務所研究紀要》Ⅱ
- 秋山謙藏, 1939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 淺香年木, 1983 <能登客院考>, 石川考古學研究會編 《北陸の考古學》 26
- 淺香年木, 1994 《松原客館の謎にせまる - 古代敦賀と東アジア -》, 氣比史學會
- 足立喜六, 1970・1985 譯注・塩入良道補注 《東洋文庫 入唐求法巡禮行記1・2》, 平凡社
- 安部井正, 1989 <新羅村落文書に見える九等戸區分について> 《朝鮮學報》 133
- 荒川浩和, 1981 <新羅琴> 《特別展正倉院寶物》, 東京國立博物館
- 生田滋, 1991 <新羅の海賊> 《海と列島文化2 日本海と出雲世界》에 수록, 小學館
- 池内宏, 1961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第2冊에 수록, 吉川弘文館
- 池田溫, 1971 <裴世清と高表仁>, 후에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年
- 池田溫, 1995 <天寶後期の唐・羅・日關係をめぐって> 《春史下鱗錫教授還曆紀年唐史論叢》에 수록
- 石井正敏, 1970 <大宰府の外交機能と外交文書>,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 石井正敏, 1973 <日本通交初期における渤海の情勢について> 《法政史學》 25
- 石井正敏, 1974 <初期日本・渤海交渉における一問題>,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 石井正敏, 1975a <第一回渤海國書について>, 후에 <神龜四年, 渤海の日本通交開始とその事情> と改題し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 石井正敏, 1975b <日渤海交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について>, 후에 <日本・渤海交渉と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 と改題し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 石井正敏, 1976 <日唐交通と渤海>,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 石井正敏, 1979 <円仁と장보교 - 入唐日本人と新羅人> <關係人物小傳>, 上原和他編 《凶説人物海の日本史1 海上の道と古代人》, 毎日新聞社
- 石井正敏, 1981 <唐の<將軍吳懷實>について> 《日本歴史》 402号
- 石井正敏, 1983 <大伴古麻呂奏言について - 虚構説の紹介とその問題点 -> 《法政史學》 33号
- 石井正敏, 1985 <日本・唐・新羅三國で活躍した政商장보교> 《歴史讀本》 30-11
- 石井正敏, 1986 <《古語拾遺》の識語について> 《日本歴史》 462号
- 石井正敏, 1987 <八・九世紀の日羅關係>, 田中健夫編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에 수록,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1988 <九世紀の日本・唐・新羅三國間貿易について> 《歴史と地理》 394号

- 石井正敏, 1991 <大宰府・縁海國司と外交文書>,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 石井正敏, 1992 <古代東アジアの外交と文書>,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 石井正敏, 1994 <コラム 入唐僧円仁の見た異國と異國人>, 東野治之編 《朝日百科日本の歴史別冊4 歴史を讀みなおす4遣唐使船-東アジアのなかで》, 朝日新聞社
- 石井正敏, 1995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 石井正敏, 1998a <寶龜十年十月勅をめぐって>,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 石井正敏, 1998b <天長5年正月官符をめぐって>,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 石井正敏, 2001a <寛平六年の遣唐使計畫と新羅の海賊> 《アジア遊學》 26
- 石井正敏, 2001b <天平勝寶四年の新羅王子金泰廉來日の事情をめぐっ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2001c <日本・渤海關係の概要と本書の構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2001d <藤原緒嗣の《實是商旅, 不足隣客》云々發言をめぐっ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2001e <年定期制をめぐっ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2007 <《日本書紀》金春秋來日記事について>, 佐藤信他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에 수록, 山川出版社
- 石上英一, 1973 <日本古代における調庸制の特質> 《歴史學研究別冊特集 歴史における民族と民主主義》, 青木書店
- 石上英一, 1974 <古代における日本の税制と新羅の税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龍溪書舍
- 石上英一, 1979 <律令制時代への手引き7・8律令法と國家> 《歴史研究》 222・223号
- 石上英一, 1984 <古代國家と對外關係>, 歴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編 《講座日本歴史2 古代2》, 東京大學出版會
- 石上英一, 1987 <古代東アジア地域と日本> 《日本の社會史1列島内外の交通と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 石田茂作, 1930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仏教の研究》, 東洋文庫
- 石母田正, 1962 <日本古代における國際意識について>, 후에 《石母田正著作集4 日本古代國家論》에 수록, 岩波書店, 1989年
- 石母田正, 1963 <天皇と《諸蕃》>, 후에 《石母田正著作集4 日本古代國家論》에 수록, 岩波書店, 1989年
- 石母田正, 1964 <詩と蕃客>, 후에 《石母田正著作集10古代貴族の英雄時代》에 수록, 岩波書店, 1989年
- 石母田正, 1971 《日本の古代國家》, 후에 《石母田正著作集3日本の古代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89年
- 石母田正, 1973 <官僚制國家と人民>, 후에 《石母田正著作集3日本の古代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89年
- 伊東史朗, 1996 <同聚院不動明王像と園城寺新羅明神像-定朝様成立に至る図像と技法> 《國華》 1203(101-6)
- 稻垣直, 1992 <美保關から隱岐島まで(再考)> 《ぐんしょ(再刊)》 18(5-4)
- 井上和人, 2005 <渤海上京龍泉府形制新考> 田村晃一編 《東アジアの都城と渤海》에 수록, 財団法人

東洋文庫

- 井上辰雄, 1970 <<民部省式>をめぐる諸問題> 《日本歴史》 262
- 井上秀雄, 1971 <朝鮮・日本における國家の成立> 《岩波講座世界歴史6古代6東アジア世界の形成Ⅲ》, 岩波書店
- 井上秀雄, 1972 《NHKブックス172 古代朝鮮》, 日本放送協會
- 井上光貞, 1963 <冠位十二階の史的意義>, 후에 《井上光貞著作集第1卷日本古代國家の研究》에 수록, 岩波書店, 1985年
- 井上光貞, 1965 <日本における仏教統制機關の確立過程>研究>, 후에 《井上光貞著作集1日本古代國家の研究》에 수록, 岩波書店, 1985年
- 今西龍, 1933 <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を讀みて> 《新羅史研究》에 수록, 近澤書店, 후에國書刊行會, 1970年復刊
- 井實充史, 1994 <『於長王宅宴新羅客』詩の論> 《上代文學》 73
- 井實充史, 2004 <滋野貞主『春日奉使入渤海客館』> 《アジア遊學》 64
- 岩佐貫三, 1965 <シナ司命思想の日本的受容 泰山府君と赤山明神を例として>, 東洋大學東洋學研究所, 《東洋學研究》 1
- 石見清裕, 1999 <唐朝發給の《國書》一覽> 《アジア遊學》 3号
- 尹善泰, 1995 <正倉院所藏新羅村落文書の 作成年代－日本の 華嚴經論 流通狀況을 中心으로－> 《震檀學報》 80, 한글
- 尹善泰, 1996 <新羅村落文書の 作成年代와 記載樣式－中國日本の 帳籍文書와의 比較檢討를 中心으로－> 《歷史學會月例發表會發表文》 332回, 한글
- 尹善泰, 1997a <正倉院 所藏佐波理加盤付屬文書の 新考察> 《國史館論叢》 74, 한글
- 尹善泰, 1997b <752年新羅交易과 『買新羅物解』－正倉院所藏貼布記의 解釋을 中心으로－> 《歷史と現實》 24号, 한글
- 尹善泰, 1998 <新羅의 力祿과 職田－祿邑研究의 進展을 위한提言－> 《韓國古代史研究》 13, 한글
- 尹善泰, 2000a <新羅統一期王室의 村落支配－新羅古文書와 木簡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博士學位論文, 한글
- 尹善泰, 2000b <新羅村落文書の 記載樣式과 用途>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下)》에 수록, 서울大學校出版部, 한글
- 尹善泰, 2003 <新羅村落文書研究의 現狀>, 新川登龜男・早川万年編 《美濃國戶籍の總合的研究》에 수록, 東京堂出版
- 上田雄, 1986 <渤海使の海事史的研究> 《海事史研究》 43
- 上田雄, 2002 《渤海使の研究》, 明石書店
- 上法香苗, 1957 <秋田市新城の古代窯址群について> 《秋田考古學》 8
- 請田正幸, 1978 <七世紀末の兵政官－新羅官制と比較して－> 《ヒストリア》 81号
- 江浦洋, 1988 <日本出土の統一新羅系土器とその背景> 《考古學雜誌》 74-2
- 江浦洋, 1992 <古代日羅關係の考古學的檢討 I> 考古學を學ぶ會《考古學論集》 4
- 江浦洋, 1994 <海をわたった新羅の土器－土器からみた古代日羅交流の考古學的研究> 荒木敏夫編 《古代王權と交流5 ヤマト王權と交流の諸相》에 수록, 名著出版
- 榎本淳一, 2003 <渤海が傳えた<大唐淄青節度使康志噎交通之事>について>, 후에 《唐王朝と日本》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8年
- 榎本涉, 2001 <明州市舶司と東シナ海域>, 후에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에 수

록, 吉川弘文館, 2007年

榎本涉, 2007 <新羅海商と唐海商>佐藤信他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에 수록, 山川出版社

遠藤光正, 1995a <渤海國使と勅撰漢詩集> <<東洋文化>>復刊75

遠藤光正, 1995b <渤海國使王孝廉と<<文華秀麗集>>> <<東洋研究>> 116

遠藤光正, 2001 <渤海大使王文矩と嵯峨天皇の打毬詩> <<東洋文化>>復刊86号

遠藤元男, 1966 <貞觀期の日羅關係について> <<駿台史學>> 19

王勇, 1999 <渤海商人李光玄について - <<金液還丹百問訣>>の史料紹介を兼ねて - > <<アジア遊學>>
6

大石良材, 1971 <大刀契>, 후에 <<日本王權の成立>>에 수록, 塙書房, 1975年

大隅清陽, 2008 <律令制成立の諸問題>, 大津透編 <<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에 수록, 山川出版社

太田英比古, 1974 <陽成帝朝前期に於ける新羅來寇への危機意識 - 「弩師」設置問題を中心として>
<<政治經濟史學>> 100

大津透, 2004 <『日本』の成立と律令國家> <<上代文學>> 92号

大津透, 1987 <近江と古代國家>, 후에 <<律令國家支配構造の研究>>에 수록, 岩波書店, 1993年

大庭康時・松川博一, 2007 <鴻臚館跡出土の木簡・年代・トイレ> <<木簡研究>> 29号

大平聰, 2009 <留學生・僧による典籍・仏書の日本將來 - 吉備眞備・玄昉・審祥 - >, 専修大學社會知性開發研究センター<<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 2号

大町健, 1992 <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律令國家> <<新版 古代の日本2 アジアから見た古代日本>>에 수록, 角川書店

大町健, 2004 <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律令國家> 歴史學研究会・日本史研究会編 <<日本史講座2律令國家の展開>>, 東京大學出版會

大類伸, 1918 <怡土築城考> <<歴史地理>> 31-4

岡田精司, 1983 <大王就任儀禮の原形とその展開 - 即位と大嘗祭 - >, 후에 岩井忠熊他編 <<天皇代替り儀式の歴史的展開 - 即位儀と大嘗祭>>에 수록, 柏書房, 1989年, 更に <<古代祭祀の史的研究>>에 수록, 塙書房, 1992年

岡部明日香, 2004 <桑腹赤『和渤海入觀副使公賜對龍顔之作一首』> <<アジア遊學>> 62

岡部明日香, 2005 <王孝廉『在辺亭賦得山花戲寄兩箇領客使并滋三一首』> <<アジア遊學>> 72

荻美津夫, 1995 <古代芸能を通じてみた日本と渤海交流>, 新潟大學環日本海研究會 <<環日本海論叢 - 渤海と環日本海交流 - >> 8

奥田尚, 1975 <天平初期における日羅關係について>, 時野谷勝教授退官記念會編 <<日本史論集>>에 수록, 清文堂出版

奥田尚, 1991 <『續日本紀』の渤海國王からの國際文書の周辺記事> <<追手門學院大學文學部紀要>> 25

奥村佳紀, 1971 <新羅人の來航について> <<駒澤史學>> 18

尾崎喜左雄, 1964 <上野における韓來文化>, 金正柱編 <<韓來文化の後榮>> 下卷에 수록, 韓國資料研究所

小野勝年, 1964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全4册, 鈴木學術財団

鏡山猛, 1937 <怡土城趾調査> <<日本古代文化研究所報告>> 6

大日方克己, 2000 <日本・渤海間の交通と山陰諸國>, 島根大學法文學部 <<社會システム論集>> 5

大日方克己, 2003 <宣明曆と日本・渤海・唐をめぐる諸相>, 佐藤信編 <<日本と渤海の古代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寛敏生, <百濟王姓の成立と日本古代帝國> <<日本史研究>> 317

- 笠井純一, 1994 <大刀契と即位儀禮> 續日本紀研究會編 《續日本紀の時代》, 塙書房
- 加藤順一, 2004 <文士と外交> 三田古代史研究會編 《政治と宗教の古代史》에 수록,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金子修一, 1998 <唐朝より見た渤海の名分的位置付けについて>, 후에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에 수록, 名著刊行會, 2001年
- 金子修一, 2001 <唐代國際關係における日本の位置>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에 수록, 名著刊行會
- 金子修一, 2003 <日本から渤海に与えた國書に関する覺書>, 佐藤信編 《日本と渤海の古代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 兼若逸之, 1976 <新羅古文書を 둘러싼 問題에 대해서 - 計烟計算의 『基本數』 및 그 『數數化』를 批判한다 -> 《韓國史研究》 14, 한글
- 兼若逸之, 1979a <新羅 『均田成冊』의 研究 - 이른바 民政(村落)文書의 分析을 中心으로 -> 《韓國史研究》 23, 한글
- 兼若逸之, 1979b <新羅 『均田成冊』에서의 烟人動態의 復原試圖> 《韓國史研究》 27, 한글
- 兼若逸之, 1980 <新羅 『均田成冊』에서 推定되는 平均壽命> 《韓國史研究》 30, 한글
- 兼若逸之, 1984a <新羅 『均田成冊』에서의 烟人動態의 實態> 《誠信研究論文集》 17, 한글
- 兼若逸之, 1984b <新羅 『均田成冊』의 分析을 통해서 본 村落支配의 實態>, 延世大學校博士學位論文, 한글
- 加島吉春, 2005 <王孝廉 「春日對雨.探得情字.一首」> 《アジア遊學》 71
- 鎌田茂雄, 1965 <武周革命における華嚴思想の形成> 《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에 수록, 東京大學出版會
- 鎌田元一, 2005 <第一次遣渤海使の發遣年次>, 후에 《律令國家史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2008年
- 龜井明德, 1991 <鴻臚館貿易>, 平野博之他編 《新版古代の日本③九州》에 수록, 角川書店
- 蒲生京子, 1979 <新羅末期の張保臯の抬頭と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 川勝政太郎, 1962 <平安京の鴻臚館について>, 古代學協會編 《桓武朝の諸問題》에 수록
- 河上洋, 1989 <渤海の交通路と五京> 《史林》 72-6
- 河上麻由子, 2008 <遣隋使と仏教> 《日本歴史》 717
- 川尻秋生, 1997 <國立歷史民俗博物館藏 『大刀節刀契等事小右記中右記拔書』> 《日本歴史》 586
- 河田貞, 1981 <正倉院寶物に關連する近年の新羅古蹟出土遺物> 《MUSEUM》 369
- 川本芳昭, 2004 <隋書倭國傳と日本書紀推古紀の記述をめぐって> 《史淵》 141
- 韓昇, 2005 <白村江開戰前夜における唐と新羅・日本との關係> 《東アジアと日本-交流と変容》 2
- 木内武男, 1981 <作品解説(金薄押新羅琴)> 《太陽 正倉院シリーズIV》 28号
- 岸俊男, 1969 <家・戸・保>, 후에 《日本古代籍帳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1973年
- 北啓太, 1984 <天平四年の節度使> 土田直鎮先生選曆記念會編 《奈良平安時代史論集》 上卷에 수록, 吉川弘文館
- 北村秀人, 1982a <朝鮮における 『律令制』 の変質>, 井上光貞他編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7 東アジアの変貌と日本律令國家》에 수록, 學生社
- 北村秀人, 1982b <新羅の滅亡と高麗の建國> 井上光貞他編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7 東アジアの変貌と日本律令國家》에 수록, 學生社
- 鬼頭清明, 1968 <八, 九世紀における出舉錢の存在形態>, 후에 《日本古代都市論序說》에 수록, 法政大學出版局, 1977年

- 鬼頭清明, 1969 <新羅と日本との貿易>, 井上秀雄編 <セミナー日朝關係史 I>에 수록, 櫻楓社
- 鬼頭清明, 1970 <七世紀後半の國際政治史試論>, 후에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에 수록, 校倉書房, 1976年
- 鬼頭清明, 1978 <日本の律令官制の成立と百濟の官制>, 彌永貞三先生還曆記念會編 <日本古代の社會と經濟> 上에 수록, 吉川弘文館
- 鬼頭清明, 1981 <白村江>, 教育社歴史新書
- 木村英明, 1996 <文化のクロスロード>, 第10回 <大學と科學> 公開シンポジウム組織委員會編 <北方文化と日本列島>에 수록, クバプロ
- 木村誠, 1976 <新羅の祿邑制と村落構造>, 후에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4年
- 木村誠, <新羅村落文書の作成年について>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4年
- 金義煥, 1982~1984 <朝鮮文化史研究(上)~(下)> <帝塚山短期大學紀要(人文・社會科學編)> 19~21
- 金鉉球, 1983 <初期の日・唐關係に關する一考察-『日本書紀』“高表仁來日”記事を中心に-> <日本歷史> 423
- 金鉉球, 1985 <大化改新と日・羅・唐の三國連合体制の成立>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 金壽泰, 2001 <新羅村落帳籍研究의 爭点> <韓國古代史研究> 21, 한글
- 金東賢, 1976 <雁鴨池發掘參觀略記> <佛教芸術> 109
- 金文經, 2001 (高慶秀譯) <在唐新羅人社會と仏教-入唐求法巡禮行記を中心にして> <アジア遊學> 26
- 熊谷公男, 1981 <墨(新羅の墨)> <特別展正倉院寶物>, 東京國立博物館
- 倉田文作, 1963 <園城寺新羅明神像> <古美術3 日本の神・神像彫刻>, 三彩社
- 倉住靖彦, 1992 <大宰府論-その對外的機能を中心に->, 荒野泰典他編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II・外交と戰爭>에 수록, 東京大學出版會
- 倉本一宏, 1993 <律令制成立期の<皇親政治>>, 후에 <日本古代國家成立期の政權構造>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7年
- 栗原朋信, 1967 <上代の日本へ對する三韓の外交形式>, 후에 <上代日本對外關係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78年
- 黒田智, 2001 <史料紹介 新羅明神記> <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紀要> 11
- 黒田裕一, 1998 <推古朝における『大國』意識> <國史學> 165号
- 黃純艶, 2008 <新羅人在中國南方地區的活動>, 嚴耀中主編 <唐代國家与地域社會研究>에 수록, 上海古籍出版社
- 河内春人, 1995 <東アジアにおける安史の亂の影響と新羅征討計畫> <日本歷史> 561号
- 河内春人, 1996 <大寶律令の成立と遣唐使派遣> <續日本紀研究> 305号
- 河内春人, 2000 <新羅使迎接の歷史的展開> <ヒストリア> 170号
- 河野貴美子, 2004 <釋仁貞「七日禁中陪宴詩」> <アジア遊學> 60
- 河野貴美子, 2008 <渤海使と平安時代の宮廷文學>, 仁平道明編 <王朝文學と東アジアの宮廷文學>에 수록, 竹林舎
- 高明士, 1977 <日本古代學校教育的興衰與中國的關係>, 學海出版社
- 黃約瑟, 1993 <“大唐商人”李延孝与九世紀中日關係> <歷史研究> 1993-4
- 小島憲之, 1964校注 <日本古典文學大系 懷風藻・文華秀麗集・本朝文粹>, 岩波書店

- 小嶋芳孝, 1994 <日本と渤海を結ぶ海の架け橋－古代日本海域の航路> 《越の海, 波濤の海－古代國際交流の據点・北陸－》에 수록, 北陸電力
- 小嶋芳孝, 1996a <蝦夷とユーラシア大陸の交流>鈴木靖民編 《古代王權と交流 I 古代蝦夷の世界と交流》에 수록, 名著出版
- 小嶋芳孝, 1996b <古代日本と渤海> 《考古學ジャーナル》 411
- 小嶋芳孝, 1997 <日本海の島々と靺鞨・渤海の交流> 《境界の日本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 後藤昭雄, 2003 <王孝廉「奉勅陪内宴詩」> 《アジア遊學》 57
- 小林芳規, 2002a <新羅の角筆文獻>, 후에 《角筆文獻研究導論 上卷 東アジア篇》에 수록, 汲古書院, 2004年
- 小林芳規, 2002b<朝鮮半島の角筆文獻>, 후에 《角筆文獻研究導論 上卷 東アジア篇》에 수록, 汲古書院, 2004年
- 小林芳規, 2002c<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 大谷大學図書館報《書香》 19
- 小林芳規, 2005 《角筆文獻研究導論 別卷 資料編》, 汲古書院
- 小林芳規, 2008 <角筆による新羅語加点的華嚴經> 《南都仏教》 91号
- 崔吉成, 1960 <新羅における自然村落的均田制－旗田氏の《新羅の村落》に關する若干の問題－> 《歴史學研究》 237号
- 佐伯有清, 1964 <九世紀の日本と朝鮮>, 후에 《日本古代の政治と社會》에 수록, 吉川弘文館, 1970年
- 佐伯有清, 1978 《講談社現代新書520 最後の遣唐使》, 講談社
- 佐伯有清, 1991 <背奈氏の氏称とその一族> 《成城文芸》 136
- 坂上早魚, 1988 <九世紀の日唐交通と新羅人> 《文明のクロスロード Museum Kyushu》 28号
- 坂上康俊, 1999 <大寶令制定前後における日唐間の情報傳播>池田温・劉俊文編 《日中文化交流史叢書 2 法律制度》, 大修館書店
- 坂上康俊, 2001 《律令國家の轉換と「日本」》, 講談社
- 坂上康俊, 2004 <勅令下達文書の比較研究> 《東アジアと日本》創刊号
- 坂上康俊, 2008 <古代の日韓關係のなかでの戦争と記憶>韓日關係史學會・東北アジア歴史財団編 《戰爭と記憶の中の韓日關係》에 수록, 景仁文化社
- 阪田宗彦, 1974 <法隆寺の佐波理遺品> 《ミュージアム》 280号
- 坂本太郎, 1932 <正倉院文書出雲國計會帳に見えたる節度使と四度使>, 후에 《坂本太郎著作集7律令制度》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9年
- 坂本太郎, 1955 <天智紀の史料批判>, 후에 《坂本太郎著作集2古事記と日本書紀》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8年
- 坂本義種, 1967-68 <古代東アジアの國際社會>, 후에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에 수록, 吉川弘文館, 1978年
- 酒寄雅志, 1977a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 酒寄雅志, 1977b<怡土城に關する一考察> 《續日本紀研究》 194号
- 酒寄雅志, 1979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 酒寄雅志, 1985a <渤海國中台省牒の基礎的研究>,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 酒寄雅志, 1985b<渤海國中台省牒の位置について>,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酒寄雅志, 1988 <渤海通事の研究> 《枳木史學》 2号

酒寄雅志, 1997a <雅樂<新靺鞨>にみる古代日本と東北アジア>,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酒寄雅志, 1997b <日本と渤海・靺鞨の交流>,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酒寄雅志, 1998a <海を渡った渤海樂> 《しにか》 9-9

酒寄雅志, 1998b <平城京出土の渤海木簡> 《しにか》 9-9

酒寄雅志, 2001a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酒寄雅志, 2001b <渤海史研究の成果と課題>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酒寄雅志, 2003 <渤海の交易>佐藤信編 《日本と渤海の古代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酒寄雅志, 2005 <円仁の足跡を訪ねて - 山東半島>平成13年度~平成16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2))研究成果報告書《『入唐求法巡禮行記』に關する文獻校定および基礎的研究》(研究代表者: 田中史生)

定森秀夫, 1999 <新羅土偶と樂器> 《九州歴史大學講座》 9-6

佐藤信, 1997 <古代の《大臣外交》についての一考察>, 村井章介他編 《境界の日本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佐藤全敏, 2007 <古代日本の四等官制>, 후에 《平安時代の天皇と官僚制》에 수록, 東京大學出版會, 2008年

重松敏彦, 1997 <平安初期における日本の國際秩序構想の変遷 - 新羅と渤海の位置づけの相違から -> 《九州史學》 118・119合併号

下向井龍彦, 1995 <軍縮と軍擴の奈良時代> 《歷博》 71

蔣義喬, 2005 <王孝廉「和坂領客對月思鄉見贈之作」> 《アジア遊學》 73

新川登龜男, 1988 <日羅問の調(物産)の意味>, 후에<調(物産)の意味>로 제목을 바꾸어《日本古代の對外交渉と仏教》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9年

新川登龜男, 1993 <入唐求法の諸様相 - 義湘そして円仁・道昭>, 후에<入唐求法の諸相>로 제목을 바꾸어 《日本古代の對外交渉と仏教》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9年

新藏正道, 1995 <大寶の遣唐使派遣の背景> 《續日本紀研究》 293号

新藏正道, 1999 <養老遣唐使の唐服着用のもつ意味>, 藺田香融編 《日本古代社會の史的展開》에 수록, 塙書房

任継愈, 1994 《漢唐仏教思想論集》, 人民出版社

末木文美士, 1992 《日本仏教史》, 후에 新潮文庫, 1996年

末松保和, 1933 <日韓關係>, 후에 《古代の日本と朝鮮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四》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6年

末松保和, 1974 <郡縣制完成期の問題点>, 후에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2 新羅の政治と社會》 下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5年

末松保和, 1933 <日韓關係>, 후에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4 古代の日本と朝鮮》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6年

菅澤庸子, 1990 <古代日本における高麗の殘像> 《史窓》 47

杉本一樹, 1990 <鳥毛立女屏風に用いられた文書故紙について>, 후에 《日本古代文書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鈴木拓也・熊田亮介, 1995 <古代東北の海道・陸道> 《東北開發研究》 97

- 鈴木英夫, 1980 <七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の對倭外交>, 후에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에 수록, 青木書店, 1996年
- 鈴木靖民, 1967a <奈良初期の對新羅關係>,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 鈴木靖民, 1967b <養老期の對新羅關係>,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 鈴木靖民, 1968 <天平初期の日羅關係>, 후에 <天平初期の對新羅關係>と改題して《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 鈴木靖民, 1969 <奈良時代における對外意識>,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 鈴木靖民, 1974 <日本律令制の成立・展開と對外關係>,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 鈴木靖民, 1977 <正倉院佐波里加盤付屬文書の基礎的研究>,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 鈴木靖民, 1978 <正倉院佐波理加盤付屬文書の解讀>,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 鈴木靖民, 1982a <正倉院の新羅文物>,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 鈴木靖民, 1982b <日本律令國家と新羅・渤海>,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 鈴木靖民, 1990 <八世紀の新羅と日本の文化交流> 《古代の日本と韓國5 古代の新羅と日本》에 수록, 學生社
- 鈴木靖民, 1994 <東アジアにおける國家形成> 《岩波講座日本通史3古代2》에 수록
- 鈴木靖民, 1997 <平城京の新羅人と新羅文化>, 武田幸男編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에 수록, 山川出版社
- 鈴木靖民, 1999a <渤海の遠距離交易と荷担者> 《アジア遊學》 6
- 鈴木靖民, 1999b <渤海國家の構造と特質－首領・生産・交易－> 《朝鮮學報》 17
- 鈴木靖民, 2005 <新羅の文字の傳播> 《日本歴史》 685
- 鈴木靖民, 2007 <古代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と新羅>, 佐藤信他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에 수록, 山川出版社
- 鈴木靖民, 2008a <日本古代の神信仰の展開と仏教信仰>, 鈴木靖民編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에 수록, 勉誠出版
- 鈴木靖民, 2008b <日本律令の成立と新羅>, 大津透編 《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에 수록, 山川出版社
- 關晃, 1954 <新羅沙門行心>, 후에 《關晃著作集3古代の歸化人》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6年
- 關晃, 1955 <遣新羅使の文化史的意義>, 후에 《關晃著作集3古代の歸化人》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6年
- 關根眞隆, 1969 <奈良時代の廚房用具> 《奈良朝食生活の研究》, 吉川弘文館
- 關根眞隆, 1975 <大陸と日本との文物の交流はどのようであったか>, 森克己他編 《海外交渉史の視點1 原始・古代・中世》에 수록, 日本書籍
- 關根眞隆, 1982 《万葉流轉－寧樂史私考－》, 教育社
- 關幸彦, 1989 <平安期, 二つの海防問題－寛平期新羅戰と寛仁期刀伊戰の検討> 《古代文化》 41-10
- 千田剛道, 1996 <出土品からみた國際交流>, 田中琢編 《岩波新書468 古都發掘－藤原京と平城京－》,

岩波書店

- 千田剛道, 2006 <平城京出土の新羅土器> 《奈良文化財研究所紀要》 2006
- 千田稔, 2003 <中國の國際交易活動-장보고의海上王國について>, 千田稔他編 《東アジアと《半島空間》-山東半島と遼東半島-》에 수록, 思文閣出版
- 宋浣範, 2003 <正倉院所藏『華嚴經論帙內貼文書』(いわゆる新羅村落文書)について> 《東京大學日本史學研究室紀要》 7
- 宋浣範, 2005 <7世紀の倭國と百濟-百濟王子豊璋の動向を中心に> 《日本歴史》 686
- 曾根正人, 2007 《聖德太子と飛鳥仏教》, 吉川弘文館
- 藪田香融, 1964 <護り刀考>, 후에 《日本古代の歸屬と地方豪族》에 수록, 塙書房, 1992年
- 高島正人, 1971 <日唐兩學令の一考察> 《社會文化史學》 7号
- 高梨純次, 1998 <園城寺新羅善神堂> 《週刊朝日百科1183 日本の國寶77》, 朝日新聞社
- 瀧川政次郎, 1939 <日渤打毬の競技> 《滿支史說史話》에 수록, 日光書院
- 瀧川政次郎, 1954 <紫微中台考>, 후에 《法制史論集第四冊 律令諸制及び令外官の研究》에 수록, 名著普及會, 1986年
- 瀧川政次郎, 1961 <怡土城大宰府主船司> 《史跡と美術》 315・317
- 瀧川政次郎, 1963 <江都集禮と日本の儀式>, 岩井博士古稀記念事業會編 《岩井博士古稀記念典籍論集》에 수록
- 瀧川政次郎, 1977 <山陰道節度使-日本海沿岸の國防-> 《國學院大學紀要》 15
- 武田幸男, 1967 <高麗朝における功蔭田柴科法の意義> 《前近代アジアの法と社會》에 수록, 剗草書房
- 武田幸男, 1971 <律令國家群の形成(朝鮮の律令制)> 《岩波講座世界歴史6古代6東アジア世界の形成Ⅲ》에 수록, 岩波書店
- 武田幸男, 1974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朝鮮史研究會編・旗田巍監修《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 武田幸男, 1976 <新羅の村落支配-正倉院所藏文書の追記をめぐって-> 《朝鮮學報》 81
- 武田幸男, 1985 <新羅“毗曇の亂”の一視角>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歴史編》에 수록, 平凡社
- 武田幸男, 2000 <高麗王朝の興亡と國際情勢>, 武田幸男編 《世界各國史2朝鮮史》, 山川出版社
- 田島公, 1985 <日本の律令國家の『賓禮』> 《史林》 68-3
- 田島公, 1986 <外交と儀禮> 《古代の日本》 7卷, 中央公論社
- 田島公, 1988 <「氏爵」の成立-儀式・奉仕・叙位-> 《史林》 71-1
- 田島公, 1991 <海外との交渉>, 橋本義彦編 《古文書の語る日本史 平安》에 수록, 筑摩書房
- 田島公, 1993a <奈良・平安初期の對外交渉> 《福井縣史 通史編一》에 수록, 福井縣
- 田島公, 1993b <日本, 中國・朝鮮對外交流史年表>, 榎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編 《貿易陶磁-奈良・平安の中國陶磁》에 수록, 臨川書店
- 田島公, 1995 <大宰府鴻臚館の終焉> 《日本史研究》 389号
- 立花大輔, 2009 <古代日本・朝鮮半島における戸の編成>,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府修士論文
- 辰巳正明, 1990 <長屋王と作寶樓の文學(新羅使人を送る, 作寶樓に置酒す)>, 후에 《万葉集と中國文學 第二》에 수록, 笠間書院, 1993年
- 館野和己, 2003 <松原客館と渤海使>, 藤井讓治編 《街道の日本史31 近江・若狹と湖の道》에 수록, 吉川弘文館
- 田中史生, 1994 <「王」姓賜与と日本古代國家>, 후에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에 수록, 校

- 倉書房, 1997年
- 田中史生, 1997 <筑前國における銀の交通と國際交易>, 후에 대폭 증보하여, <『歸化』と『流來』と『商賈の輩』>로 제목을 바꾸어,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에 수록, 校倉書房, 1997年
- 田中史生, 2005 <承和期前後の國際交易－장보고·文室宮田麻呂·円仁とその周辺>平成13年度～平成16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2))研究成果報告書<『入唐求法巡禮行記』に關する文獻校定および基礎的研究>(研究代表者:田中史生)
- 田中史生, 2007 <江南の新羅人交易者と日本>, 佐藤信·藤田覺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에 수록, 山川出版社
- 田中正日子, 1989 <古代の海外交流とその意義> <文明のクロスロード Museum Kyushu> 32
- 田村圓澄, 1979 <新羅送使考> <朝鮮學報> 90
- 田村圓澄, 1999 <古代日本の國家と仏教－東大寺創建の研究－>, 吉川弘文館
- 辻善之助, 1915 <新羅明神考 附 三井寺の起り>, 후에 <日本仏教史之研究>에 수록, 金港堂書籍, 1919年
- 角田文衛, 1963 <人物叢書 佐伯今蝦夷>, 吉川弘文館
- 鄭孝雲, 1990 <天智朝と“百濟の役”> <韓> 116
- 出越茂和, 1994 <石川·戸水大西遺跡> <木簡研究> 16
- 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 <天一閣藏明抄本天聖令考証>, 中華書局
- 田鳳德, 1971 <新羅の律令攷>, 渡部學·李丙洙譯<李朝法制史>에 수록, 北望社. 원관은 <新羅律令攷> <韓國法制史研究(暗行御史研究其他)>에 수록, 서울大學出版部, 1968年, 첫 發表 1956
- 東野治之, 1971 <四等官制成立以前における我國の職官制度>, 후에 <長屋王家木簡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1996年
- 東野治之, 1974 <鳥毛立女凶屏風下貼文書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1977年
- 東野治之, 1977 <正倉院氈の墨書と新羅の對外交易>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 東野治之, 1980 <護身劍銘文考>, 후에 <日本古代木簡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1983年
- 東野治之, 1984 <日唐間における渤海の中繼貿易> <遣唐使と正倉院>에 수록, 岩波書店, 1992年
- 東野治之, 1992 <日出處·日本·ワークワーク> <遣唐使と正倉院>에 수록, 岩波書店
- 戶田芳實, 1967 <領主的土地所有の先驅形態> <日本領主制成立史の研究>에 수록, 岩波書店
- 友寄隆史, 1979 <節度使設置について> <立正史學> 45号
- 虎尾俊哉, 1974a <ミヤケの土地制度に關する一試論－新羅國民政文書の檢討を通じて－>, 후에 <日本古代土地法史論>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1年
- 虎尾俊哉, 1974b <新羅文書の『計烟』算法>, 후에 <古代典籍文書論考>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2年
- 鳥山喜一, 1915 <渤海史考>, 東京奉公會, 후에 原書房, 1977年復刊
- 鳥山喜一, 1968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 內藤雋輔, 1961 <新羅人の海上活動に就いて> <朝鮮史研究>에 수록, 東洋史研究會
- 長瀬一平, 1986 <白村江敗戦後における『百濟王權』について> <千葉史學> 6
- 中西正和, 1990 <新羅使·渤海使の來朝と大宰府－大宰府の外交的機能について－> <古代史の研究> 8
- 中西正和, 1997 <大宰府と存問>, 横田健一編 <日本書紀研究> 21册, 塙書房
- 中西正和, 1998 <渤海使の來朝と天長五年正月二日官符> <ヒストリア> 159号

- 中西正和, 1999 <大宰府の國書開封について>, 藪田香融編 <日本古代社會の史的展開>에 수록, 塙書房
- 中野高行, 1984 <慰勞詔書に關する基礎的考察>, 후에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에 수록, 岩田書院, 2008年
- 中野高行, 1987 <慰勞詔書と『對蕃使詔』の關係>, 후에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에 수록, 岩田書院, 2008年
- 中野高行, 1997 <日本古代における外國使節處遇の決定主体> <日本歴史> 593号
- 中野政樹, 1976 <正倉院の金工 總説> <正倉院の金工>에 수록, 日本經濟新聞社
- 中野政樹編, 1978 <日本の美術141正倉院の金工>, 至文堂
- 中野政樹, 1981 <正倉院寶物の佐波理加盤鏡> <ミュージアム> 368
- 中野政樹·李蘭暎, 1978 <對談 正倉院の中の新羅文物>, 中野政樹編 <日本の美術141正倉院の金工>에 수록, 至文堂
- 中村成里, 2004 <巨勢識人「春日錢野柱史奉使存問渤海客」> <アジア遊學> 69
- 中村榮孝, 1927 <後百濟および高麗太祖の日本通使>, 후에 <日鮮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65年
- 中村裕一, 1979 <咸和一一年渤海國中台省牒について - 古代東アジア國際文書の一形式>, 후에 <渤海國咸和一一年(八四一)中台省牒 - 古代東亞國際文書の一形式>으로 제목을 바꾸어 <唐代官文書研究>에 수록, 中文出版社, 1991年
- 中村順昭, 1992 <奉寫一切經所の月借錢について>, 후에 <律令官人制と地域社會>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8年
- 那波利貞, 1954~6 <唐代の敦煌地方に於ける朝鮮人の流寓に就きて> <文化史學> 8~10
-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編, 1991 <平城京長屋王邸宅と木簡>, 吉川弘文館
- 成澤光, 1975 <蕃國と小國>, 후에 <政治のことば>에 수록, 平凡社, 1984年
- 成瀬正和, 1991 <凶版解説(樂器) 金薄押新羅琴 柱>, 松本包夫編 <正倉院寶物にみる樂舞·遊戯具>에 수록, 紫紅社
- 新妻利久, 1969 <渤海國史及び日本との國交史の研究>, 東京電機大學出版局
- 新野直吉, 1994 <肅愼から靺鞨へ> <古代日本と北の海みち>에 수록, 高科書店
- 西嶋定生, 1962 <六~八世紀の東アジア>, 후에 <東アジア世界と冊封体制-六~八世紀の東アジア>로 제목을 바꾸어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에 수록, 東京大學出版會, 1983年
- 西嶋定生, 1981 <七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5隋唐帝國の出現と東アジア>에 수록, 學生社
- 西別府元日, 2000 <九世紀前半の日羅交易と紀三津の「失使旨」事件>, 후에 岸田裕之編 <中國地域と對外關係>에 수록, 山川出版社, 2003年
- 西本昌弘, 1985 <豊璋と翹岐> <ヒストリア> 107
- 西本昌弘, 1987 <東アジアの動亂と大化改新> <日本歴史> 468
- 野村忠夫, 1953 <正倉院より發見された新羅の民政文書について> <史學雜誌> 62-4
- 野村忠夫, 1970 <戰後の律令官人制研究> <律令官人制の研究 増訂版>에 수록, 吉川弘文館
- バー튼, ブルース, 1985 <律令制下における新羅使·渤海使の接待法 - 大宰府外交機能の解明へ -> <九州史學> 83号
- 白化文·李鼎霞·許德楠, 2007 <日唐求法巡禮行記校注>, 花山文芸出版社
- 橋川正, 1920 <日本世記の著者高麗沙門道顯> <歴史と地理> 6-5

- 橋本義則, 1984 <平安宮草創期の豊樂院>, 후에 <平安宮成立史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1994년
- 旗田巍, 1958·59 <新羅の村落－正倉院にある新羅村落文書の研究－>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에 수록, 法政大學出版局, 1972년
- 旗田巍, 1962 <十～十二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岩波講座日本歴史>古代4, 岩波書店
- 浜田久美子, 2002 <延喜式に見える外國使節迎接使－太政官式蕃客條と治部式蕃客條の検討－> <延喜式研究> 18
- 浜田久美子, 2003 <古代日本における賓禮の受容>, 佐藤信編 <日本と渤海の古代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 浜田久美子, 2005 <渤海國書にみる八世紀日本の對外認識－啓と表の考察を通して> <國史學> 185号
- 浜田久美子, 2006 <漢詩文にみる弘仁六年の渤海使> <法政史學> 66号
- 浜田久美子, 2006 <弘仁十二年の渤海使－『經國集』の漢詩を手がかりに> <法政大學大學院紀要> 57号
- 浜田久美子, 2008 <九世紀の日本と渤海> <ヒストリア> 210号
- 濱田耕策, 1979 <聖德王代の政治と外交>, 후에 <新羅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년
- 濱田耕策, 1980 <國學と遣唐留學生>, 후에 <新羅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년
- 濱田耕策, 1983 <中代・下代の内政と對日本外交>, 후에 <新羅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년
- 濱田耕策, 1984 <祀典と名山大川の祭祀>, 후에 <新羅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년
- 濱田耕策, 1986 <『新羅村落文書』研究の成果と課題－その作成年および内省の祿邑説を中心に－> 唐代史研究會編 <律令制－中國朝鮮の法と國家>에 수록, 汲古書院
- 濱田耕策, 1990 <迎賓機構>, 후에 <新羅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년
- 濱田耕策, 1997 <對日外交の終幕>, 후에 <新羅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 濱田耕策, 1982 <新羅の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후에 <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로 제목을 바꾸어 <新羅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년
- 濱田耕策, 1999 <王權と海上勢力－特に張保臯の清海鎮と海賊に關連して> <新羅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년
- 濱田耕策, 2000a <渤海國の遣日本使> <慶北史學> 23
- 濱田耕策, 2000b <渤海國興亡史> 吉川弘文館
- 濱田耕策, 2000c <下代初期における王權の確立過程とその性格>, 후에 <新羅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년
- 濱中昇, 1982 <統一新羅における均田制の存否>, 후에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에 수록, 法政大學出版局, 1986년
- 濱中昇, 1983 <新羅村落文書にみえる計畑について>, 후에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에 수록, 法政大學出版局, 1986년
- 濱中昇, 1985 <統一新羅の村落と村主> <歴史學研究> 547
- 濱中昇, 1986 <高麗の公田と私田>, 田名網宏編 <古代國家の支配と構造>에 수록, 東京堂出版
- 濱中昇, 1993 <新羅村落文書を通してみた土地開發と分村> <神田外語大學紀要> 5
- 早川庄八, 1962 <天平六年出雲國計會帳の研究>, 후에 <日本古代の文書と典籍>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7년
- 早川庄八, 1981 <八世紀の任官關係文書と任官儀について>, 후에 <日本古代官僚制の研究>에 수록, 岩波書店, 1986년

- 林紀昭, 1968 <新羅律令に關する二, 三の問題> 《法制史研究》 17号
- 林紀昭, 1970 <飛鳥淨御原律令に關する諸問題>, 후에 《論集日本歷史2律令國家》에 수록, 有精堂, 1973年
- 原田諭, 1999 <天平の節度使について> 《續日本紀研究》 321号
- 春山武松, 1931 <海風鈔(三)-園城寺藏<新羅明神像>>飛鳥園《東洋美術》 10
- 久木幸男, 1968 <大學寮と朝鮮・中國の學制> 《大學寮と古代儒教》에 수록, サイマル出版會
- 日野開三郎, 1960~61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 후에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第9卷에 수록, 三一書房, 1984年
- 平川南, 1999 <屋代遺跡群木簡のひろがり>, 후에 《古代地方木簡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3年
- 平野邦雄, 1970 <新羅來寇の幻影>鏡山猛他編 《古代の日本3 九州》, 角川書店
- 平野邦雄, 1980 <國際關係における“歸化”と“外蕃”> 《大化前代政治過程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 平野邦雄, 1990 <鴻臚館の成立> 《古代文化》 42-12
- 平野邦雄, 1993 <大宰府と東アジア-大宰府外交の權限と實務> 《歴史と地理》 454 <日本史の研究> 161号
- 平野卓治, 1985 <律令位階制と「外蕃」>林陸郎先生還曆記念會編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에 수록, 續群書類從完成會
- 平野卓治, 1988a <日本古代の客館に關する一考察> 《國學院雜誌》 89-3
- 平野卓治, 1988b <山陽道と蕃客> 《國史學》 135
- 平野卓治, 1996 <九世紀における日本律令國家と對新羅「交通」>, 林陸朗他編 《日本古代の國家と祭儀》에 수록, 雄山閣出版
- 廣瀬憲雄, 2008 <『東天皇』外交文書と書狀> 《日本歷史》 724
- 深谷憲一, 1990 《日唐求法巡禮行記》, 中公文庫
- 藤井一二, 2004 <天平期における加賀郡「津」と遣渤海使-「天平二年」「津司」墨書銘を中心に>, 續日本紀研究會編 《續日本紀の諸相》에 수록, 塙書房.3c2091
- 藤田亮策, 1954 <青丘遺文>, 藤田先生記念事業會《朝鮮學論考》에 수록
- 卞麟錫, 1967 <唐代外國使爭長の 研究 -『續日本紀』所載의 소위 大伴古麻呂에 대하여->,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亞細亞研究》 28, 한글
- 卞麟錫, 1987 <唐代外國使의 爭長事例로 본 古麻呂抗議의 再論 -『續日本紀』關係史料의 批判을 中心으로->서울大學校《東洋史研究》 26, 한글
- 古畑徹, 1983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 《朝鮮學報》 107
- 古畑徹, 1984 <大文芸の亡命年次について> 《集刊東洋學》 51
- 古畑徹, 1986a <唐渤紛爭の展開と國際情勢> 《集刊東洋學》 55
- 古畑徹, 1986b <日渤海交渉開始期の東アジア情勢-渤海對日交渉開始要因の再検討->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3
- 古畑徹, 1994 <渤海・日本間航路の諸問題-渤海から日本への航路を中心に> 《古代文化》 46-8
- 古畑徹, 1995a <渤海・日本間の航路について> 《古代交通研究》 4
- 古畑徹, 1995b <渤海使の文化使節的側面の再検討-渤海後期の中華意識・對日意識と關連させて->, 東北大學《東洋史論集》 6
- 古畑徹, 1999 <環日本海諸「地域」間交流史の中の渤海國-七~一〇世紀における航路の変遷を中心に>唐代史研究會編 《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地域 唐代史研究會報告Ⅷ》에 수록, 刀水書

房

- 朴昔順, 2001 <日本古代國家の對『蕃』認識> 《日本歴史》 637
- 保科富士男, 1989 <古代日本の對外關係における贈進物の名称> 《白山史學》 25
- 保科富士男, 1995 <古代日本の對外意識－相互關係をしめす用語から－>, 田中健夫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에 수록, 吉川弘文館
- 堀池春峰, 1973 <華嚴經講說より見た良弁と審祥>, 후에 《南都仏教史の研究》 上에 수록, 法藏館, 1980年
- 堀敏一, 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 堀敏一, 1994 <律令制傳播の特質>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에 수록, 汲古書院
- 堀敏一, 1998a <唐代新羅人居留地と日本僧円仁入唐の由來> 《古代文化》 50-9
- 堀敏一, 1998b 《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日本》, 研文出版
- 前原市教育委員會編, 2006 《怡土城》
- 増村宏, 1988 <栗田真人と藤原清河> 《遣唐使の研究》에 수록, 同朋舎出版
- 松島順正, 1978 《正倉院寶物銘文集》, 吉川弘文館
- 松原弘宣, 1994 <文室朝臣宮田麻呂について>, 續日本紀研究會編 《續日本紀の時代》, 塙書房
- 松原弘宣, 1998 <海賊と應天門の変>, 후에 《古代國家と瀬戸内海交通》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4年
- 松原弘宣, 1999 《人物叢書 藤原純友》, 吉川弘文館
- 松原弘宣, 1999 <九世紀代における對外交易とその流通>, 후에 《古代國家と瀬戸内海交通》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4年
- 黛弘道, 1959 <冠位十二階考>, 후에 《律令國家成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2年
- 黛弘道, 1979 <冠位十二階の實態と源流>, 후에 《律令國家成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2年
- 三池賢一, 1971~72 <新羅内廷官制考(上下)> 《朝鮮學報》 61·62
- 三池賢一, 1973 <日本と朝鮮の位階>井上秀雄編 《セミナー日本と朝鮮の歴史》에 수록, 東出版
- 三上喜孝, 2006 <文書様式『牒』の受容をめぐる一考察> 《山形大學歴史・地理・人類學論集》 7
- 三上喜孝, 2007 <韓國出土木簡と日本古代木簡>朝鮮文化研究所編 《韓國出土木簡の世界》에 수록, 雄山閣出版
- 三上喜孝, 2009 <古代東アジア出舉制度試論>, 工藤元男他編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에 수록, 雄山閣
- 水口幹記, 2005 《日本古代漢籍受容の史的研究》, 汲古書院
- 皆川完一, 1994 <買新羅物解 拾遺> 《正倉院文書研究》 2
- 皆川雅樹, 2002 <9~10世紀における日本の金と對外關係> 《古代交通研究》 11
- 宮家準, 2002 <新羅明神信仰と役行者像> 《神道宗教》 188
- 宮井義雄, 1992 <素戔嗚尊と新羅明神>, 横田健一編 《日本書紀研究》 18, 塙書房
- 宮崎市定, 1959a <日本の官位令と唐の官品令>, 후에 《宮崎市定全集22日中交渉》에 수록, 岩波書店, 1992年
- 宮崎市定, 1959b <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 후에 《宮崎市定全集22日中交渉》에 수록, 岩波書店, 1992年
- 宮崎健司, 1998 <東大寺の『華嚴經』講說－テキストと經疏をめぐる－> 《仏教大學總合研究所紀要》別冊 <宗教と政治>
- 宮崎健司, 2006 <大谷大學図書館藏『判比量論』斷簡の性格> 《日本古代の寫經と社會》에 수록, 塙書

房

- 村井章介, 1995 <王土王民思想と九世紀の轉換> 《思想》 847
- 村上史郎, 1998 <9世紀における日本律令國家の對外交通の諸様相 - 大唐通事・漂流民送還・<入唐交易使>をめぐって-> 《千葉史學》 33
- 村上史郎, 1999 <9世紀における日本律令國家の對外意識と對外交通> 《史學》 69-1
- 村田正博, 1984 <上代の詩苑 - 長王宅における新羅使饗應の宴> 《人文研究》 26-8
- 村尾次郎, 1953 <出雲國風土記の勘造と節度使>, 후에 《律令財政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61年
- 森克己, 1949 <末期日唐貿易と中世的貿易の萌芽>, 후에 《續日宋貿易の研究》에 수록, 國書刊行會, 1975年
- 森克己, 1951 <遣唐使と新羅・渤海との關係>, 후에 《續日宋貿易の研究》에 수록, 國書刊行會, 1975年
- 森克己, 1962 <遣唐使>, 至文堂
- 森克己, 1964 <慈覺大師と新羅人>, 후에 《續日宋貿易の研究》에 수록, 國書刊行會, 1975年
- 森克己, 1975 <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 森公章, 1988 <古代日本における對唐觀の研究>, 후에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8年
- 森公章, 1992 <朝鮮半島をめぐる唐と倭>, 후에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8年
- 森公章, 1995 <古代難波における外交儀禮とその変遷>, 후에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8年
- 森公章, 1998a <大宰府および到着地の外交機能>, 후에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에 수록, 吉川弘文館
- 森公章, 1998b <『白村江』以後>, 講談社
- 森公章, 2002a <加耶滅亡後の倭國と百濟の<任那復興>策について>, 후에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8年 a
- 森公章, 2002b <倭國から日本へ> 森公章編 《日本の時代史3倭國から日本へ》에 수록, 吉川弘文館
- 森公章, 2003 <賓禮の変遷から見た日渤關係をめぐる一考察>, 후에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8年
- 森公章, 2004 <日渤關係における年期制の成立とその意義>, 후에 《遣唐使と日本古代の對外政策》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8年
- 森公章, 2005a <白村江戰鬪と高句麗>, 韓日關係史學會國際學術大會 <東アジアのなかの高句麗と倭> 報告集
- 森公章, 2005b <中大兄の軌跡> 《海南史學》 43
- 森公章, 2008a <七世紀の國際關係と律令体制の導入>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에 수록, 吉川弘文館
- 森公章, 2008b <承和度の遣唐使と九世紀の對外政策>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에 수록, 吉川弘文館
- 森公章, 2008c <古代日麗關係の形成と展開> 《海南史學》 46
- 森田悌, 1999 <蕃國國書の開見>, 후에 《日本古代の驛傳と交通》에 수록, 岩田書院, 2000年
- 森本公誠, 2003 <東大寺と華嚴經 - 聖武天皇による華嚴經止揚への過程を追って-> 《南都仏教》 83号
- 八木充, 1970 <百濟の役と民衆>, 小葉田淳教授退官記念《國史論集》에 수록

- 八木充, 1986 <難波遷都と海外情勢> 《日本古代政治組織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 柳雄太郎, 1976 <正倉院金工の銘文> 《正倉院の金工》에 수록, 日本經濟新聞社
- 矢吹慶輝, 1927 <大雲經と武周革命> 《三階經の研究》에 수록, 岩波書店
- 山内晋次, 1986 <唐朝の國際秩序と日本>, 후에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3年
- 山内晋次, 1990 <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る>, 후에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3年
- 山尾幸久, 1967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 229
- 山崎雅稔, 1999 <貞觀五年神泉苑御靈會の政治史的意義-文室宮田麻呂の慰撫を中心に>, 十世紀研究會編 《中世成立期の政治文化》, 東京堂出版
- 山崎雅稔, 2000 <貞觀八年應天門失火事件と新羅賊兵> 《人民の歴史學》 146
- 山崎雅稔, 2001a <承和の変と大宰大貳藤原衛四條起請> 《歴史學研究》 751号
- 山崎雅稔, 2001b <貞觀十一年新羅海賊來寇事件の諸相> 《國學院大學大學院紀要(文學研究科)》 32
- 山崎雅稔, 2004 <甄萱政權と日本の交渉> 《韓國古代史研究》 35号
- 山崎雅稔, 2007 <新羅國執事省牒からみた紀三津「失使旨」事件>木村茂光編 《日本中世の權力と地域社會》에 수록, 吉川弘文館
- 山田英雄, 1974 <日・唐・羅・渤海間の國書について>, 후에 《日本古代史攷》에 수록, 岩波書店, 1987年
- 山谷紀子, 2004 <滋野貞主「春夜宿鴻臚簡渤海入朝王大使」> 《アジア遊學》 66
- 山本勉, 1998 <新羅明神坐像> 《週刊朝日百科1183 日本の國寶77》에 수록, 朝日新聞社
- 山本幸男, 2004 <天平十二年の『華嚴經』講說>續日本紀研究會編 《續日本紀の諸相》에 수록, 塙書房
- 山本信吉, 2006 <聖語藏『大方廣仏華嚴經(自卷第七十二至卷第八十)』の書誌的考察> 《正倉院紀要》 28号
- 山本幸男, 2008 <東大寺華嚴宗の教學と實踐> 《南都仏教》 91号
- 吉川眞司, 1988 <奈良時代の宣>, 후에 《律令官僚制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1998年
- 吉川眞司, 2004 <律令体制の形成>, 歴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編 《日本史講座 1 東アジアにおける國家の形成》에 수록, 東京大學出版會
- 吉津宜英, 1991 《華嚴一乘思想の研究》, 大東出版社
- 吉津宜英, 1997 <全一のイデア-南都における<華嚴宗>成立の思想史的意義->鎌田茂雄博士古稀記念會編 《華嚴學論集》에 수록, 大藏出版
- 라이샤ワー, 에드윈 O. 1955 'Enin's Diary -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 라이샤ワー, 에드윈 O. 1963 《世界史上の円仁》 田村完誓譯, 實業之日本社, 후에 제목을 바꾸어 《円仁 唐代中國への旅》, 原書房 1984年, 또 《講談社學術文庫 円仁 唐代中國への旅》, 1999年
- 羅幸柱, 1996 <古代朝・日關係における<質>の意味> 《史觀》 134
- 李宇泰, 1983 <新羅『村落文書』と村域に對する一考察> 《金哲俊博士華甲紀年史學論叢》에 수록, 知識産業社, 한글
- 李宇泰, 1993 <新羅西原京研究の現状と課題-村落文書を中心として-> 《湖西文化研究》 11, 한글
- 李喜寬, 1994 <新羅村落帳籍に見える村の性格>, 후에 《統一新羅土地制度史研究》에 수록, 一潮閣, 1999年, 한글
- 李基東, 2001(近藤浩一譯)<張保臯とその海上王國(上)(下)> 《アジア遊學》 26・27号
- 李弘植, 1954 <日本正倉院發見の新羅民政文書>, 후에 《韓國古代史の研究》에 수록, 新丘文化社,

- 1971年, 한글
- 利光三津夫, 1962 <百濟亡命政權考> 《律令制とその周辺》에 수록, 慶應通信, 1967年
- 利光三津夫, 1966 <奈良時代における大學寮明法科>, 후에 《律令制とその周辺》에 수록, 慶應通信, 1967年
- 李仁哲, 1993 <新羅帳籍に見える村の形態と性格>, 후에 《新羅村落社會史》에 수록, 一志社, 1996年, 한글
- 李仁哲, 2001 <新羅帳籍に對する幾つかの論議> 《韓國古代史研究》 21, 한글
- 李成市, 1982 <正倉院寶物氈貼布記を通して見た八世紀の日羅關係> 《朝鮮史研究會會報》 67号
- 李成市, 1989 <蔚珍鳳坪新羅碑の基礎的研究>, 후에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98年
- 李成市, 1990 <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國書問題に關する一試論>, 후에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98年
- 李成市, 1994 <渤海の對日本外交への理路>, 후에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98年
- 李成市,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正倉院の寶物が來たもう一つの道-》, 青木書店
- 李成市, 1998 <正倉院所藏新羅氈貼布記の研究-新羅・日本間交易の性格をめぐって>, 후에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98年
- 李成市, 2000 <三國の統一と新羅・渤海>, 武田幸男編 《世界各國史2朝鮮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 李成市, 2004 <新羅文武・神文王代の集權政策と骨品制> 《日本史研究》 500
- 李成市, 2005 <古代朝鮮の文字文化>, 平川南編 《古代日本 文字の來た道》에 수록, 大修館書店
- 李成市, 2009 <韓國木簡研究の現在>, 工藤元男他編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에 수록, 雄山閣
- 李泰鎮, 1990 <新羅村落文書の牛馬> 碧史李佑成教授定年退職紀年論叢《民族史の展開とその文化》上에 수록, 創作と批評社, 한글
- 李文基, 2002 <最近の韓國學界における韓國における韓國古代史研究の動向-新羅史關係資料問題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4
- 李炳魯, 1993 <九世紀初期における<環シナ海貿易圈>の考察-張保臯と對日交易を中心として> 《神戸大學史學年報》 8
- 李佑珍, 2004 <九世紀, 唐・新羅・日本の交易と商人> 《國學院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35
- 李鎔賢, 2008 <佐官貸食記と百濟貸食制>國立扶余博物館《百濟木簡》, 한글
- 李蘭映, 1983 <統一新羅の銅製器皿について> 《大宰府古文化論叢》 下卷에 수록, 吉川弘文館
- 梁正錫, 1999 <新羅公式令の王命文書様式> 《韓國古代史研究》 15, 한글
- 和田軍一, 1924a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畫について(第一回)> 《史學雜誌》 35-10
- 和田軍一, 1924b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畫について(第二回 完)> 《史學雜誌》 35-11
- 和田龍介, 2000 <畝田・寺中遺跡> 《木簡研究》 22
- 渡邊誠, 2003 <承和・貞觀期の貿易政策と大宰府> 《ヒストリア》 184号
- 渡邊誠, 2005 <文室宮田麻呂の「謀反」> 《日本歴史》 687
- 渡邊誠, 2007 <藤原元利万侶と新羅の「通謀」> 《史學研究》 258
- 渡邊誠, 2009 <日本古代の朝鮮觀と三韓征伐傳説> 《文化交流史比較プロジェクト研究センター報告書》 VI